



제 5 장 마을의 생활과 문화

제 5 장

마을의 생활과 문화

I. 의식주 생활

1. 주생활

(1) 개관

서울 근교라는 지리적인 특성 때문인지 조용한 시골이었던 성남은 개발붐에 일찌감치 노출되어 변화의 길을 걸었다. 오늘날 성남에는 다양한 삶의 모습이 공존하고 있다. 최첨단 아파트가 있는가 하면 또 한 편에는 시골마을의 모습을 지키고 있는 시외곽의 자연마을도 있다. 여기서 다루게 될 북정동과 태평동, 그리고 창곡동 또한 개발의 추이에 따라 변화된 양상들을 담고 있어 흥미롭다.



↑ 최근에 신축된 북정동 다세대주택들



↑ 신축되고 있는 건물들 사이에 할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과거의 주택들이 을씨년스럽게 드물게 남아있는 북정역 주변 주택가

태평동은 성남 개발 당시부터 주택 및 상업 혼합지역으로 주목받던 곳이다. 1968년 성남 개발을 시작하면서 서울에서 거주지를 철거당해 이주한 사람들을 위해 정부는 18평 내지 20평의 택지 분양권을 이들에게 나눠주었다. 그렇게 형성된 곳이 이 곳 태평동



↑ 창말에 최근에 지어진 고급주택

주택단지이다. 그러나 1980년대를 거치면서 새 건축이 들어서고 또 주민들의 나고 늙이 활발해지면서 철거민들이 세웠던 옛 집들은 헐리고 그 터에 현재와 같은 2층 단독주택들이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5층 이상의 빌라도 군데군데 세워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완만한 변화상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재개발이 계획되어 있어 차후에는 또 다른 모습으로 변모할 것이다.

태평1동에서 만난 이아무개¹³⁹⁾의 집은 오늘날 태평동의 전형에 속한다. 이보영은 태평동에서 태어나 근처로 시집을 갔다가 30년 전에 다시 태평동으로 돌아와 자리를 잡았다. 태평동으로 돌아오던 해에 한 철거민에게서 18평 주택을 구입하여 살다가 18년 전에 그 집을 허물고 현재의 집을 지었다.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은 지하 1층, 지상 2층의 주택으로, 태평동 어느 곳에서든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집이다. 이아무개의 집에는 '한 지붕 4가구'가 살고 있는데, 지하에 두 가구, 1층에 한 가구가 세를 살고 있고, 2층엔 이아무개 가족이 거주하고 있다. 세입자들은 대부분 타지에서 온 사람으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다. 이아무개 가족이 거주하는 2층은 방 3, 주방 1, 화장실 1개의 구조로 되어 있다. 식구는 할머니(이아무개)와 큰아들 내외, 손자, 손녀, 이렇게 5명이 살고 있는데, 안방은 큰아들 내외가, 아랫방은 손자가, 건넌방은 할머니가 손녀딸과 함께 쓰고 있다. 할머니가 생각하기에, 손녀딸은 자기 방을 몹시 갖고 싶어 하는 눈치라고 한다.

잠실 쪽에서 진입하는 초입에 위치하는 북정동은 경원대학교와 동서울대학교가 들어서면서부터 서서히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다가 1990년대를 넘어서면서 급격하게 개발되었다. 개발붐이 일면서 신축건물의 상당수는 여느 대학가와 마찬가지로 음식점이나 오피스텔이 대부분이다. 이 오피스텔은 대개 지방학생들에게 임대해주거나 고시원 건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건물을 지을 때 학교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모이게 되는 '대학촌'이라는 특성을 반영한 것처럼 보인다.

창곡동은 아직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이주가 활발하지 않고, 또 마을 주위에 논밭이 있는 탓에 도시 근교에 있는 시골마을의 전경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139) 제보자 : 이○○(여, 72세, 태평동에서 태어났고, 현재 태평1동에 거주)

창말에는 대략 160여 호가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한국전쟁 이후, 혹은 새마을운동과 맞물려 지어진 주택들이다. 그리고 수도권 주변지역이 그렇듯이, 창말 또한 한 집에 서너 가구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지리적으로 서울과 가깝고 또 세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입자를 들임에 있어 창곡동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태평동이나 복정동의 경우는 세입자를 들일 때 전세로 들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창곡동 창말의 경우는 사글세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 창말의 사글세방은 시설은 낙후되었을지라도 방 하나에 평균 월 15만원 정도여서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 둘째, 세입자 중에는 홀로 생활을 영위하는 독거노인이나 원래 이 마을에 살았으나 다른 곳으로 이주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많다.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2급 생활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 매달 30만원 정도의 최저생활비와 쌀이 배급된다. 이 중 15만원은 방세로 지불하고 나머지 15만원으로 생계를 영위하는데, 점심은 복지회관에서 가져다주기 때문에 아침, 저녁만 스스로 해결하면 된다. 그래서 제보자는 15만원으로도 한 달 생활이 어렵지 않다고 한다¹⁴⁰⁾.



↑ 현대식으로 비슷한 규모와 구조로 지어진 간이골의 주택



↑ 과거에 지어진 창말의 주택, 지붕이 돌기와로 되어있다

(2) 살림집의 형태와 구조

오늘날 성남의 주택들은 태평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하까지 방으로 꾸며놓은 3층 규모의 다세대주택(각 층이 15~20평)이 일반적이며 다세대 주택 사이로 수년전에 신축한 5층 규모의 빌라들이 대로나 넓은 골목 주변에 드문드문 있다. 아파트로는 태평동에 건우아파트(봉곡사 좌측), 통보공원아파트(영장산 현충탑 우측)가 있으며 성남서초교 맞은 편에 청운아파트가 있었는데 2004년 헐리고 현재 신축아파트를 짓는 공사가 한창이다.

140) 제보자: 김○○(남, 76세, 창말 거주)

경사진 좁은 골목에 주차장이 없는 다세대주택이 가득한 태평동과는 달리 복정동은 비교적 평수가 넓은 신축 다세대주택에 주차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주거지다.

창말은 과거 농가를 개조한 주택과 신축한 양옥들이 섞여 있다. 농가의 경우 외형은 옛날 모습을 간직하되 내부는 현대생활에 맞게 개조하였다. 농가 형태의 집이 신축한 양옥에 비해 그 수가 현재는 월등히 많으나 점차 양옥의 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창말은 아직 자연마을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 과거와 현재의 느린 변화상을 살펴보기에 용이하다. 여기서 과거 농가를 개조한 주택을 중심으로 그 형태와 구조를 살펴본다.

살림집의 형태와 구조는 가계의 경제규모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성남을 포함하는 경기도 남부의 전통가옥은 주로 튼 'ㄱ'자의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¹⁴¹⁾. 창말에 있는 전통가옥 또한 튼 'ㄱ'자의 형태와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전형적인 튼 'ㄱ'자라기보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변형된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 유형에 속하는 집들은 윗채에는 안방과 건넌방, 그리고 마루와 부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래채에는 대문과 사랑방, 그리고 외양간 및 광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집들은 생업의 변화나 농업기술의 변화 등으로 원래의 공간을 폐쇄하거나 그 용도를 변형시켜 사용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외양간(근래에는 소를 키우는 집이 없음)이나 광의 경우 옛 자취를 찾아보기 어렵다. 주민들이 이것을 방과 부엌으로 개조하여 세입자들에게 세를 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창말은 한 집당 3~4가구 가 함께 거주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3) 일상적인 공간의 이용 : 조학년¹⁴²⁾씨 댁 사례

가. 집의 내력

이 집은 8.15해방 직후에 지어졌다. 그전에는 창말 토박이가 살았으나, 조학년이 1972년에 세를 들어왔다가 1981년에 1200만원을 주고 사들였다. 당시 집주인이 급하게 집을 파느라고 싸게 구입했다 한다.

조학년은 원래 대구사람으로 대구에서 결혼을 하여 살다가 남편 직장을 따라 부산으로 이사했다. 그러나 그곳에서 무일푼으로 다시 창말로 이사를 왔다. 창말로 이주해온 당시 조학년은 이 집 사랑방에서 월 5만원에 사글세를 살았는데, 이 집을 산 이후로는

141) 경기도 남부의 살림집의 형태와 구조에 대해서는, 김동욱·정정남, 「경기 남부의 주생활」, 『경기민속지Ⅳ』, 경기도박물관, 2001, 578~644쪽, 주영하, 「생활문화」, 『이천시지Ⅲ』, 이천시지편찬위원회, 2001, 72~92쪽 참조.

142) 제보자 : 조학년(여, 75세, 고향은 대구로 남편 직장을 따라 부산으로 이주했다가 30년 전에 창말로 이주해 옴. 당시에는 빈손으로 이곳에 정착했지만 이곳에서 집도 사고 자식들도 키워내어 창말에 대한 애정이 많다)

자신이 살았던 사랑방에 정이 들고 또 그 방을 '돈벌어주는 방'이라고 여겨서 비워두는 한이 있어도 남에게 세를 내주지는 않는다. 현재는 거의 빈방이지만, 옷장과 옷걸이 등을 설치하여 이곳에 옷을 보관하고 있으며, 명절이나 생일날 가족들이 모일 때에 사용한다.

나. 가족 구성원

조학년의 남편은 성남으로 이사 온 후 이 집을 구입하기 전에 눈을 감았다. 그래서 조학년이 홀로 2남, 2녀를 키웠는데 지금은 모두 분가하였다. 아들네 가족은 각각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과 수지에 살고 있는데 가까워서 자주 들리는 편이다. 또 특별한 날엔 며느리가 음식을 만들어서 가져오곤 하는데, 금년 초복에도 며느리가 닭도리탕을 해왔다고 한다. 현재는 홀로 된 여동생과 둘이서 살고 있다.

다. 집의 재료

이 집은 지을 때 수수깁을 엮어서 외벽을 쳤는데, 그 이유는 흙이 잘 붙게 하기 위한 것이다. 외벽을 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수수깁으로 엮어서 우선 외형을 만든다. 그 다음, 흙이 잘 엉기라는 의미에서 진흙에다 짚을 썰어 갠 후, 수수깁으로 만든 외벽(외형)의 양쪽에다 바른다. 그리고 그 위에 진흙으로 다시 곱게 바른다. 만일 진흙이 터질 경우에는 진흙에 고운 모래를 섞어서 새 벽을 바르면 된다. 기둥과 마루는 소나무를 이용했다. 집을 짓는 기간은 빨라야 세 달이 걸리고, 보통은 여섯 달 정도 걸린다.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외 엮는 것과 진흙이 마르는 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외를 엮어서 집을 많이 지었으나, 1970년대 들어와서부터는 흙벽돌로 짓기 시작했다. 흙벽돌은 나무가 많이 들지 않아 짓는 데 경제적이다. 그런 까닭에 쉽게 대중화될 수 있었다.



↑ 조학년씨 댁



↑ 함진득씨 댁 대문, 주택의 안채는 현대식으로 신축하고 바깥채는 그대로 사용함

라. 집의 구조와 활용

조학년의 집은 오랑 기와집으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못을 쓰지 않고 흙을 파서 지은 집이다. 튼 'ㅁ'자형 집으로 윗채에는 안방과 건넌방, 부엌, 마루가 배치되고 아래채에는 사랑방 및 문간방, 그리고 외양간과 광을 두었지만, 1981년에 조학년이 이 집을 사서 세를 놓기 위해 기존의 외양간과 창고를 모두 방으로 개조했다. 따라서 지금은 방이 6개, 부엌이 4개, 창고 1개, 재래식 화장실 1개, 장독대 1개로 구성되어 있다. 변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은 안방과 마루, 그리고 창고¹⁴³⁾와 재래식 화장실, 그리고 바깥채뿐이다. 부엌 뒤에는 장독대와 텃밭이 있다¹⁴⁴⁾.

일상공간의 쓰임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안방은 주인 자매가 거주하는 공간이고, 마루는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를 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음식은 부엌에서 만들지만, 식사는 상을 펴서 마루에서 먹기 때문에 마루에 냉장고¹⁴⁵⁾가 위치한다. 아직 김치 냉장고가 없는 대신, 김치만을 보관하는 냉장고를 별도로 들여놓았다. 따라서 김치를 예전처럼 김치광에 보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고추장, 된장, 간장 등 장류는 여전히 뒤뜰에 있는 장독대에다 보관하고 있다. 안방에 딸린 부엌은 1981년에 아궁이가 있는 재래식 부엌에서 현재와 같은 입식 부엌으로 개조하였다. 그러나 양옥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입식 부엌의 형태는 아니고, 썩크대를 놓고 아궁이를 막



↑ 조학년씨 댁 부엌 뒷면

143) 창고 벽면에 차를 끓여 먹을 때 사용하는 오가피와 누름나무를 매달아 놓았다. 현재 창곡동은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난방으로 조학년씨 댁에는 연탄을, 취사용 연료는 LPG가스를 사용한다. 따라서 창고에는 연탄이 채워져 있으며 부엌 옆에는 LPG 가스통이 놓여 있다. 난방으로 석유를 사용하는 집도 있으나 최근 유가의 급등으로 시골에서는 다시 연탄으로 난방을 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144) 2005년 8월 현재 텃밭에는 고추, 가지, 부추, 파, 들깨, 토란이 자라고 있으며 무성하게 자란 호박넝쿨이 담장을 에워싸고 있다. 식사 때면 이곳에서 나는 싱싱한 야채를 먹는다. 장독에는 고추장, 된장, 간장이 담겨 있다.

145) 2005년 8월 김덕목과 박지윤이 조학년씨 댁 냉장고를 조사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음식과 재료가 들어 있었다. '냉동실'에는 김, 멸치, 북어, 떡, 소고기, 돼지고기, 생선(조기), 고춧가루, 새우젓, 잣, 쑥 삶은 것, 마른 오징어, 마늘 다진 것, 은행, 마른 새우, 영양가루(잣, 호도, 보리쌀 등을 썬어 만든 것), 감자가루, 검은 콩, 마른 홍합. '냉장실'에는 김치, 들깨가루, 깻잎, 열무김치, 배추김치, 고추장, 마늘 다진 것, 더덕, 마늘 절인 것, 마늘짬아치, 다시마, 차임, 초고추장이 있었다. 과일은 배, 토마토와 고구마가 있었으며 음식재료로 멸치가루, 참쌀가루, 메주가루 같은 것, 단호박가루가 있었다. '냉장실 문밖'에는 구르세링 한 병과 소주 3병 그리고 레몬 3개를 잘 썬 숙성시킨 오일류와 참기름, 젓갈, 들깨가루, 콜라, 위청수, 들깨분말, 산초가루, 홍삼정골드, 소스, 캐참, 벌꿀, 인삼 말린 것, 다시마, 대추, 약 등이 있다.

아 그 위에 시멘트를 평평하게 바른 다음, 그 위를 상이나 그릇 등을 수납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어 옛 부엌의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부엌 앞에는 수도가 있는 곳인데 지금은 사방에 시멘트를 발라서 세탁기를 함께 두었다. 또한 겨울철에는 외풍이 심하기 때문에 지붕에서부터 수돗가를 비닐로 빙 둘러싸우곤 한다. 미관상 별로 좋지는 않지만, 난방료를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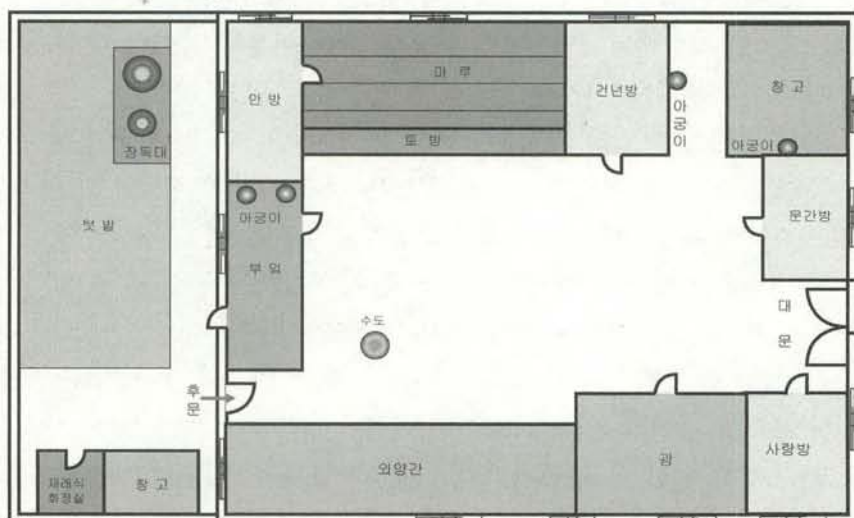
↑ 조학년씨 덕 부엌 앞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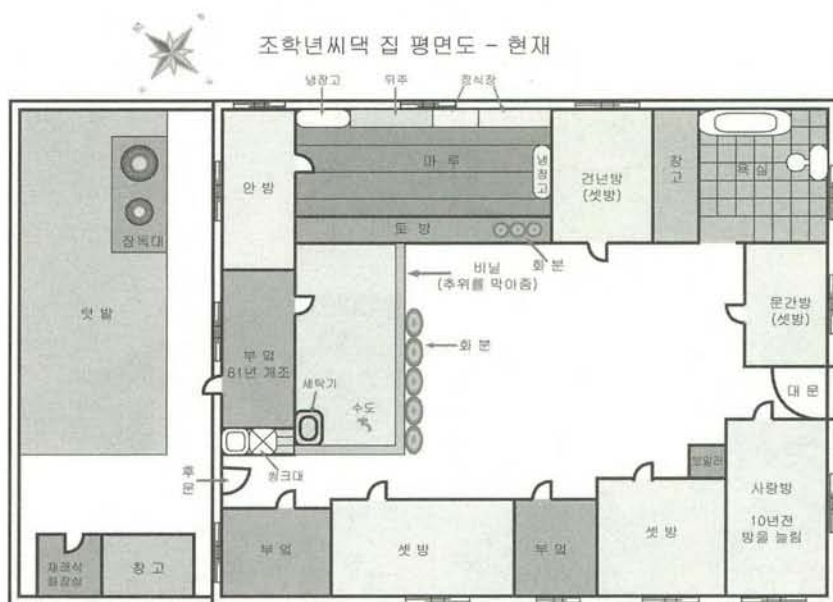


↑ 조학년씨 덕 부엌 뒤에 있는 장독대와 텃밭



조학년씨덕 집 평면도 - 과거





조학년은 10년 전에도 집을 한 차례 개조했다. 자신이 이 집에 이사와 처음 살았던 사랑방을 늘리기 위해 대문 한 짝을 뜯어내고 그 공간만큼 방을 키운 것이다.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조학년은 이 방만큼은 '돈 들어오는 방'이라 하여 어느 누구에게도 세를 주지 않고 있는데, 그럼에도 굳이 방의 규모를 키운 이유는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 찾아오는 자녀와 손주에게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조학년의 가옥은 1981년과 1995년, 두 차례에 걸쳐 개조되었다. 집을 개조한 것은 두 가지 목적에서였다. 첫째는 세를 주기 위해서였고, 둘째는 분가해서 찾아오는 자녀와 손주들에게 조금이나마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즉 조학년 가옥의 변형은 세입자나 자녀와 손주들을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주택의 개조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을 뿐이다. 해방 직후에 지어진 이 집은 애초 취사와 난방으로 땔감을 사용하는 집으로, 그리고 광이나 마굿간 등 농업을 위한 용도와 거주를 위한 용도를 겸한 농가(農家)로서 지어졌다. 취사와 난방 연료의 변화와 생업의 변화 등으로 농업을 위한 용도가 사라지고 세입자를 들이기 위한 새로운 용도가 추가되는 등 그동안 여러 가지 생활상의 변화에 맞게 이 집은 변화되어 왔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는 주택의 외형은 크게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내부구조를 변화시키는 데 주력하였다. 조사자가 수년 후 이곳에 왔을 때는 외형마저 사라지고 그 터에 시멘트콘크리트로 지어진 양옥이 들어서 있을 가능성이 크다. 벌써 이웃에는 이렇게 들어선 양옥들을 볼 수 있다.

2. 식생활

(1) 집에서의 식생활 공간

전통적인 한국의 살림집에서 식생활과 관련된 공간은 부엌을 중심으로 하여 찬방, 장독대, 우물, 그리고 광이라는 부속건물로 이루어진다. 부엌은 음식을 조리하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난방을 하는 아궁이가 설치된 곳이다. 찬방은 식탁을 차리고, 각종 조리기구와 식기를 보관해두는 부엌의 부속공간에 해당된다. 장독대는 음식의 간을 맞추는 데 필요한 각종 장을 비롯하여 마른 고추와 소금 따위를 보관하는 공간이다. 우물은 부유층의 살림집에서만 독립적으로 집의 부속물로 등장하지만, 음식의 조리과 세척에 필수적인 물을 제공한다. 광은 음식의 재료를 보관해 두는 곳으로 이 역시 부유층의 살림집에서 나타난다¹⁴⁶⁾.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목할 만한 것은 아궁이의 변천이다. 오랫동안 아궁이에 불을 때서 밥을 하다가 연탄이 등장하면서 연탄아궁이로 바뀌게 되었다. 태평1동의 이보영은 당시 시아버지가 몸이 편찮은 관계로 매 끼니마다 죽을 끓여야 했는데, 매번 아궁이에 불을 때서 하기가 번거로워 연탄아궁이를 들여놓게 되었다고 한다. 그 후 석유곤로가 나와서 인기를 끌었고, 그 다음엔 LPG가스, 또 그 다음엔 지금과 같은 도시가스가 출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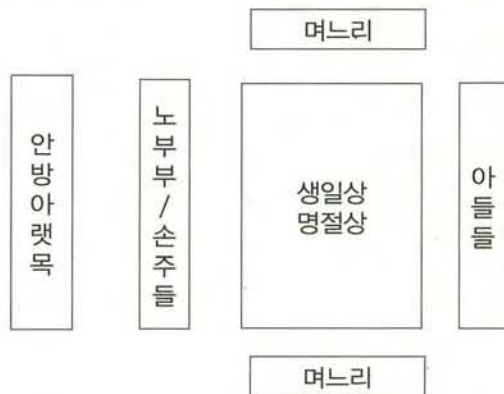
한편 오늘날의 도시 살림집에서는 부엌을 중심으로 하여 식탁과 안방, 거실 등이 밥을 먹는 공간으로, 베란다와 냉장고는 음식 재료를 보관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몇 년 전부터 인기를 얻고 있는 김치냉장고는 예전의 김치광을 대신하여 한 여름에도 언제든지 싱싱한 김치를 즐길 수 있게 하였다. 김치냉장고는 김치만을 보관하는 기능에서 더 나아가 각종 야채를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다. 그리하여 주부들은 김치뿐 아니라 야채와 과일을 보관하기 위해 되도록이면 큰 용량의 김치냉장고를 희망하고 있다.

식생활과 관련된 공간을 살펴보기 위해 제보자 손희선¹⁴⁷⁾ 집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기로 하자. 손희선의 집은 여름에는 마루에서, 봄·가을이나 겨울에는 거실이나 안방에서 상을 펴고 밥을 먹는다. 어른인 할아버지를 제외하고는, 식사할 때 정해진 자리는 딱히 없다. 오히려 할아버지의 위치를 중심으로 집안 식구들의 식사하는 위치(특히 할머니)가 바뀐다. 예를 들어 거실에서 밥을 먹을 경우, 할아버지는 주로 안방 앞

146) 주영하, 「식구론 : 현대 한국사회에서의 음식습관」, 『정신문화연구』제25권 제1호, 2002, 11~12쪽

147) 제보자 : 손희선(여, 73세, 답십리에서 6.25가 나던 해 시월 18세에 창말로 시집옴. 창말에 거주한 지 올해로 54년)

(안방을 등지고)에 앉는데, 그럴 경우 할머니는 할아버지 옆자리에 앉는다. 한편 안방에서 식사를 할 경우, 할아버지가 아랫목에 앉고 할머니 또한 할아버지 옆자리에 앉는다.



↑ 〈명절이나 생일에 가족들이 상 앞에 앉는 위치〉

위는 생일이나 명절처럼 온 가족이 모이는 날에 식사를 하기 위해 가족들이 앉는 배치를 재구성해 본 것이다. 노부부는 가장 격식 있는 공간을 차지한다. 그것은 바로 안방을 등지고 앉은 위치이다. 여기서 아들이나 며느리가 동석하지 않지만 손자들은 예외이다.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아이들이 '소황제화' 되어가는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하겠다. 한편 이 노부부를 마주보며 아들들이 자리에 앉는 반면, 며느리들은 상머리의 주변부에 위치한다. 이처럼 식사를 하는 위치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은연 중 집안의 위계가 존재하여 상황과 공간에 따라 가족들이 앉는 위치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2) 일상식

가. 일상식의 구조

일상식의 구조는 밥, 국(찌개), 김치 위주이다¹⁴⁸⁾. 태평1동 이보영 가족의 일상식을 조사해본 결과, 밥은 쌀밥과 잡곡밥, 콩밥, 보리밥, 김치도 배추김치에서부터 꼬들빼기 김치까지 다양하며, 여기에 나물 등의 반찬이 추가된다. 즐겨먹는 찌개의 종류는 김치찌개, 호박고추장찌개, 동태찌개, 된장찌개 등이다. 지금처럼 쌀밥을 먹게 된 것은 1970년대 이후이다. 그전에는 쌀밥이 귀해서 늘 보리밥에 감자를 섞어서 먹었다. 쌀밥을 하는 경우는 집안 어른을 위해서나 혹은 제사 때뿐이었다. 밥을 할 때 보리밥 중간에 쌀

148) 일상식의 구조에 대해서는 주영하 앞의 논문과 『음식전쟁, 문화전쟁』, 사계절, 2000, 최준식, 『한국인에게 밥은 무엇인가』, 휴머니스트, 2004 참조.

을 안쳐서 쌀밥이 딱 한 그릇 나오게 하여 집안 어른께 드렸는데, 이보영의 셋째 아들은 그것에 대해 늘 불평을 늘어놓았다고 한다. 그러나 요즘엔 잡곡밥을 일부러 챙겨먹는데, 그 이유는 이보영이 당뇨가 있고 또 잡곡밥이 건강에 좋다고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 귀하던 쌀밥보다 잡곡밥의 값이 더 비싸서 세상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손주들은 잡곡밥보다 쌀밥을 여전히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잡곡밥이 거칠기 때문이다.

나. 일밥

과거에는 일밥 또한 중요한 일상식의 한 형태였다. 농번기에 모내기나 김매기 등 집 일을 하는 날에 여자들은 일밥을 준비하며 하루를 보내야 했다. 아침새참, 점심, 점심새참, 그리고 저녁새참, 이렇게 일밥이 하루에 네 차례나 나가야 했기 때문이다. 일꾼들은 각자 새벽밥을 지어먹고서 7시쯤 일을 나오기 때문에 아침 10시쯤 되면 출출해진다. 아침새참은 국수나 수제비 등 허기를 간단히 채울 수 있는 것으로 준비를 하는데 막걸리도 물론 빼놓지 않고 챙겨간다. 1시쯤 되면 점심을 내가는데, 밥 위주의 식단이었다. 그리고 3시쯤에 점심새참을, 4시 반이나 5시쯤 저녁새참을 내놓는다. 저녁은 각자 집에 가서 먹기 때문에 따로 준비하지 않는다.

이렇게 두세 시간 간격으로 일밥을 내가야 했기 때문에 일밥은 혼자서는 할 수 없었다. 일밥을 준비하는 사람과 그것을 일터까지 배달하는 사람, 이렇게 최소 두 사람 정도가 필요했다. 이보영은 태평동에 살았지만, 전답이 모란에 있어 그곳까지 일밥을 운반했다고 한다. 주로 음식을 담은 고무다라를 이고 다니거나 망태기에 음식을 넣어서 지고 다녔다 한다.

이렇듯 농번기의 하루는 아침 6시쯤 아침밥을 먹는 것으로 시작해서 어두워지도록 일을 하고 돌아와 저녁을 먹곤 했다. 그러나 농한기인 겨울철이라고 해서 게으름을 피울 수는 없었다. 겨울철엔 남자들의 경우에는 새끼를 꼬고 가마니를 짜고 또 나무하러 다녀야 했다. 여자들은 길쌈을 하거나 빨래를 하고 다림질하여 농번기 동안 헤진 옷을 기워서 다음 농번기를 준비하여야 했다. 특히 나무를 팔러 가는 남자들은 새벽에 일찍 서울로 가야해야 했기 때문에 새벽밥을 먹고 나갔다.

다. 음식물의 구입

태평동의 경우, 음식물 구입은 주로 가까운 중앙시장을 이용한다. 상설시장인 중앙시장이 형성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쯤이다. 그 전에는 5일장인 모란장이나 고등리장, 송파장, 광주 경안장 등을 이용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시

장 출입이 빈번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농사를 더 이상 짓지 않으면서부터 채소, 육류, 과일 등 대부분의 먹거리를 시장에서 구입한다. 이보영은 자신이 직접 농사지를 때보다 현재 더 좋은 먹거리를 먹고 있다 한다. 왜냐하면 농사를 지을 당시에는 돈이 귀해서 잘생긴 것은 모두 팔고 자신과 가족들은 별레 먹은 것, 상한 것 등을 먹었다 한다. 일상의 먹거리 외에 김장 등 저장음식에 쓸 고추나 콩 등은 상당히 많은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골에 살고 있는 아는 사람을 통해 구입한다. 반면 마늘이나 양파 등 부피가 큰 재료는 매일 마을을 도는 트럭에서 구입한다.

라. 식기구

이보영 가족의 경우, 집안 어른인 할아버지는 놋그릇과 은수저를 사용한다. 이 은수저는 며느리가 시집을 때 가족들 숫자만큼 사온 것이다. 그러나 할머니 이보영을 비롯한 나머지 식구들은 개인용 수저와 그릇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스테인레스 제품을 즐겨 쓴다. 은수저는 무거워서 사용하기 불편하기 때문이다.

(3) 비밀상식

가. 세시의례음식¹⁴⁹⁾

예전에는 세시음식이 주로 명절 음식을 일컬었던 반면, 오늘날은 제사와 복날, 생일 까지도 이 세시음식의 범주로 분류한다. 이 날 준비하는 음식의 종류와 양은 집집마다 모두 다르겠지만, 이보영과 손희선을 통해 재구성해 본 성남의 세시음식은 대략 다음과 같다.

- **제사음식** : 제사음식은 기제사와 차례(설, 추석 등), 시제 등에 따라 음식의 종류가 다소 달라진다. 자세한 내용은 일생의례의 제사부분에서 다루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간략히 서술한다. 이보영의 경우, 1년이면 제사가 7번 있다. 종교가 불교라서 제사로 인한 갈등은 없다. 제사에 올리는 과일로는 대추, 밤, 꽃감, 배는 삼색이라 하여 빼놓지 않고 꼭 올리며, 그 외에 사과, 수박, 참외, 포도, 귤 등 시절과일은 그때에 따라 올린다. 나물은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숙주 등 삼색 이상을 올린다. 탕은 다시마, 두부, 무, 북어, 소고기 등을 넣고 끓인다. 제사음식을 만들 때는 특히 정갈함을 강조하고, 고춧가루는 쓰지 않는다. 그 외 메와 탕, 적, 전, 떡, 과자 등이

149) 최준식은 세시의례음식과 통과의례음식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세시의례음식에서는 몸의 성장·발달 및 인체 대사에 필요한 영양을 획득하는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는 반면, 통과의례음식에서는 육류 등을 통한 단백질 보충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니까 세시의례에서는 떡이나 제철에 나는 과일 혹은 채소 등을 섭취해서 탄수화물과 비타민 보충의 성격이 강한 반면, 통과의례는 각 개인이 맞는 중요한 시점에 차리는 음식이라 잘 먹자는 의미에서 고기를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단백질 보충의 의미가 크다(최준식, 앞의 책, 236~237쪽.)

올려진다.

이보영이 처음 시집왔을 때 시댁에서는 제기(祭器)로 유기와 목기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목기는 물에 넣으면 변색이 되거나 칠이 벗겨지기 때문에 반드시 마른 행주로 닦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래서 30년 전에 이보영은 녹슬지 않고 관리하기에도 편한 스테인레스 제기로 바꾸었다.

- **명절음식** : 명절의 개념이 변화되었다. 예전에는 설과 추석 못지않게 한식, 단오, 동지가 중요했지만, 요즘은 설과 추석 정도만 설 뿐이다. 설날에는 만두(속 : 김치, 돼지고기, 숙주나물, 잡채), 떡국을 준비하고 갈비찜과 토란국과 여기에 제사음식을 보태서 준비한다. 설날 아침에 온 가족이 모여 차례를 지내기 때문이다. 복날은 초복, 중복, 말복을 모두 챙긴다. 예전엔 개고기를 즐겨먹었는데, 요즘엔 손주들이 개고기를 꺼리기 때문에 주로 닭을 요리해 먹는다. 복날 먹는 음식이 효과가 있다고 제보자들은 믿고 있다. 불교를 신봉하는 이보영의 경우는 칠석과 백중을 위해 음식을 하거나 집에서 따로 쇠지는 않고 절에 가서 선친을 위해 불공을 드리고, 또 절에서 음식을 먹고 돌아온다. 추석에는 깨, 콩, 팥, 밤 등으로 속을 넣은 송편을 빚고 차례를 위해 음식을 준비한다. 동지에는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점심공양으로 절에서 준비한 팔죽을 먹고 온다.

옛날에는 생일상으로 미역국, 밥, 떡(주로 콩설기)을 준비해서 동네 어르신들을 모셔서 식사를 대접하곤 했지만, 요즘엔 식구들끼리 외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외식 때는 주로 삼겹살 등 고기이다. 아들 4형제만을 둔 이보영은 자녀들의 생일에 친정어머니가 절구에 뺏아서 수수팔떡을 해주면 아이들에게 좋다고 하여, 아이들이 열 살이 될 때까지 매년 수수팔떡을 해주었다. 손자들 생일에도 열 살까지는 떡을 해주었지만 그 이후에는 케익과 선물을 사주었다. 아이들이 떡보다 케익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나. 통과의례음식

이보영은 아들 네 형제를 결혼시킬 때, 피로연을 한 식당에서는 갈비탕과 술만 준비하게 하고 대부분의 음식을 집에서 마련해갔다. 그때 준비한 음식은 떡(송편, 인절미), 청포묵, 더덕 무침 등을 하고 통돼지 한 마리를 잡았다. 이보영의 회갑연은 집에서 치러졌다. 음식을 따로 준비하지 않고 뷔페를 불러서 대신하고, 본인은 물론 아들, 며느리, 이보영의 동기간에게까지 한복을 사주었다. 남편은 나이 50세에 사망하였다.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희망이 없다고 하여 다시 집으로 모시고 와서 집에서 눈을 감았다. 따라서 문상도 집에서 받았는데, 안방에 마련하였다. 문상 온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하

여 고기를 삶고 술과 밥을 내놓았다. 갑작스런 죽음인지라 수의와 상복은 모두 급하게 구입했는데, 수의는 가게에서, 상복은 시장에서 구입했다. 요즘은 상복을 농협에서도 판매한다. 운구는 상여가 아니라 영구차로 장지까지 모셨다. 49재(四十九齋)는 절에 가지 않고 집에서 지냈다.

다. 외식

외식은 휴일이나 생일처럼 특별한 날에 가끔 하는데, 메뉴는 그때마다 다르다. 집에 아이들이 있는 경우, 그들이 자장면이나 피자 등을 좋아하여 가끔 배달시켜 먹기도 한다. 여름 피서와 동네에서 해마다 가는 봄철 나들이도 외식을 하게 하는 주원인이다. 창곡 마을의 경우 올해는 4월 30일에서 5월 2일까지 2박 3일간 진도와 조도를 다녀왔다. 봄철 나들이를 갈 때 예전에는 동네 부녀자들이 음식을 만들어가곤 했지만, 요즘은 주로 여행지에서 사먹는다. 예전에 음식을 가지고 갈 때는 밥은 찌고 떡(주로 인절미)도 하고 배추김치, 오이김치, 북어찜 등을 장만하고, 닭도 삶아서 가져갔다. 닭으로는 주로 닭계장을 해먹었는데, 당시에는 가스가 없었기 때문에 석유곤로를 들고 다녔다.

(4) 저장음식

가. 장류¹⁵⁰⁾

- **메주** : 메주를 쏠 때 옛날에는 네 말 정도를 췌다. 그러나 요즘엔 두 말이면 충분하다. 이렇듯 양이 반으로 줄어든 까닭은 예전에는 사먹을 게 없어서 순전히 김치와 된장에 식생활을 의존해야 했고 또 모내고 김멜 적에 일꾼들의 일밥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장과 김치를 넉넉히 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영농의 기계화도 장과 김치의 저장량을 줄이는데 한몫을 한 셈이다. 장이든 김치든 예전에는 모두 담아 먹었지만 지금은 장은 사서 먹는다. 이보영 닌의 경우 고추장은 어찌다 며느리가 담기도 하지만, 간장과 된장은 모두 슈퍼나 시장에서 사 먹는다. 특히 요즘엔 조선간장을 잘 쓰지 않고 왜간장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국장만큼은 아직도 이보영이 직접 담아 먹는데, 청국장은 사먹으면 제 맛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음력 9월 말에 메주콩으로 메주를 썬서 메주를 만들어 통풍이 좋고 비가 들지 않는 곳에 매달아둔다. 음력 12월이 되면 이렇게 매달아놓은 메주가 바짝 마르면서 발효가 된다. 그러면 한 10일 정도 따뜻한 곳에 둔다. 그리고는 설을 쇠 후 음력 1월 10일쯤 되면 메주를 반으로 잘라 깨끗이 닦아서 햇볕에 바짝 말린 다음, 말날에 장을 담는다. 말날 장을 담아야 맛이 있다고 전해오기 때문이다.

150) 제보자: 조학년(여, 75세, 고향은 대구. 창말 거주), 방순애(여, 53세, 복정동 거주)

- **간장** : 항아리에 말린 메주를 담고, 소금물을 붓는다. 이때 소금의 양은, 물 한말에 소금 석 되 정도가 적당하다. 소금물에다 계란을 띄웠을 때 계란이 쏙 내려가면 간이 싱겁고 계란이 반쯤 뜨면 간이 맞다. 여기에 참숯과 붉은 고추, 대추를 넣고서 한 달쯤 되면 메주가 다 우러난다. 그러면 메주를 건져내어 메주와 간장을 분리한다. 이렇게 메주가 우러난 간장물을 체로 거른 후 술에 달인다. 달이지 않을 경우, 냄새가 나고 쉽게 변질되기 때문이다. 간장을 담을 때 별다른 금기사항은 없다. 왜냐하면 간장 담을 때 숯이며, 붉은 고추를 사용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 이미 다 들어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된장** : 간장을 담고 나서 담는다. 간장에서 분리해낸 된장을 다라에 담고서 치댄 후, 항아리에 담으면 된장이 된다. 이때 된장을 맛있게 담는 비법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간장을 담기 전 메주를 한 장쯤 남겨 그것을 잘게 부순 다음, 방앗간에 가져가 막장 식으로 가루로 뿜는다. 그리고는 된장을 담기 위해 간장물에서 건져낸 메주에다 그 가루를 섞고, 소금과 물을 조금 더 넣어 같이 치댄다. 이때 맛을 보아 약간 짠 듯 하면 간이 맞다. 만약 싱거울 경우, 된장을 냉장고에 보관하면 변질되지 않고 오래 먹을 수 있다.
- **고추장** : 역시 간장을 담고 난 뒤 담는다. 된장처럼 간장을 담기 전에 메주를 한 장 남겨서 아주 곱게 갈아서 둔다. 고추는 곱게 갈고, 엿기름가루는 체에 걸러 놓는다. 찹쌀 빵은 것에 엿기름가루를 붓고 질퍽하게 버무려 술에다 끓이면 이것이 삭아서 식혜처럼 멀겁게 물이 된다. 메주가루, 고춧가루를 그 달인 물에 버무리면 고추장이 된다. 버무리릴 때 물엿을 조금 넣으면 맛이 좋다. 간은 소금을 넣어 맞춘다. 고추장은 바로 먹어도 되지만, 된장이나 간장은 1년을 넘겨서 먹어야 맛이 난다.
- **청국장** : 콩을 담가 삶은 다음, 소쿠리에 건져 놓는다. 건져놓은 콩이 아직 뜨거울 때 비닐을 씌워서 한쪽에는 전기담요를 깔고 또 한쪽은 담요 등으로 덮어서 폭 썬 워놓는다. 그렇게 띄우기를 한 다음, 소금과 고춧가루 등을 넣고 절구나 다라에 찜는다. 청국장이 잘 썬졌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나무주걱(쇠주걱이나 숟가락은 不可)으로 떠봤을 때 진이 일어나는 경우이다.
- **담복장** : 담복장은 된장과 거의 비슷하지만 간장을 빼지 않고 바로 담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메주를 뿜아서 물과 소금을 넣고 간장을 빼지 않고 바로 담으면 담복장이 되는데, 담복장은 금방 변해 오래 먹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담지 않는다.

나. 김치류

장류와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김치를 담그는 일도 줄었다. 오늘날 한국인은 김치를 자가생산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공장제 생산의 것을 구입하여 먹는 방식으로 김치를 확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1950년대 이전에 태어난 주부들은 대체로 김치를 자가생산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195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김치를 구입해 먹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¹⁵¹⁾고 한다.

그럼에도 음력 10월 말이 되면 성남에 사는 주부들의 손길은 여전히 바빠진다. 김장을 담그는 철이기 때문이다. 속이 꽉 찬 튼실한 배추와 고춧가루, 마늘, 양파 등 양념거리를 사고 이들을 손질하는 일이 여간 만만치 않다. 게다가 요즘 도회지에 사는 젊은 사람들이 김치를 담아먹는 일은 드물기 때문에 김치를 공급하는 어머니들의 부담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주영하는 「식구론 : 현대 한국사회에서의 음식관습」이라는 논문에서 이러한 김치의 분배 행위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있는데, 김치의 분배가 가능한 인간관계는 다른 의미에서 그들이 원래의 식구 집단이었으며, 자녀들이 분가하여 각각의 가족을 형성한 후에도 김치를 共食하는 범주적 구성원으로 인식된다는 점을 꼬집고 있다¹⁵²⁾.

손희선은 김장을 해서 일곱 집으로 나눈다. 손희선은 슬하에 딸 5명, 아들 1명을 두고 있는데, 함께 살고 있는 아들 내외를 포함해서 6집과 작은 집까지, 모두 일곱 집이 나눠먹을 김치를 담는다. 한편 슬하에 아들 2명, 딸 2명을 둔 조학년은 세집이 나눠먹는데, 시집간 딸은 멀리 살고 있고, 또 그 쪽 시댁에서 가져다먹기 때문에 주지 않아도 된다.

김장은 주로 11월 말에 하는데, 이때에는 주로 배추김치와 달랑무김치, 파김치를 담는다. 김장을 담을 때에는 평균 100포기 정도를 담기 때문에 혼자서는 하기 힘들다. 따라서 동네 사람들이 서로 품앗이를 해서 김장을 하는데, 100포기를 담으려면 5~6명의 일손이 필요하다. 요즘에도 그렇듯 100포기씩 담는 이유는 옆집끼리 나눠먹고, 자녀에게 나눠주기 위해서이다. 양념으로는 멸치젓, 새우젓, 갈치액젓을 쓴다. 김치는 김치냉장고를 사용하여 보관하거나, 아직 김치냉장고를 구입하지 못한 집은 김치를 보관하기 위해 따로 냉장고 한 대를 쓰기도 한다.

151) 주영하, 앞의 논문, 23쪽.

152) 주영하, 앞의 논문, 23쪽.

3. 의생활

(1) 의생활의 변화

50년 전까지는 옷감을 집에서 직접 만들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옷감을 직접 만들지 않았다. 그 이유는 6.25 이후부터는 생활방식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6.25 이후, 성남 사람들이 옷을 입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 양상이 있는데, 첫째, 동대문 시장에서 옷감을 떠다가 직접 옷을 지어 입는 방법이다. 이 경우, 옷본을 따로 사용하지는 않았고 몸의 치수를 재거나 마름질을 할 때 바느질자 등의 기본적인 도구만을 사용하여 눈대중으로 옷을 만들었다. 이때 사용되는 도구는, 바느질자, 인두, 인두판, 화로 정도. 즉, 바느질자로 재가면서 마름질을 한 후, 인두판 위에 마름질한 옷감을 올려놓고서 화로에 담은 불에 인두를 달구어 잡아당기면서 인두질을 했다. 계절에 따라 옷감의 사용을 달리 했는데, 봄, 가을에는 강목을 두 겹으로 겹쳐서 옷을 만들었고, 여름엔 주로 베나 모시를 사용했으며, 겨울에는 난방을 위해 목화를 탄 솜을 틀고 씨를 빼낸 다음, 그 솜을 넣어서 솜바지 등을 해 입곤 했다. 둘째, 시장에서 옷을 사 입었는데, 지리적으로 가까워 걸어 다닐 수 있는 송파시장을 주로 이용했다. 셋째, 붓짐장수들에게서 옷이나 참빗 등 필요한 물품을 구입했다. 이때 거래는 화폐보다는 쌀 등의 곡식을 주었다.

최근에는 옷을 지어 입는 일은 드물고 대부분 시장에서 구입해서 입는다. 어쩌다 몸빼처럼 간단한 옷은 지어 입기도 하지만 드문 일이다. 옷을



↑ 창말 허옥희씨가 친정조카 월남파병 때 친정식구와 함께부산으로 마중 가서 촬영(1960년대 중반, 좌측에 있는 분이 허옥희)



↑ 허옥희씨 친정조카가 월남에서 돌아왔을 때 찍은 사진

구매하는 경우, 외출복과 평상복을 구입하는 시장이 각기 다르다. 외출복은 주로 동대문시장이나 백화점에서, 평상복은 모란시장에서 구입하는 편이다. 작업복의 경우는 일부러 구입하는 경우는 드물고, 외출복으로 입다가 낡은 옷을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2) 옷의 분류

가. 일상복

일상복은 집에서 편하게 걸치는 평상복과 일할 때 입는 작업복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그 경계는 모호하다. 평상복으로 입던 옷이 헐었을 경우, 그것을 작업복으로 사용한다. 일상복은 시장에서 구입하고, 주로 면 소재를 고른다. 때로는 외출복이나 평상복으로 입던 헌 치마를 뜯어서 몸빼처럼 간단한 종류의 작업복을 만들어 입기도 한다.

작업복은 봄, 가을은 물론 여름에도 긴 옷을 착용한다. 햇빛에 노출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자를 쓰는 경우에도 챙이 넓은 모자를 애용하고 그 위에 다시 수건을 둘러서 햇빛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한다. 위에는 주로 헐거워진 남방을, 아래에는 몸빼를 걸치고 고무신이나 운동화를 즐겨 신는다.

나. 비일상복

- **외출복** : 창말 사람들은 외출복은 놀러갈 때, 이웃집에 갈 때, 시장갈 때, 혹은 나들이갈 때 입는 옷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창말 사람들이 외출복으로 인식하는 옷은, 칼라 달린 옷옷과 기지 바지가 가장 많고, 여름엔 모시옷을, 겨울엔 모직 코트를 떠올린다.

노인들의 경우 외출복은 생일이나 어버이날에 자녀들이 선물해주는 옷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옷을 선물 받는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직접 사주는 것보다 돈으로 주어 자신이 맘에 드는 옷을 직접 골라 입는 것이 훨씬 좋다. 옷을 구입할 경우에 동대문시장을 이용하거나 세일 기간에는 백화점을 이용하기도 한다. 한편 신발의 경우는 티켓 받은 것을 가지고 가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신발을 고를 때 가장 고려하는 점은 편안함의 여부이다. 발이 편해야 디스크에 걸리지 않기 때문이다. 또 때로는 남대문시장에 가서 수입상품을 구매하기도 하는데, 가볍고 질기기 때문에 선호하는 편이다. 그러나 최근에 한참 유행했던 효도신발은 구비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집안에 잔치나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점잖게 보이고 사진을 찍을 목적으로 한복

을 즐겨 입는다. 예를 들면 집안사람의 결혼식, 회갑연, 명절, 시제, 차례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성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여자와 아이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한복을 입지만, 남자의 경우에는 나이든 사람은 한복을, 젊은 사람은 양복을 입는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한복 못지않게 생활한복도 즐겨 입는데, 입기에 간편하기 때문이다. 한편, 남의 결혼식, 회갑연 등에는 남녀 모두 주로 양복을 차려 입는다.

- **혼례복** : 손희선은 남편과 중매로 만나 열아홉에 시집을 왔다. 얼굴도 모른 채 시집을 왔는데, 그때는 너무 어려서 신랑 얼굴도 모르고 시집오는 게 두려운 줄도 몰랐다고 한다. 초례를 치른 날 신부집에서 하룻밤을 머물지 않고 시집으로 바로 오는 것이 경기도 풍습이어서, 손희선도 대례(초례)를 치른 그날로 가마와 배를 갈아타고서 시집으로 들어왔다고 한다. 시집에 들어온 그 이튿날부터 친척들과 마을 사람들이 색시놀음(색시구경)을 왔다. 색시는 아랫목에 앉아 있다가 손님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일어섬과 앉음을 반복해야 했는데, 색시놀음은 새색시가 해온 버선을 보며 며느리의 바느질 솜씨를 구경하고 동시에 새색시의 친절풍습이 암전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행해진 것이었다 한다.

혼례 때 입는 치마저고리는 신랑집에서 옷감을 보내와 집에서 어머니가 옷을 지어 주었다. 옷은 두 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속에는 분홍저고리에 남색치마를, 겹에는 노랑저고리와 빨강치마를 껴입었다. 여기에 활옷을 걸치고 족두리를 쓰고 흰 고무신을 신었는데, 활옷과 족두리, 덩(가마보다 큰, 궁중에서 쓰는 가마)은 따로 구입하지 않고 마을에서 구비해놓은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초례상에는 대나무(참대 : 사철 없이 편히 살라는 의미), 참대에 걸쳐놓은 청실·홍실, 남색 보자기에 싸인 장담(수탉), 쌀, 붉은 팔, 촛불, 용떡, 초례상 양쪽에 배치한 나무로 만든 기러기 두 마리 등이 있었다.

아무리 집이 가난해도 시집을 때 반드시 해 와야만 하는 혼수가 있었다. 내외가 쓸 낫그릇과 수저 한 벌, 낫요강, 경대, 이불, 시부모 옷 한 벌, 그리고 시부모와 친척들에게 줄 버선 한 죽이 그것이었다. 특히 버선 한 죽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단의 성격을 지녔다고 한다.

- **배내옷** : 융(폭신한 옷감)을 이용해서 재봉틀로 지어 입혔다. 어린아이에게는 단추나 지퍼도 위험하기 때문에 앞트임 양옆의 끈으로 온몸을 한 번 감싼 다음, 앞에서 여며 입을 수 있도록 끈을 달았다. 간난아이는 남녀 구별 없이 하의로 두롱치마를 해서 입혔는데, 발을 폭 덮을 만큼 길게 만들어 아기 이불의 역할도 겸하게 했다.

- 수의 : 부잣집은 주로 명주를 쓰고, 가난한 집은 삼베를 썼다. 아무나 만들 수 없고, 예법과 바느질 솜씨가 좋은 사람이라야 만들 수 있다. 겹으로 만들어야 하고 또 평소에 입는 옷과는 여밈 등이 반대이기 때문에 깃을 다는 것이 어렵고 헛갈리는 등 바느질이 상당히 까다롭다.

	기 본	부 속
남 자	속옷, 속저고리, 저고리, 바지, 두루마기(도포)	얼굴싸개, 머리싸개(=복건), 손싸개, 손톱, 발톱 주머니, 요, 이불, 장매(여미는 넓은 천), 맷베(뭍는 끈)
여 자	속옷(사리마다:일종의 팬티), 생리대, 속저고리,고쟁이, 저고리, 바지, 두루마기, 버선	
입히는 순서	속옷→속저고리, 고쟁이→치마, 바지→저고리→두루마기→(잘 사는 사람의 경우)도포→싸개→요, 이불→장매→맷베	

↑ 〈수의의 구성〉

수의를 구입할 때 예전에는 솜씨가 좋은 사람에게 맡기거나 집에서 직접 만들었지만, 요즘에는 병원에서 구입한다. 삼베의 경우, 200만원 정도를 호가한다. 창말의 경우, 마을에서 바느질 솜씨가 좋은 세 사람이 분업하여 수의를 만들기도 했다. 재단과 바느질은 허옥희(76)가 담당했고, 손희선은 미싱을 이용하여 바느질을 하였고, 당홍분은 옷고름을 달고 바지 허리를 다는 등 주로 마무리를 담당하였다. 이렇게 분업하여 만든 수의가 20벌 정도 된다.

수의는 옷장의 아래쪽에 보관한다. 수의의 경우에는 위에다 없으면 좋지 않다는 말이 있다. 손희선은 서랍장 맨 아래칸에 수의를 보관하고 있는데, 밑에 신문지를 두툼히 깔고 그 위에 수의를 놓은 다음, 또 중간에 신문지를 끼워 넣어 습기와 곰팡이가 피는 것을 방지한다.

(3) 의류의 보관

이불과 코트처럼 길고 부피가 큰 것은 장롱에 보관하는 한편, 차곡차곡 개서 넣을 수 있는 것은 단스를 사용한다. 손희선은 5칸짜리 단스의 맨 아랫쪽 두 칸에는 남편의 옷을, 그 위쪽 세 칸에는 자신의 옷을 개서 보관한다. 남편의 옷을 아래쪽에 두는 이유는 남편이 연로하여 앉아서 옷을 꺼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의류를 오랫동안 장롱이나 단스에 넣어둘 경우, 좀과 곰팡이가 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창말 사람들은 의류 보관을 위해 시장에서 좀약을 사서 넣어둔다. 또한 봄·여름

에는 가끔씩 통풍을 하기 위하여 장롱문을 열어둔다. 가끔 옷손질을 위해서 세탁소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겨울에 입은 모직 옷을 세탁할 필요가 있거나 양복을 세탁할 경우이다.

(4) 옷과 가족 이야기

창말에 거주하는 강순례에게는 특별한 옷이 한 벌 있다¹⁵³⁾. 작은집 조카가 해준 한복이 그것인데 조카가 집에 인사오거나 놀러 올 때마다 용돈을 조금씩 주어서 보냈더니, 취직을 한 후 조카가 그것을 잊지 않고 큰어머니인 자신에게 한복을 한 벌 선사한 것이다. 지금은 유행이 지나버려 그 옷을 입을 수는 없지만, 너무 고마운 마음에 입지 않아도 차마 버릴 수가 없는 고마운 옷이라고 한다.

II. 세시풍속

1년을 주기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세시풍속은 민속연구에서 중요한 연구대상이다. 의례, 신앙, 놀이, 음식 등 민속학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제반적인 요소들이 세시풍속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을이라는 공간과 1년이라는 시간의 맥락 속에서 주민들이 겪어가는 세시풍속은 그 지역의 생활문화를 용이하게 알아볼 수 있는 도면(圖面)과 같다. 따라서 세시풍속을 조사할 때는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공간 속에서 주민들이 세시풍속을 어떻게 겪어가는 지 촘촘히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통해 얻어진 조사보고서는 그 지역 문화를 이해하려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기초자료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조사는 이러한 취지를 가지고 태평동과 창곡동 중 두 개의 마을을 선택하여 제보자들의 대답을 통해 이 지역의 세시풍속을 살펴보았다. 1968년 김현옥 서울시장 시절 정부로부터 성남개발 계획이 발표되고 곧이어 성남은 조용한 농촌에서 도시건설을 위해 개발되기 시작했다. 금번 마을지 조사지역인 태평동, 복정동, 창곡동은 당시 크고 작은 자연마을들이 위치하고 있었다.

오늘날 태평동은 행정구역상 당시 광주군 중부면 탄리¹⁵⁴⁾와 수진리를 합한 것으로

153) 제보자 : 강순례(여, 73, 광주 출생, 창곡동 창말 거주.)

154) 제보자 : 박○○(남, 78세, 토박이 주민으로 태평3동 거주)

탄리에는 독정마을과 남씨편, 건너말이라는 3개의 자연마을이 있었다. 당시 '독정(讀亭, 현재는 신흥동에 속함)'마을은 현재 수정구청에서 성남초등학교까지 지역에 15가구 정도가 있었으며 주민들의 성씨는 남씨, 정씨 등 각성받이었다. '남씨편(南氏便)'마을은 현재 시청후문에서 영장산 기슭까지 세로로 길게 위치하였으며 15가구 정도가 거주하였는데 주로 남씨들이 살았다. '건너말'(윗숯골)은 현재 태평오거리에 있는 국민은행 자리에서 중앙파출소가 있는 탄리사거리까지 세로로 위치하였는데 현재 탄리로 좌측에 마을이 위치하였으며 탄리로 우측에서 성남시청이 있는 곳까지는 농토였다. 건너말은 탄리 중에서 가장 큰 마을로 개발되기 전 60여 가구가 살았다. 지금도 당시의 원주민들이 10여 가구 이곳에 살고 있다. 당시 이곳은 조씨가 10여 가구 있었으나 각성받이 마을이었다. 박 씨의 경우, 조상대대로 이곳에서 살았는데 현재도 선대로부터 살아왔던 터에 주택을 신축하여 그대로 살고 있다.

과거 수진리¹⁵⁵⁾에는 새탄말, 앞말, 뒷궁말, 새오개라는 4개의 자연마을이 있었는데 '새탄말'(아래숯골)은 현재 태평역에서 서울외곽순환도로 방향으로 수정로를 따라 길게 늘어서 있었으며 과거 30~40여 가구가 살았는데 그중 전주 이씨(全州李氏)가 30여 호 되었다. 현재도 대다수의 토박이 주민들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데 개발전과 비교하면 5가구 정도가 이사를 가고 나머지 주민들은 대부분 과거의 집터에 다세대주택을 지어 전세를 놓아 집세를 받으며 살고 있다. '앞말'은 태평역 2번 출구 뒤쪽으로 20여 집이 있었으며, '뒷궁말'은 현재 성남경찰서에서 보면 성남대로 건너편에 6집이 있었다. '새오개'(새우등처럼 생겼다고 하여 새우고개가 와전)는 현재 경원대역 부근인 성남서초등학교 주위에 12집 정도가 있었다.

북정동(福井洞)은 과거 행정구역상 광주군 중부면 북정리였다. 개발되기 전인 1970년에는 북우물, 기와골, 안골, 가마절이라는 자연마을이 있었는데 '북우물'은 현재 경원대 밑에서 서울외곽순환도로 건너편까지 70여 가구가 살았는데 성남대로와 서울외곽순환도로에 의해 마을이 양분되었으며 수년 전부터 신축건물이 대거 들어섰다. '기와골'은 현재 성남대로에 있는 북정역 우측에서 북정초등학교 지역까지 40여 가구가 있었는데 현재 토박이는 10여 호가 거주하며 수년전부터 신축건물이 들어서면서 신축건물 사이에 있는 몇 집 남은 과거의 주택들은 곧 철거될 예정이다. '안골'은 북정사거리에서 산성역 방향으로 조금 가다보면 도로 우측에 있는 마을이다. 과거에는 40여 가구가 살았는데 현재는 원주민 10여 가구가 살고 있다. '가마절'은 북정사거리에서 안골 입구를 지나 백여 미터 가다가 우측으로 들어가면 있는 마을인데 과거에는 20여 가구가 살았

155) 제보자 : 박규녀(여, 71세, 토박이 주민으로 태평1동 거주)

으나 현재는 원주민 10여 가구가 살고 있다.¹⁵⁶⁾ 창곡동(倉谷洞)은 1970년에는 행정구역상 광주군 중부면 창곡리였다. 창곡리는 매착리와 간이골, 창리라는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는데 '매착리'는 원래 주민들이 '매치기'로 불렀던 마을로 과거나 현재 비슷하게 20여 호가 거주하며 위치도 과거와 동일하다. '간이골'은 오늘날 외곡동으로 불리는데 1970년대에는 7가구가 드문드문 있었다. 1970년대 이 지역은 주로 논이었는데 육군참모총장을 지냈던 정승화가 한때 땅을 소유하였다가 80년대에 전두환정권이 그 땅을 몰수하여 성남시에 귀속시켜 1990년대부터 대거 주택들이 신축되면서 현재와 같은 주택가가 되었다. 창리는 원래 '창말' 또는 '창동'으로 불리었던 마을이다. 주민들에 의하면, 과거 병자호란 때 마을 뒤쪽 산골에 군량미를 보관한 창고를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창말'이라 불리었다 한다. 창곡동에는 현재 상무대, 육군 행정학교, 문무대 등 여러 군부대가 들어서 있는데 일제시대에는 이곳에 일본군 포병부대가 있었다. 지금 행정학교 취사장 있는 곳은 과거 병자호란 때 진을 친 곳이라 하여 '진터별'이라고 불리던 곳이다. 촌로들은 동네가 병자호란 이전부터도 있었다고 한다¹⁵⁷⁾. 창말은 1970년에는 인근에서 가장 큰 마을로 100여 호가 있었다고 한다.

이들 마을 중 당시 큰 마을이었던 탄리의 '건너말'과 창곡리의 '창말'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고, 시간적으로는 도시화되기 이전인 지난 1970년대 이전을 중심으로 하였으나 즉, 과거 농촌사회를 배경으로 하여 행해지는 세시풍속에 비중을 두었으나 서술함에 있어 과거에만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 변화양상과 원인도 함께 고려하여 서술하였다.

1. 창말의 세시풍속¹⁵⁸⁾

1월

(1) 설

- 차례 : 이 마을 경주 이씨(慶州李氏)댁의 경우, 설날 아침에는 식사를 하기 전에

156) 제보자 : 김영기(여, 71세, 토박이로 북정동에 거주)

157) 이곳에 마을이 형성된 것은 백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58) 창말의 세시풍속은 허옥희의 구술을 통해 조사했다(단 삼재막이와 홍수막이 부분은 송희선의 구술). 놀라운 정도로 뛰어난 기억력과 충기를 가진 허옥희씨는 차분히 이 동네의 세시풍속을 말해주었다. 사실 세시풍속은 남자와 여자의 경우 생활 속에서 기억하고 있는 부분에 차이가 있어 남녀를 함께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허옥희의 경우는 두루 상세히 알고 있었다. 허옥희의 시대는 경주 이씨이므로 제례의 경우는 집안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경주 이씨댁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차례를 지낸다. 차례상에는 떡국을 올리며 밥은 올리지 않는다. 또한 만두는 근래에도 일체 올리지 않는다. 아침 식사 후 성묘를 다니는데 산소는 마을 뒷산에 있다. 성묘를 다녀온 후 친척들과 동네어른들을 뵙고 세배를 드린다. 과거¹⁵⁹⁾에는 동네 어른들을 다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는데 근래에는 집안끼리만 다닌다. 과거에는 대보름 안까지는 세배를 다녔다.

차례나 제사를 지내고 나면 다른 곳은 몰라도 터에는 떡이나 떡국 등을 가져다 놓는데 보통 설에는 떡국, 추석에는 송편, 기제사 때는 편(飰)을 가져다 놓는다.

- 청참 : 설날 '풍년 풍년'하고 우는 풍년새가 울면 그 해는 풍년이 들고 돼지가 울면 그해는 '결죽하다'는 말이 있다. 또한 까치소리를 들으면 손님이 오고 송아지가 울면 길하고 닭이 울면 그해는 풍세(바람)가 사납다는 말이 있다.
- 유모일(有毛日), 무모일(無毛日) : 설날이 유모일에 속하면 그해는 풍년이 들고 무모일(용날이나 뱀날)에 속하면 흉년이 든다는 말이 있다.

(2) 정초

- 정초12支일 : 소날에는 도마질을 하지 않으며 솥에 밥도 넣어두지 않는다. 용날 물을 길러가면 일할 때 비 맞는다는 말이 있어 이 마을에서는 이날 우물물을 길러 가지 않는다. 용날에는 또한 칼질을 하지 않는다. 이날 칼질을 하면 용머리를 자른다는 말이 있다.



↑ 대보름에 허옥희씨 대문에 걸어놓은 채

- 귀신닭날 : 정월 16일에는 신발을 뜰에 두지 않고 방안에 들여놓으며, 대문 앞에 체를 걸어놓는다. 허옥희씨는 지금도 매년 이 날이 되면 대문 앞에 체를 걸어놓는다. 정월 14일에는 신발을 여러 개 줄에 꿰어 두는데 이렇게 하면 호박과 오이 등이 잘 열린다는 말이 있다.
- 토정비결과 신수점 : 정초에는 1년 신수를 알아보기 위해서 토정비결을 보거나 만신을 찾아가 신수점을 보기도 한다.
- 복조리 : 근래에도 정초가 되면 복조리를 판매하러 외부에서 상인들이 온다.

159) 여기서 말하는 과거란 성남이 도시화되기 이전인 1970년 직전인 과거 농촌사회를 지칭하도록 한다.

- **삼재막이와 홍수막이** : 성남이 도시화되기 전만 하더라도 성남주민들에게 무속은 삶에서 중요한 생활문화였다. 구체적으로 성남 주민에게 무속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여기에서는 창말에 거주하는 송희선의 말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정월의 신수점, 삼재막이, 홍수막이로부터 7월에 칠석맞이, 가을에 햇곡맞이, 장례식, 질병 등에서 무속은 주민들의 삶에서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 조사자 : 보통 정초에는 무당을 찾아가 1년 신수점을 보거나 홍수막이 또는 삼재가 든 사람은 삼재막이를 하는 경우가 흔하다. 아주머니의 경우에는 어떤가?

✎ 송희선 - 정초에는 대개 무당을 찾아가 신수점을 본다. 집안에 삼재가 있으면 만신이나 절에 가서 부적을 구해 방 문설주 위에 붙여놓는다. 이 마을에서는 요즘도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정초에는 홍수막이를 한다. 정월 보름 안에 하는데 만신집에 가면 만신이 징을 치면서 두 시간 정도 해준다. 30년 전만 하더라도 기독교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정월에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도 하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전처럼 많지 않다.

칠석에는 칠석맞이를 한다. 만신집에서 2시간 정도 홍수막이 때처럼 한다. 요즘에는 4월 초파일에도 만신집에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래에는 무당들도 부처님을 신당에 많이 모셔두었기 때문이다.

가을에는 격년으로 10월에 ‘단풍맞이’ 또는 ‘햇곡맞이’ 한다고 하여 만신을 불러 집에서 굿을 한다. 굿을 하게 되면 대문에 황토를 깔아놓고 부정한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이북굿은 몇 일씩하는 것도 보았는데 이 지방 굿은 하루면 된다. 보통 저녁에 시작하여 다음날 아침에 끝난다. 이 지방에서는 제물로 돼지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주로 우족을 갖다놓고 굿을 했으며 작두도 타지 않았다. 요즘은 무당들이 이북굿을 흉내 내어 작두를 타고 돼지를 잡는데 그렇게 규모를 크게 해야 돈을 많이 벌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굿을 할 때 부정을 치기 전에 문에 떡을 꽂아놓았는데 동네사람들이 굿구경 와서 이것을 먹으려고 난리였다.

✎ 조사자 : 장례 끝나고 자리견이는 어떻게 했나?

✎ 송희선 : 우리 시부모까지는 내가 ‘자리견이’¹⁶⁰⁾를 해 드렸다. 3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이웃에서도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다들 자리견이를 하였다. 보통 자리견이는 장례식날 장지에서 돌아오면 그날 저녁에 하는데 장지가 멀어 그날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삼오젯날 산소에 다녀온 후에 한다. 전에는 부조금으로 장례비용과 자리견이를 하는 비용이 충당되었다. 보통 자리견이 비용으로 쌀 한가마니 정도 들어갔는데 우리 시부모님 장례 때는 내곡동에서 박수무당을 불러서 했다. 자리견이는 상문살이 없고 장례식에 다녀간 사람들 모두 편안하라고 한다. 요즘도 자리견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160) 장례식 직후 죽은 자가 누웠던 자리를 걷는다는 의미로 하는 천도굿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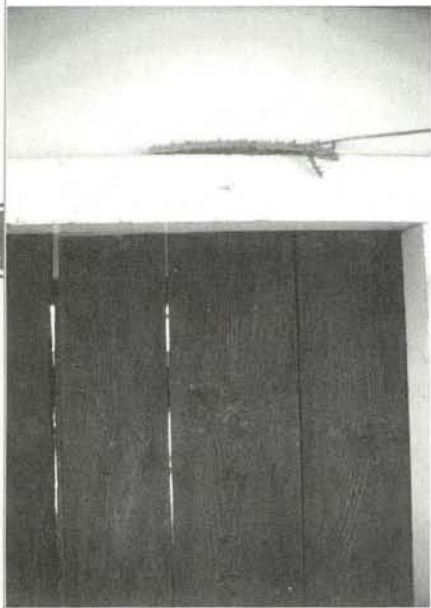
하지만 과거처럼 일반적이지 않다. 내가 죽으면 자리견이를 해줄 사람이 없을 것 같다.

✧ 조사자 : 성남이 도시화되기 전인 1970년대 이전에 이 마을에 왕래했던 만신들은 어디서 왔나?

✧ 송희선 : 과거 내곡동의 박수, 섬말, 새오개(현재 경원대 부근), 거여동 등지에서 만신들이 이 마을에 와서 굿을 했다. 과거의 만신들은 굿을 많이 했으나 돈을 많이 받지 않아 가난했다. 요즘의 만신들은 돈을 너무 많이 받는다. 그러므로 굿하는 사람들도 부담스러워 자주할 수 없다.

✧ 조사자 : 과거에는 병굿도 많이 하지 않았나?

✧ 송희선 : 요즘은 아프면 병원으로 가지만 전에는 병굿도 많이 했다.



↑ 함진득씨 대문 위에 걸어놓은
엄나무

● 엄나무 걸기 : 엄나무는 정월 초순(10일 전)에 대문 위에 많이 걸어 놓는데 근래에는 이렇게 해놓은 집을 찾기가 쉽지 않다. 조사자는 2005년 추석에 주민 함진득(咸鎭得)씨 댁에 갔다가 그 집 대문 위에 있는 엄나무를 보았는데 함진득은 이렇게 해 놓으면 부정이 들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 예전부터 이렇게 해 왔다고 한다. 꼭 정월만이 아니라 동티가 있을 때 손 없는 날 엄나무를 대문 위에 걸어두기도 한다.

● 정초의 놀이 : 과거에 이 마을에서도 풍물을 쳤으나 정초에 고사반을 할 때는 수진리 사람들이 와서 했다. 고사반을 하러 온 사람들을 그냥 보내면 재수없다고 하여 마당에 쌀을 담아놓고 고사반을 하도록 했다. 정초에는 성인들은 옷놀이, 널뛰기, 강강술래¹⁶¹⁾를 하며 아이들은 연날리기, 팽이치기, 비석치기, 자치기 등을 하면서 놀았다. 정초에 놀다가 대보름이 지나면 농사 준비를 하므로 놀이를 하지 않는다.

(3) 입춘

● 입춘축 : 입춘이 되면 대문이나 마루 기둥에 ‘立春大吉’이라고 입춘축을 붙여놓는데 요즘도 주민 중 한두 집은 이렇게 하고 있다.

161) 강강술래는 마을의 부녀자들이 노는 놀이인데 청말 노인정에서 만난 노인들은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다수 이 놀이를 해왔다고 한다. 노인 중에서도 강순애씨는 과거 강강술래를 할 때 선소리를 했던 분으로 조사자들에게 소리를 들려주었다.

(4) 대보름

- 불밝히기 : 14일 밤에는 접시불을 밝혀 집안 곳곳에 둔다.
- 잣불켜기 : 14일 밤에 잣을 바늘에 꿰고 식구의 이름을 대며 불을 붙여 그 불이 일어나는 형태를 보고 그 사람의 한 해 운수를 점친다.
- 밤새기 : 과거에는 14일 밤에 자면 눈썹 센다고 하여 잠을 자지 않았으나 근래에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
- 부럼 깨물기 : 요즘도 잣, 호도, 땅콩, 밤 등으로 대보름날 아침에 부럼을 깨문다.
- 귀밝이술 : 대보름날 아침에 귀밝이술이라고 하여 맑은 술을 마신다. 이 풍속은 요즘도 하고 있다.
- 더위팔기 : 대보름날 아침에 먼저 보는 사람에게 이름을 불러 대답하면 “내 더위 사가라”고 한다.
- 제웅치기 : 14일 밤에 ‘지웅’이라고 하여 허수아비를 조그마하게 만들어 그 속에 동전을 넣어 두면 동네 아이들이 와서 가지고 간다. 아이들은 동전을 꺼내고 허수아비는 버린다.
- 달맞이 : 14일 밤에는 달맞이를 하는데 남한산성 쪽에서 달이 뜨므로 그쪽을 보고 달맞이를 한다. 이 마을에서는 달맞이를 하러 산에 올라가지는 않고 동네 아무 곳에서나 한다. 짚을 한 묶음 추려서 나이 수만큼 묶은 후 달이 뜰 때 불을 피워 달을 보고 절을 하며 소원을 빈다.
- 달점 : 과거에 농사를 짓는 분들은 꼭 달을 보았다. 보름달이 붉으면 그해 가뭄이 온다는 말이 있다.
- 쥐불놀이 : 14일에 아이들이 쥐불놀이를 한다. 요즘도 아이들이 쥐불놀이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 모깃불피우기 : 14일에 집안의 쓰레기, 짚 등으로 모깃불을 피웠다. 이렇게 하면 여름철에 모기가 없어진다는 말이 있다.
- �곡밥과 묶은 나물 먹기 : 14일 오후에 �곡밥을 먹는다. 이때는 고기나 김치를 먹지 않고 나물(시래기, 산나물, 콩나물 등)을 반찬으로 먹는다. 이때와 보름날 아침에 김치를 먹으면 여름철에 논에서 일할 때 생고자리에 쏘인다는 말이 있다. �곡밥은 물에 말아 먹지 않는다. 물에 말아 먹으면 일할 때 비가 온다는 말이 있다. �곡밥을 먹을 때는 젓가락으로 먹어야 하며 숟가락으로 먹지 않는데 숟가락으로 먹으면 논에 가래(풀)가 많이 나온다는 말이 있다.
- 보름밥 얻어먹기 : 과거에는 14일 밤에 이집 저집 다니면서 �곡밥을 얻어먹는

풍속이 있었다.

- **밥 아홉 그릇 먹고 나무 아홉 짐 하기** : 14일에는 '밥 아홉 번 먹고 나무 아홉 짐 한다'는 말이 있으나 실제로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 **과일나무 장가 보내기** : 과거에는 14일 오후에 과일나무 가쟁이에 돌을 올려놓는 풍속이 있었다.
- **소밥주기** : 14일에는 갯(소죽통을 이 지방에서는 '갱'이라 함)에다 오곡밥과 나물을 한쪽에 나누어 주는데 이때 소가 밥을 먼저 먹으면 그해 풍년이 들고 나물을 먼저 먹으면 흉년이 든다는 말이 있다.
- **개보름쇠기** : 대보름에는 아침에 개에게 밥을 주지 않는다.
- **노래기 쫓기** : 14일 저녁에 솔잎을 떼어 집 주위에 뿌리면서 '노랑각시 바늘 준다. 노랑각시 바늘 준다'고 한다. 초가지붕을 새 것으로 갈지 않고 오래도록 두면 짚이 썩어 '노랑각시'라는 벌레가 생기는데 냄새가 지독하다. 이 풍속은 초가지붕에서 살 때 하던 것이다.
- **어부슴** : 이 마을에는 '어부슴'이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으나 요즘도 밥을 종이에 싸서 강물에 던져 고기가 먹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에 가는 사람들이 방생하는 것과 같다.

2월

(1) 이월 초하루

- **나이떡 먹기** : 정월 그믐에 송편을 만들어 두었다가 이월 초하루 아침 식사할 때 나이 수만큼 먹는다. 송편을 빳을 때 쌀을 나이 수만큼 숟가락으로 떠서 그 만큼 빳는다.
- **여자들 남의 집에 일찍 가지 않기** : 이날은 여자들이 남의 집에 일찍 가면 좋지 않다는 말이 있어 남의 집에 일찍 가지 않는다.

(2) 월중

- **말날 장담그기** : 남쪽 지방은 정월 말날에 장을 담그는데 이 지역은 2월 말날에 장을 담근다. 말날에 장을 담아야 장맛이 좋다는 말이 있다.
- **도롱이알 먹기** : 요즘도 노인들은 경칩 무렵에 도롱이알을 먹는다. 이 마을은 남한산성 아래에 위치하는데 마을 뒷산 계곡에 도롱이알이 있다. 도롱이알은 한식 전

에 먹어야 한다. 한식이 지나면 알에 생명체가 생기기 때문에 먹지 못한다.

- **좀생이점보기** : 2월 7일 좀생이별이 달보다 먼저 가면 먹을 것이 부족해 먼저 가려고 하는 것이므로 그 해는 흉년이 들고, 달보다 나중에 가면 먹을 것이 많아 천천히 가도 되기 때문에 이런 해는 풍년이 든다는 말이 있어 전에는 좀생이점을 보았다. 좀생이는 아이들이다.

3월

(1) 삼진날

- **호박 및 박심기** : 삼진날 호박이나 박을 심는다. 이 때 심어야 시기적으로 적당하다.
- **처음 본 나비색깔로 점치기** : 이 무렵에 처음 보는 나비 색깔이 흰색이면 그해 상복을 입고 노랑나비이면 몸이 가볍다는 말이 있다.
- **느티나무 잎 피는 것보고 풍흉점치기** : 이 마을에서는 간이골의 노인정 뒤에 있는 느티나무를 보고 잎이 많이 피는 방향에 그해 풍년이 든다고 예견하였다. 동쪽 방향으로 잎이 많이 피면 동쪽이 풍년이 들고 남으로 많이 피면 남쪽이 풍년이 든다고 한다.

(2) 한식

- **차례** : 한식에는 산소에 가서 차례를 지내는데 경주 이씨(慶州李氏) 댁에서는 이때 제물로 송편과 적, 과일 등을 가지고 가며 메는 올리지 않는다. 한식에는 성묘 외에도 개사토, 이장 등 묘를 손보는 일은 이때 많이 한다. 이때는 이런 일을 해도 탈이 없다 한다.
- **찬밥 먹기** : 한식에는 찬밥을 먹는다. 이날은 방에 불을 넣지 않기 때문에 찬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면 귀신을 막는다는 말이 있으며 이날 찬밥을 먹어야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허옥희씨는 과거에는 이렇게 했으나 근래에는 이 풍속을 지키지 않는다 한다.
- **썩떡 먹기** : 이 마을에서는 과거 한식에 썩떡을 많이 해먹었다.
- **씨 뿌리지 않기** : 한식은 고초일(苦草日)이라고 하여 이날은 씨를 뿌리지 않는다. 이 지방은 한식 전에 씨를 뿌린다.
- **한식의 날씨** : 한식날 천둥이 치면 국가에 불행이 생긴다는 말이 있다.

(3) 월중

- **곡우에 볍씨뿌리기** : 과거에는 주로 곡우에 볍씨를 뿌렸으나 근래에는 곡우 안에 씨를 뿌린다. 볍씨를 뿌릴 무렵에 부정이 끼면 그날은 볍씨를 뿌리지 않고 깨끗한 날에 뿌린다.
- **놀이** : 이 무렵에 과거 아이들은 물오른 버들가지로 풀피리를 만들어 붙였으며, 여자아이들은 각시풀을 가지고 인형을 만들어 놀았다.

4월

(1) 초파일

- **절에 가서 불공드리기** : 주변에 사찰이 여러 곳 있어 태평동에 있는 봉국사로 가는 사람도 있고 기타 본인들이 평소에 다니는 절을 찾아가서 불공을 드리는 사람도 있다. 허옥희씨는 근래에 일원동에 있는 불곡사에 가서 불공을 드린다고 한다. 이날은 절에 가서 연등을 달고 대웅전 앞에 있는 탑을 돌면서 소원을 빌기도 한다.
- **음식** : 초파일에는 죽을 넣어 만든 개피떡을 많이 해 먹으며 미나리도 먹는다.

5월

(1) 단오

- **약쑥 베기** : 단오날 정오에 약쑥을 베어 말려야 약이 된다는 말이 있다. 과거에는 산모가 있을 때는 쑥을 삶아 오강 속에 넣어 산모가 그 위에 앉아 몸을 찌게 하기도 하고 애기를 낳은 후 산모에게 약쑥 삶은 물로 몸을 씻겼다. 태어난 아이도 약쑥을 삶은 물로 씻겼다. 약쑥은 이밖에도 다양한 용도로 쓰였는데 땀을 뜨기 위해서나, 들에서 일할 때 담뱃불용(과거에는 성냥이 없으므로 약쑥에 불을 붙여놓았다가 그 불씨로 담배를 피울 때 마다 사용)으로 사용하거나 부싯돌용(부싯돌 가까이 약쑥을 두고 돌을 서로 치면서 쑥에 불이 붙게 함)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독하므로 모기 향으로도 사용하여 모기가 기성하는 여름철에는 약쑥에 불을 피워놓기도 했다.
- **수리치떡 빚어먹기** : 단오에는 산에서 수리치를 뜯어 수리치떡을 많이 해 먹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마을 뒷산에 수리치가 많았다. 수리치는 작은 나무 밑에서 잘

자라는데 지금은 나무가 커져서 수리치가 사라졌다.

- 단오빔 단장 : 과거에는 단오가 되면 특히 여자들은 머리를 감고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고 예쁘게 하고 나갔다.
- 창포에 머리감기와 창포비녀 꽃기 : 과거에는 이 마을에 집집마다 울안에 창포를 길러서 단오에 이것으로 머리를 감고 뿌리는 깎아서 비녀를 만들어 꽃았으나 요즘에는 이것을 심어 놓은 집이 없다. 이 마을에 있는 화원 같은 곳이나 가면 볼 수 있다.
- 단오에 비가 오면 곡식이 석자 석치가 줄어든다 : 단오에 비가 오면 곡식이 석자 석치가 줄어든다는 말이 있다. 단오에 비가 오면 좋지 않다.
- 그네뛰기 : 4월 초파일에 그네를 매어 5월 단오까지 뛰고 이날 줄을 끊는다. 과거에는 마을 앞에 있는 소나무에 그네를 매었다. 그네에 올라갈 때는 '모기 몰자' 하면서 그네를 뛴다.
- 단오놀이 : 단오놀이를 하면 년중 몸이 건강해진다는 말이 있다. 과거에는 단오놀이 한다고 이장이 돈을 거두어 놀았는데 장고를 치고, 그네를 뛰고 피리, 젓대를 불고 놀았다. 요즘도 단오가 되면 과거처럼 장고를 치거나 그네를 뛰지는 않지만 술 마시고 논다.



↑ 창말 어느 주택에 걸어놓은 약쑥

(2) 월중

- 익모초즙 마시기 : 여름철에 더위를 먹었을 때는 익모초즙을 마시거나 익모초를 찌서 먹기도 한다.
- 봉선화 물들이기 : 5월에 여자들은 봉선화로 손톱에 물을 드리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6월은 썩은 달이라고 하여 6월에 물을 들이면 좋지 않다는 말이 있다.



↑ 봉선화

6월

(1) 유두

- 머리감기 : 유두에는 머리를 감는다. 이날 놀지는 않는다.

(2) 월중

- 복날 : 복날에는 보신탕, 닭, 수박 등을 먹는다. 이 마을에서는 초복이 되면 매년 노인정에서 노인잔치를 한다. 허옥희씨가 시집오기 전부터 이 마을에 복날 노인잔치를 하였다고 하니 오래된 전통이다. 2005년 7월 15일 조사자가 이 마을에 가던 날도 초복이라 노인잔치를 하였다.
- 여자들 참외밭에 가지 않기 : 이 무렵에는 참외가 한창인데 부정이 탄다고 하여 상가집에 다녀온 사람이나 여자들은 참외밭에 오지 못하게 했다.
- 기우제와 기우풍속 : 5~6월에 가뭄이 심하면 기우제를 지낸다. 남자들은 마을 북판에서 돼지머리를 놓고 기우제를 지내는데 여자들은 같은 날 우물을 퍼서 동서남북으로 서서 체로 물을 까분다. 비가 오지 않아도 기우제는 보통 단오 지나고 지낸다.
- 태종우 : 허옥희는 “음력 5월 10에 과거 내곡동의 현릉(獻陵)에서 장작불을 피워놓고 임금이 비가 오지 않으면 내가 타 죽는다하고 장작불이 다 탈 때까지 있으면 비가 내렸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현릉은 조선 3대 임금인 태종의 능이다. 태종은 5월 10일에 임종하였는데 죽을 무렵 나라에 가뭄이 심해 태종이 깊이 시름하며 내가 죽으면 비가 내리게 하겠다하고 죽었는데 임종한 후 곧 바로 비가 내려 그 해는 나라에 풍년이 들었으며 매년 5월 10일 무렵에는 비가 내려 사람들은 이맘때 내리는 비를 ‘태종우’라고 불렀다. 허옥희의 이야기는 태종우와 관련된 설화가 와전된 것인지, 아니면 과거 태종의 능에 가서 임금들이 비를 기원하는 풍속이 있었는지는 고찰해 보아야 알겠지만 이 지방의 촌로들에게 이러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는 것은 이 지방 기우풍속에 현릉이나 태종우가 의미를 가지고 구전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 두레와 두레싸움 : 과거에 농사를 질 때는 공동노동이 필요했다. 특히 김매기를 할 때는 두레조직을 이용하여 하였다. 김을 맬 때는 힘겨움을 잊기 위해 노동요를 불러 가면서 하였는데 선소리꾼과 악사가 논에서 풍물을 치면서 앞으로 나가면 일꾼들은 뒤에서 뒷소리를 받아가며 김을 매면서 일을 했다. 들판에서 이웃마을의 두

례를 만나면 기싸움을 했다. 두레에서는 ‘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쓴 농기를 들고 다니는데 두레싸움을 하게 되면 이 깃발 위에 있는 꿩털을 먼저 뺏는 쪽이 이기게 된다. 따라서 깃대를 드는 사람은 튼튼한 사람으로 한다. 기싸움을 하여 진 마을은 이긴 마을의 두레기를 ‘형님기’라고 부르며 그날 술을 산다. 다음부터 들판에서 만나면 진 마을에서는 이긴 마을기를 보고 깃대로 인사를 하며 형님기라고 예우를 해야 한다. 진 마을에서는 이것이 싫어 서로 맞닿지 않도록 피해 다니기도 하고 마을에 힘센 사람이 생겨 자신감이 있으면 다시 도전하기도 한다. 과거 창말은 강하여 이웃마을에서 이기지 못했다. 1960년대까지는 이러한 풍속이 있었다.

7월

(1) 칠석

- 칠석맞이 : 절이나 만신집에 가는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칠석맞이를 하고 절이나 만신집을 가지 않는 사람들은 집에서 칠석맞이 고사를 지낸다. 이날 호박을 넣고 밀전병을 하여 막걸리와 함께 터주자리 앞에 놓고 고사를 지낸다. 칠석 때 장독대에는 물을 떠놓고 북두칠성 쪽을 바라보고 절을 하고 자손들 명(命)있게 해달라고 빈다. 허옥희씨는 과거에는 집에서 이렇게 고사를 지내고 빌었는데 근래에는 절에 가서 칠석맞이를 한다.
- 여자들 먼저 들에 나가지 않기 : 칠석에 여자가 먼저 들에 나가면 칠석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내려다보고 곡식을 줄게 한다는 말이 있다.

(2) 백중

- 차례 : 백중에 자손이 없는 조상들을 위해 절에 가서 제사를 지낸다. 요즘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거부터 이날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보지 못했다.
- 백중장 가기 : 과거 이 마을에서는 송파장으로 갔다. 백중에 장에서는 씨름을 하였다. 머슴을 부리는 집에서는 이 때 중의적삼을 한 벌 해주고 노잣돈을 주어 백중장에 가서 놀다오도록 했다.

(3) 월중

- 우물치기 : 과거에는 많은 비가 오고 나면 우물이 흐려지기 때문에 연중 수시로 우물을 쳤다. 우물은 봄에도 치나 비가 많은 여름철에는 자주 쳤다. 과거 창말에는

우물이 두 개가 있었으나 현재는 모두 메웠다. 우물을 치고 나면 막걸리를 한 잔 우물 앞에 올렸다.

- 벌초 : 벌초는 음력 7월 보름 무렵에 많이 하는데 근래에는 공휴일에 시간을 내어 한다.

8월

(1) 추석

- 차례와 성묘 : 경주 이씨(慶州李氏) 덕의 경우 차례상에는 메는 올리지 않고 송편을 대신한다. 차례를 지낸 후에는 시제를 지내지 않는 4대조 이하의 조상님의 산소를 찾아뵙고 성묘를 한다.

9월

(1) 중양절

- 차례 : 백중 때와 같이 자손이 없는 조상을 위해 이날 절에 가서 제를 지내는 사람도 있다.

10월

(1) 월중

- 시제 : 시제는 5대조 이상의 조상의 산소에 찾아가서 지내는데 10월 중 적당한 날을 잡아 일가친척들이 참여한다. 경주 이씨(慶州李氏) 덕은 과거 수진동에 선영이 있어 그곳에서 시제를 지냈는데 성남이 개발될 때 산소를 없애고 유골은 화장하여 뿌렸다. 당시에는 납골당을 만드는 풍속이 없어 납골당에 모시지 못했는데 현재 이 마을에서는 함씨 덕에서만 가족 납골당을 만들어 놓았다.
- 안택고사 : 이 지방에서는 가을에 지내는 고사를 '가을고사'라고 하는데 지금도 토박이들은 시월이 되면 적당한 날을 골라 팔떡을 해서 집안의 신들에게 고사를 지낸다. 과거에는 이 무렵에 '신곡맞이'로 굿(추수감사의 뜻으로 가을에 하는 안택굿)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11월

(1) 동지

- 팔죽썰기 : 경주 이씨(慶州李氏) 덕은 과거 장티푸스로 죽은 조상이 있기 때문에 동지에 팔죽을 썰지 않는다. 이 지방에서는 열병으로 죽은 조상이 있는 집에서는 동지에 팔죽을 썰어먹지 않는다. 근래에는 절에서 팔죽을 썰어 나누어 주기 때문에 절에 가는 사람들은 집에서 썰지 않고 절에 가서 먹는 경우가 많다.

12월

(1) 선달그믐

- 묵은세배 : 선달그믐날 밤에 1년 동안 감사의 뜻으로 어른께 '묵은세배'를 하는데 이것은 정초의 세배와는 달리 부모나 조부모 등 가까운 가족에게만 한다.
- 불 밝히기 : 이날 밤에는 불을 끄지 않고 집안 곳곳에 밝혀둔다.
- 콩볶아 먹기 : 과거에는 전날 밤에 콩을 볶아두었다가 선달그믐날 아침에 '왜놈 볶아 먹는다'고 하여 콩을 먹었다.
- 집안 청소하기 : 이날은 지난 한해의 모든 부정한 것을 쓸어내고 새해를 맞는다는 뜻으로 집안을 깨끗이 청소한다.

(2) 월중

- 참새잡이 : 겨울철에는 참새를 잡아먹었다. 과거에는 초가지붕 속에 굴을 파놓고 참새가 둥지를 틀고 있기 때문에 그곳을 막아 참새를 잡아 구워먹었다.

윤달

윤달은 무슨 일을 해도 탈이 없는 달이라 하여 노인이 있는 집에서는 수의를 만들고 묘이장, 사초, 집수리나 이사 등도 이 때 많이 한다. 근래에도 이런 일은 윤달에 주로 한다.



↑ 조사자에게 세시풍속을 말해주고 있는 창말의 노인정에서 만난 아주머니들

2. 탄리의 세시풍속¹⁶²⁾

1월

(1) 설

- 차례 : 설날 아침에는 식사를 하기 전에 차례를 지낸다. 박아무개 댁의 경우를 살펴보면, 차례상에 메 대신에 떡국을 올리는데 만두는 만두대로 따로 올리며 다른 제물은 일반 제사음식과 같다. 설날 차례를 지낸 후 떡국을 대청, 터주 등에 가져다 놓는데 추석 때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
- 성묘와 세배 : 아침식사 후 성묘를 간다. 과거에는 집안은 물론 동네어른까지 모두 찾아뵙고 세배를 드렸는데 근래에는 가까운 친척에게만 세배를 한다.

(2) 정초

- 귀신답날 : 16일은 귀신답날이라고 하여 과거에 신발을 방안에 들여놓았다.
- 복조리 걸기 : 정초에 외부상인들이 마을에 와서 복조리를 팔러 다닌다. 이것은 근래에도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 삼재막이 : 삼재가 들면 만신집에 가는 사람은 만신에게, 절에 가는 사람은 절에서 '삼두매'가 그려져 있는 부적을 얻어 출입문의 문설주 위에 붙여 놓는다. 또한 만신이나 스님이 주관하여 삼재풀이를 해주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풍속은 요즘도 흔히 볼 수 있다.
- 홍수막이 : 과거에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대부분 정초에 만신집에 가서 홍수막이를 했다. 근래에도 만신집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 엄나무 걸기 : 과거에는 집안에 부정이 들지 말라고 엄나무를 대문 위에 걸어놓는 집들을 볼 수 있었으나 근래에는 보지 못했다.
- 정초의 놀이 : /고사반 - 과거에는 정초에 고사반을 했다. 대개 마을에 풍물패가 있어 마을의 주민들이 고사반을 하는데 이 마을은 마을에 풍물패가 있었으나 정초가 되면 다른 마을에서 5~6명 정도의 풍물패가 깃발을 들고 와서 고사반을 했다.

162) 조사일시 : 2005. 7. 15~16 제보자 : 박○○(남, 78세, 건너말에서 태어나 현재도 거주), 탄리의 경우 건너말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제보자는 박아무개씨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지면에 이름을 밝히지 않겠다. 이 마을의 경우 과거 원주민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 박아무개씨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세시풍속을 조사하였다. 이런 경우 제보자가 남자이므로 여자들이 잘 아는 민속신앙이나 여자들의 놀이, 음식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마을에 예전에 행해졌던 풍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보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을 밝혀둔다.

성남이 개발된 후부터는 이러한 풍습을 볼 수 없었는데 근래에는 성남의 젊은이들이 만든 풍물패에서 정초에 시장을 돌면서 고사반을 하는 것을 가끔 볼 수 있다. 과거에는 풍물패가 고사반을 돌 때 집집마다 안마당에 고사반을 만들어 놓는데 즉, 상을 펴고 그 위에 쌀 말통에 쌀이나 콩을 담아 놓고 위에 다시 쌀이 담긴 대주 밥그릇을 올리고 밥그릇에 대주의 숟가락을 꽂은 후 숟가락에 실타래를 감아놓는다. 또한 말통 좌우에 북어를 꽂아놓는다. 상에는 촛불을 켜고 청수를 떠놓는 집도 있다. /웃놀이 - 정월 초순부터 대보름까지 웃놀이를 많이 했다. /널뛰기 - 여자들은 정초에 널뛰기도 했다. /팽이치기·비석치기·자치기 - 아이들은 정초에 팽이치기, 비석치기, 자치기를 했는데 마을에 화천이 없으므로 논에 물을 넣어 얼음판을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이 그곳에서 썰매를 타고 팽이치기도 했다. /연날리기 - 현재 수진초교 쪽 능선 위에서 과거에는 연날리기를 많이 했다. 능선에서 연날리기를 해야 연이 나뭇가지에 걸리지 않고 잘 날았기 때문이다. 정초에 연날리기를 시작해서 14일이 되면 '액을 띄워 보낸다'고 하여 날려 보낸다. 과거 정초의 놀이는 대보름이 지나면 하지 않고 그 후로는 농사준비를 했다.

(3) 입춘

- 입춘축 : 입춘이 되면 '立春大吉' 등의 글귀를 적은 입춘축을 대문이나 마루의 기둥 등지에 붙여놓는다. 요즘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4) 대보름

- 불밝히기 : 과거에는 14일 저녁에 들기름을 넣은 접시에 숨을 말아 심지를 만들어 불을 밝혀서 집안 곳곳에 두었다.
- 잣불켜기 : 과거에는 14일 밤에 잣을 비늘에 꽂고 식구의 이름을 대며 불을 붙여 그 불이 일어나는 형태를 보고 그 사람의 한 해 운수를 점쳤다. 잣이 맑게 잘 타면 운수가 좋고 그을음이 많이 나면 좋지 못하다.
- 밤새기 : 과거에는 14일 밤에 잠을 자면 눈썹이 센다고 하여 잠을 자지 않았으나 근래에는 이 풍속이 사라졌다.
- 어부숨 : 이 마을에서 어부숨이라는 용어는 듣지 못했으나 과거에 주민들은 "고기 밥 주러 간다"고 하여 14일 저녁에 조밥을 깨끗한 종이에 싸서 강물에 던져 고기가 먹게 했다.
- 부럼 : 15일 아침에 부럼을 한다고 아침 식사 전에 잣, 호두, 밤 등을 깨물어 먹는다. 이렇게 해야 부럼이 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토박이 주민들은 요즘도 이렇게

하는데 근래에는 땅콩으로도 많이 한다.

- **귀밝이술 마시기** : 15일 아침에 귀밝이술을 마신다. 술은 맑은 약주로 마시는데 토박이 주민들은 요즘도 이렇게 하고 있다.
- **더위팔기** : 15일 아침에 해뜨기 전에 보는 사람에게 이름을 불러 대답하면 “내 더위 사가라”고 하며 더위를 판다. 근래에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드물다.
- **제흉 버리기** : 이 마을에서는 ‘지웅’이라고 하는데 14일 밤에 지웅을 집에서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이 와서 가져가 그 속에 돈은 자기들이 갖고 지웅은 버린다. 지웅을 버릴 때는 전부 찢어서 버려야 좋다고 하여 돈을 깊숙이 넣어 아이들이 돈을 찾기 위해 지웅을 찢도록 한다. 과거에 돈은 1전짜리 동전을 사용했다.



- 달맞이 : 달맞이를 이 마을에서는 ‘다람질’한다고 하는데 14일 밤에 짚을 한 묶음 추려서 나이 수만큼 묶어 달이 뜰 때 짚에 불을 붙인 후 달을 보고 절을 하며 소원을 빈다. 이것은 보통 아이들이 하는데 불이 위험하므로 이 때 어른들이 아이들 옆에 지키고 서 있는다. 이 날은 달을 빨리 보기 위해 산 능선으로 올라가는데 건너말의 경우에는 현재 수진초교가 있는 능선으로 올라가서 달맞이를 했다. 163)

↑ 2004년 대보름에 탄천가에서 성남지역 문화패들이 모여 달집태우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 행사는 ‘숫대’를 비롯한 지역문화패들이 몇 년전부터 매년 해오고 있다. 그러나 과거 성남지역의 달맞이 풍속과는 차이가 있다. 멀리서 대나무를 구입하여 만들어놓은 달집은 남부지역에서 행하는 것을 모방한 것이다.

- 보름달 보고 풍흉점치기 : 과거에 노인들은 보름달을 보고 풍년이 되는지 그해 가뭄이 드는지 등을 점쳤다. 보름달이 붉으면 가뭄이 든다고 했다.

163) 태평2동 봉곡사 앞에 '달맞이길'이라고 하는 명칭을 가진 골목길이 있는데 그곳이 과거 달맞이와 연관이 있는 곳인가 하여 조사자는 토박이 주민 박아무개씨에게 물어 보았더니 모른다고 하였다. 관청에서 임의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아니면 과거 이 지역 주민들이 달맞이를 한 곳이라는 유래가 있어서 지명을 그렇게 한 것인지는 알지 못하겠다.

- **다리밟기** : 현재 창곡동에 있는 육군 행정학교 자리는 과거 일본군 포부대가 있었다. 일제시기 북정동 사거리에 군용다리가 생겼는데 건너말에서는 그곳으로 다리밟기를 갔다. 15일 저녁에 풍물패가 농악복색을 입고 풍물을 치면서 군용다리에 가서 놀다 온다.
- **오곡밥과 묵은 나물 먹기** : 14일 오후에는 오곡밥과 묵은 나물을 장만하여 먹는다. 묵은 나물은 시래기, 산나물 등을 말려두었다가 이날 먹는다. 오곡밥을 먹을 때와 15일 아침에 밥을 먹을 때 김치를 먹으면 여름에 논에서 일할 때 생고자리¹⁶⁴⁾에 쏘인다고 하여 김치를 먹지 않는다. 보름날 아침은 명일이라고 하여 첫 숟가락은 김을 싸서 먹으며, 이날은 백반에 북어찜, 청어찜 등을 해서 잘 먹는다. 또한 15일 아침은 숟가락으로 먹으면 김멜 때 큰 이랑이 걸린다고 하여 젓가락으로 먹는다.
- **오곡밥 흠쳐먹기** : 과거에는 14일 밤에 아이들이 오곡밥을 흠쳐 먹기 위해 이집 저집 다녔다.
- **아홉 번 행동하기** : 14일은 밥 아홉 그릇 먹고 나무 아홉 짐 한다는 말이 있으나 실제로 이렇게 행동하지는 않았다.
- **과일나무 장가보내기** : 14일 오후에는 과일나무 가쟁이에 돌을 올려놓는다.
- **개보름쇠기** : 15일에는 개에게 아침밥을 주지 않고 저녁에만 준다.
- **쥐불놀이** : 14일 밤에 쥐불놀이를 한다. 옛날에는 깡통이 없었으므로 짚을 묶어서 돌렸는데 그 후 깡통이 나오자 아이들이 깡통으로 했다. 근래에는 태평동은 도심이 되어서 쥐불놀이를 할 수 없다.

2월

(1) 이월 초하루

- **콩 볶아 먹기** : 과거에는 이날 “왜놈 볶아 먹는다”고 하면서 콩을 볶아 먹었다.
- **나이떡 먹기** : 과거에는 정월 그믐에 쌀을 숟가락으로 가족의 나이 수만큼 떠서 송편을 빚어 다음날 아침을 먹을 때 송편을 나이 수만큼 먹었다.
- **여자들 남의 집에 일찍 가지 않기** : 과거에는 이날 여자들은 남의 집에 일찍 가지

164) 생고자리는 하얀 것이 구더기 같이 생겼는데 논에서 일할 때 이것에 쏘이면 매우 아프다. 과거에는 장화가 없어 맨발로 논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거머리나 생고자리 같은 것이 농부들을 괴롭혔다.

않는다는 말이 있으나 이 마을에서는 남녀 누구나 남의 집에 가지 않았다.

(2) 경칩

- 도롱이알 먹기 : 경칩 무렵 도롱이알을 먹는다는 말이 있으나 과거 탄리에는 깊은 산골이 없어 도롱이알을 구하기 힘들었다. 그래서인지 도롱이알을 먹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

(3) 월중

- 쯔생이점 : 2월 6일 쯔생이별이 달보다 먼저 가면 아이들이 밥을 먼저 먹기 위해 가는 것이고 나중에 가면 먹을 것이 많아 천천히 가는 것이라고 하여 쯔생이별이 달보다 먼저 가면 그해는 흉년, 나중에 가면 풍년이 든다고 한다.
- 말날 장담그기 : 2월 말날에 장을 담근다.

3월

(1) 한식

- 차례 : 한식에는 산소에 가서 차례를 지낸다. 이때 음식은 기제사와 동일하다. 박아무개씨의 경우에는 지금도 차례를 지내는데 선산이 광주군 목현리에 있어 그곳으로 간다. 묘이장, 개사토 등 묘를 손보는 일도 이때 많이 한다.

(2) 월중

- 처음 본 나비색깔로 점치기 : 3월에 처음으로 보는 나비의 색깔이 호랑나비이면 그해는 길하고 흰나비를 보면 상복을 입는다는 말이 있다.
- 법씨 뿌리기 : 주로 곡우 무렵에 법씨를 뿌리는데 부정한 일이 있으면 이때는 법씨를 뿌리지 않고 다른 날을 택한다.
- 놀이 : 과거에는 3월에 물오른 버들가지를 잘라서 풀피리를 붙였다.

4월

(1) 초파일

- 절에 가기 : 초파일에는 마을 가까이에 봉국사가 있어 그곳으로 불공을 드리러

간다. 봉국사는 성남에서 가장 큰 사찰로서 초파일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신도들로 북적되며 신도들의 이름을 적어놓은 연등으로 절 마당이 장관을 이룬다.

5월

(1) 단오

- 약쑥베기 : 과거에는 단오에 약쑥을 베어 두었다가 훗날 여러 용도로 사용했다. 여름철에 약쑥이 독하므로 모기향으로 사용하기도 했으며, 성냥이 귀했을 당시에 는 들에 약쑥을 피워놓았다가 담뱃불을 붙일 때 사용했다.
- 익모초 즙 마시기 : 정확히 단오 때는 아니지만 이 무렵에 더위를 먹었을 때는 익모초를 짜서 즙을 만들어 먹었다.
- 창포에 머리감기 : 단오에는 창포에 머리를 감는다는 말은 들어보았으나 과거에 이 동네에는 창포가 나는 곳이 없어 머리를 감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
- 그네뛰기 : 단오에는 그네를 뛰었는데 그네는 도당굿을 하는 느티나무에 매었다.
- 봉선화 물들이기 : 5월에 봉선화를 따서 여자아이들은 손톱에 물을 들인다.

6월

(1) 월중

- 두레 : 과거에는 두레가 있어 논에서 김을 맬 때 선소리꾼과 악사가 앞에서 풍물을 치면서 나가면 뒤에서 김을 매면서 뒷소리를 따라 했다. 일을 힘들지 않고 재미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들판에서는 이웃 마을의 두레와 만나면 서로 기싸움을 했다. 1960년대까지는 이렇게 했는데 그 후로는 이러한 풍속이 사라졌다.

7월

(1) 칠석

- 칠석맞이 : 칠석에는 만신집에 가는 사람도 있고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는 사람도 있다. 만신집을 찾는 사람들은 가족들의 수명장수를 비는 치성을 드리고 온다. 1970년 무렵에 탄리에는 만신집이 없었다. 이 마을에서는 섬말에 만신집이 있어

그곳으로 갔다.

- **칠석고사** : 칠석 때에는 밀전병을 해서 막걸리와 함께 터주가리에 올린다. 과거에 이 마을 토박이주민들은 대부분 이렇게 했다. 박아무개씨 댁에서는 요즘도 이렇게 하고 있다

(2) 백중

- **백중장 가기와 머슴대접** : 과거 백중에는 판교시장이나 송파장으로 갔다. 머슴¹⁶⁵⁾을 부리는 집에서는 머슴에게 이날 노잣돈을 주고 증의적삼을 한 벌 해주어 백중장에 가서 놀다오도록 했다. 백중날 장터에서는 '백중씨름'이라 하여 씨름대회가 열렸다.

(3) 월중

- **복날** : 지금도 복날이 되면 '복다림'한다고 하여 보신탕이나 닭을 먹는다. 조사자가 세시풍속을 조사하기 위해 태평동에 갔을 때가 초복(2005년 7월 15일)이었는데 이날도 박아무개씨를 비롯한 노인들은 음식점에 가서 보신탕을 먹었다.
- **우물치기** : 칠월에 비가 많이 내리고 나면 과거에는 맑은 물을 받기 위해 우물을 쳤다. 필요에 따라 년중 우물을 수시로 쳤으나 우물고사를 지내지는 않았다.
- **벌초** : 음력 7월에 집안마다 적당한 날을 정해 벌초를 한다. 근래에는 직장인들을 위해 보통 공휴일에 많이 한다.

8월

(1) 추석

- **차례와 성묘** : 추석에는 차례를 올리는데 지방에 따라서는 이날 밥을 올리지 않고 송편만 올리는 경우도 있으나 박아무개씨 댁은 밥과 송편을 함께 올린다. 이날은 주로 햇곡식으로 만든 음식과 햇과일을 올린다. 차례를 지낸 후에는 산소에 성묘를 간다. 이날 성묘는 시제를 지내지 않는 4대조까지의 산소를 찾는다.

165) 이 무렵의 머슴들은 신분제적인 하인이 아니다. 과거 산업이 발달하기 전 일자리가 부족했던 시대에 가난하거나 땅이 없는 사람들은 남의 땅을 소작하거나 머슴이 되었는데 당시의 머슴은 계약직 노동자로 보아야 한다. 이들은 봄철에 계약을 하여 추수 후 세경을 받으면 주인과 계약이 끝난다. 머슴은 땅이 많은 부잣집에서나 필요로 했다.

10월

(1) 월중

- 시제 : 10월 중 적당한 날을 잡아 자손들이 모여 5대조 이상의 산소를 찾아가 시제를 지낸다.
- 가을고사 : 10월에 적당한 날을 택일하며 건너말에 살던 토박이 주민들은 근래에도 가을고사를 지낸다. 내용은 민간신앙부분 참조

11월

(1) 동지

- 팔죽 : 동지에는 팔죽을 쑤어먹는 집도 있고 쑤어먹지 않는 집도 있다. 팔죽을 쑤어먹는 집에서는 성주, 터주 등 집안의 신들 앞에 올려 두었다가 나중에 뿌린다. 동지가 되면 봉국사에서는 불공을 드리고 팔죽을 쑤어 신도들에게 나누어 준다. 이날 집에서는 팔죽을 쑤지않고 절에 가서 먹고 오는 사람도 많다.

12월

(1) 섣달그믐

- 집안 청소하기 : 이날은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새해를 맞이한다.

(2) 월중

- 참새잡이 : 과거에는 겨울철에 참새를 잡아먹었으나 근래에는 도회지가 되어 이렇게 할 수 없다.

윤달

윤달에는 근래에도 수의를 만들고, 집수리나 묘이장, 사초 등을 많이 한다. 윤달에 이런 것을 하면 탈이 없다는 말이 있다.

III. 일생의례

1. 출산

근래에는 아이를 낳을 때 병원을 찾는다. 임신이 되면 병원에 가서 주기적으로 진단을 받고 산부인과에 입원해서 아이를 낳고 몇일 후 집으로 돌아온다. 따라서 과거처럼 유아사망율이나 산모가 위험에 처하는 경우도 줄었다. 가정에서 아이를 낳을 때는 출산을 앞두고 산모가 순산을 하지 못하면 산파를 부르기도 하고, 삼신할머니께 정성을 다해 빌기도 했다. 우리나라에 서양식 병원이 들어온 것도 오래 되었지만 의료보험¹⁶⁶⁾이 온 국민에게 일반화된 것은 1980년대 후반이다. 그 이전만 하더라도 비싼 병원비를 감당하기 힘들어 가정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래에서는 창말 노인정에서 만난 허옥희씨 및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통해 과거 가정에서 출산할 때를 중심으로 하여 이 마을의 출산의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1) 출산 전의 풍속

- 임신부나 가족이 금기하는 행위나 음식 : 임신을 하면 닭뿔나 오징어 등을 먹지 않는다. 이런 것을 먹으면 아이에게 미(자국)가 나온다. 임신부가 누울 때는 자리와 자리가 만나는 중간지점에는 눕지 않는다. 집안에 임신부가 있을 때는 아궁이 속에 그을음이 차도 걷지 않는다.
- 태아의 성별을 미리 아는 방법 : 임신부의 뒷몸매가 예쁘면 아들을 낳고 아랫배가 너무 볼록하면 딸이다.
- 유산방지를 위한 방법 : 은가락지를 다려 먹거나 두레박줄을 삶아 먹는다는 말이 있다.
- 임신한 아이를 떼기 위한 방법 : 고로쇠나무 뿌리를 다려 먹거나 파리뿌리를 삶아 먹어도 아이가 떨어진다.

166) 한국에서 의료보험의 실시는 1963년 12월 6일 의료보험법의 제정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구체적으로 실시되는 것은 1968년 장기려(張起呂)가 청십자운동(靑十字運動)을 전개하면서이며, 국가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은 1977년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하여 의료보호사업을 실시하고 500명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면서부터이다. 1979년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과 300명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까지 적용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점차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1988년에는 5명 이상의 사업장에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이 해에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이 실시되었고, 1989년에는 도시지역 의료보험이 실시됨으로써 전국민 의료보험을 달성하게 되었다. 그 밖에 1987년에 한방의료보험이, 1989년에는 약국의료보험이 실시되었다.

- 태몽 : 복숭아, 대추, 살구, 알밤 따는 것을 보면 아들이다(이것은 씨가 있기 때문에). 붕어, 호랑이, 벌을 잡거나 보면 아들이며 용꿈을 꾸면 큰 인물이 태어난다고 한다. 밤송이가 벌어진 것을 보거나 잉어, 뱀, 구렁이 등을 꿈에 보면 딸이다. 허옥희는 태몽으로 바위 속에 호랑이가 있는 것을 보았으며, 우물에 물이 가득 있는 것도 보았다. 딸을 낳을 때는 가락시장에서 밤, 대추를 줍는 꿈을 꾸었다.

(2) 출산풍속

- 출산준비 : 출산이 임박하면 방을 깨끗이 치우고 짚을 깎는다. 탯줄을 자르기 위한 가위와 실을 준비해놓고 아이가 입을 배넛저고리, 아이 배에 묶을 소창(아이의 배에 탯줄을 자른 후 소창으로 상처를 감싸 그곳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함), 포대기, 대아 등을 준비해 놓는다.
- 아이를 낳는 장소 : 과거에는 집에서 아이를 낳았으나 근래에는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는다. 과거에도 병원이 있어 돈이 많은 사람들은 병원에서 아이를 낳기도 했으나 의료보험이 없던 시대라 병원비가 비싸 대부분은 집에서 아이를 낳았다. 과거에는 주로 시댁에서 아이를 낳았으나 경우에 따라 친정에 가서 낳는 사람도 있었다.
- 산파 : 허옥희가 아이를 출산할 무렵에는 송파에 산파가 있었다. 당시에는 차가 없었으므로 걸어가서 데리고 왔다. 동네에도 출산할 때 잘 보아주는 사람이 있어서 동네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산파는 출산 전에 불러 아이를 낳고 나면 보내고 시어머니가 미역국을 끓여주며 산모의 뒷수발을 들어준다. 출산할 때 산파를 불러놓으면 마음이 편하다. 과거에 산파는 주로 아이를 낳으려고 하다가 낳지 못한 사람들이 주로 했다. 보통 순산일 경우에는 부르지 않으며 난산일 경우에 애를 쓰다가 산파를 부르는 경우가 많다. 과거 산부인과에 있다가 휴직하거나 퇴직한 간호원들이 산파를 하기도 했다.
- 순산을 위한 방법 : 허옥희는 난산일 경우에는 임신부가 있는 방안에 피마지대를 거꾸로 열십자가 되게 하여 세워 놓는다는 말은 들어보았으나 직접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마을에서 보지 못했다 한다. 애기를 낳다 죽은 조상이 있는 집에서는 아이를 낳을 때 마루 끝에 미역국과 밥을 상위에 차려 놓고 비는 것은 본 적 있다 한다.
- 태어난 아이의 처리 : 아이가 태어나면 실로 탯줄을 묶은 후 끊고 배에 솜을 댄 후 소창으로 배를 감싼다. 더운물로 아이의 입을 씻기고 손발부터 먼저 물을 적신 후 몸을 씻긴다. 아이 몸에 양수가 묻어 있기 때문에 씻겨야 한다. 그리고 포대기로 싸서 아랫목 따뜻한 곳에 둔다. 태어나서 아이가 울지 않을 때는 거꾸로 하여

발을 들고 불기를 때리면 운다. 아이의 배꼽은 실로 감은 탕줄이 떨어지고 상처가 아물 때까지 물이 들어가면 되지 않는다. 보통 상처가 아무는데 1주일 정도 걸린다. 엄마 몸속에 있는 탕줄도 출산 직후 빼내야 한다. 밖으로 나온 탕줄의 일부를 잡고 서서히 당기면 나온다. 태어난 아이는 3일간은 아무것도 주지 않고 수시로 따뜻한 물로 입술이나 적혀준다. 3일간은 산모의 젖이 나오지 않는다. 그 후 산모에게 젖이 나올 때 아이에게 젖을 물리면 아이가 스스로 빨아먹는다.

- **첫국밥** : 출산 후 산모에게 첫국밥을 먹인다. 첫국밥은 쌀밥에 미역국을 주며 다른 반찬은 없다. 산모는 출산 후 3일간은 몸에 '바람이 들면 좋지 않다' 하여 그대로 누워 있도록 하고 밥만 자주 먹인다. 이때는 하루 낮에 4번, 밤에 1번 정도 밥을 먹인다. 3일 후 약쑥물로 목욕을 시킨 후 쑥을 요강 속에 넣고 그 위에 앉아 좌욕을 하도록 한다.
- **태의 처리** : 마당에 산모가 깔고 있던 짚을 놓고 그 위에 탕줄을 올려서 태운다. 이것을 '삼불 피운다'고 한다.
- **금줄** : 산모에게 첫국밥을 먹인 후 남편이 대문에 원새끼로 금줄을 친다. 아들을 낳으면 숯과 고추, 딸을 낳으면 숯과 솔가지를 금줄에 매단다. 금줄은 21일간 쳐놓는데 금줄이 있는 동안에는 부정한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21일 안에도 초상집에 가지 않은 사람이나 깨끗한 사람은 볼 수 있다. 가족이라도 '강을 건너 온 사람은 산모의 젖이 마른다'고 하여 21일 안에는 아이를 보지 못하게 한다. 요즘도 아이를 낳으면 시골인 경우에는 금줄을 친다. 시골에 젊은이가 없어 아이를 낳는 것을 볼 수 없어 금줄을 보기가 힘들지만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은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은 후 집으로 아이를 데리고 오면 금줄을 친다.
- **삼신상 차림** : 아이가 태어난 후 7, 14, 21, 100일, 둘 때 아침에 아이 머리맡에 밥, 미역국, 숟가락을 올린 삼신상을 차려놓는다. 이 마을에서는 출산 후 3일 째는 삼신상을 차리지 않는다. 삼신상에 '삼신할머니 고맙습니다'하면서 빌고 그 밥은 산모가 먹는다.
- **아기의 의복** : 출산 3일 후 아이에게 배냇저고리를 입히고 21일 후에는 옷을 지어 입힌다. 또한 3일부터는 아이가 젖을 먹으므로 이때부터 대소변을 스스로 가릴 때까지 기저귀를 채운다.

(3) 양육풍속

- **이름짓기** : 출산 후 7일 정도 되면 집안의 조부나 부친이 아이의 이름을 짓는다.

최근에는 작명가를 찾아가는 사람도 있다.

- **배냇머리와 손·발톱의 처리** : 배냇머리는 이발해 주는 사람도 있으나 돌이 지나면 빠진다. 손 발톱은 엄마가 입으로 떼어 준다.
- **첫나들이** : 보통 생후 1달 정도 지나면 이웃집에 데리고 가는데 이때는 '처녀포대기'를 만들어 아이를 업는다. 처녀포대기는 비단으로 빨강 혹은 연두색으로 하여 수를 놓아 예쁘게 만든다. 보통 아이를 낳으면 친정에서 아이 옷 한 벌, 처녀포대기, 기저귀 등을 선물로 준다.
- **대소변 가리기 훈련** : 아이가 자라면 대소변을 스스로 가리도록 가르친다.
- **젖 떼는 방법** : 아이가 자라면 점차 죽을 먹이며 젖을 떼야 하는데 과거 약방에서 팔던 쟁기랍을 젖에 바르면 쓰기 때문에 아이가 젖을 먹지 않는다.

(4) 백일

- **백일 때 아이가 입는 옷** : 백일이 되면 아이에게 집에서 만든 깨끗한 저고리와 바지를 입히고 복건을 씌워준다. 이때는 아직 아이가 제대로 앉지 못한다.
- **백일상** : 백일상에는 흰무리(백설기를 경기지역에서는 '흰무리'라 함), 밥, 미역국, 수수팔떡 등을 차린다. 백일상은 돌상에 비해 간단히 차린다.
- **삼신상** : 백일 아침에 쌀밥과 미역국으로 삼신상을 차려놓는다.
- **이웃과의 관계** : 백일은 '백사람이 먹어야 아이에게 좋고 명이 길다'는 말이 있다. 백일은 아이의 명이 길게 되라고 하는 것이며, 돌은 '첫 생일'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날 아침에는 가까운 이웃이나 친지들을 불러 함께 식사를 하고 떡을 이웃에 돌린다. 전로부터 백일에는 부조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근래에 음식점에서 하는 경우에는 빈손으로 갈 수 없어 부조를 할 수 밖에 없다.

(5) 돌

- **돌 때 아이가 입는 옷** : 남자 아이는 풍차바지, 색동저고리, 타리개버선(타래버선을 주민들은 '타리개버선'이라 함), 복건을 씌우고, 여자아이에게는 색동저고리와 치마, 머리에는 조바위를 씌운다. 근래에는 한복만 입히고 돌잔치를 하기도 한다. 1983년에 허옥희 손녀딸의 돌잔치 때 사진을 보면 한복만 입고 있다.
- **돌상** : 돌상은 잘 차린다. 수수팔떡, 흰무리, 무지개떡, 송편 등과 함께 책, 붓, 먹, 돈, 실타래(이것을 집으면 명이 길다), 등을 놓아 아이가 무엇을 먼저 잡는가를 보고 아이의 장래를 점친다. 허옥희 손녀딸의 돌잔치 사진을 보면 '케익'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근래에는 돌상에 올리는 음식도 서양식 풍조가 가미되고 있음을



↑ 허옥희씨 손녀 돌잔치(1983, 남자아이는 친구임)

부조를 해야 한다.

2. 혼례

민속은 시대에 따라 변해간다. 그 변화의 요인은 생활환경의 변화와 외래문화의 유입에 의해서 비롯된다. 근래 우리의 생활환경의 변화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산업화, 도시화 등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었다. 시간에 따라 생활환경이 변화하고 그 속에서 인간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며 그 적응의 산물인 민속은 그 때 그 때의 얼굴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민속은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 때 그 때의 얼굴을 나타내지만 그 얼굴은 그 이전의 얼굴에서 변화되는 것이며 그 얼굴과 이전의 얼굴들 사이에는 일종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그 때 그 때의 얼굴을 시간의 변화에 따라 연결해 봄으로서 그 끈의 실체를 느낄 수 있다. 그 끈은 오랜 세월동안 내려오는 '그 사회의 문화적 특징'이며 그 때 그 때의 얼굴은 '그 시대의 문화적 특징'을 말해준다.

한국인의 일생의례 역시 여기에 예외가 아니다. 혼례라는 민속이 시대와 환경의 변화 속에서 인간들에게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사회의 '생활문화사(生活文化史)'의 일면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창곡동이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허옥희 집안사람들이 시간과 환경의 변화 속에서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인 혼례를 어떻게 엮어가는 지 살펴보기로 한다. 조사방법은 2005년 7월말에서 8월초 사이에 허옥희와 그의 아들, 딸을 직접 만나 대담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허옥희의 경우에

알 수 있다.

- 삼신상 : 백일 때와 동일
- 이웃과의 관계 : 돌 때도 백일과 마찬가지로 떡을 이웃집에 돌리며 가까운 사람들은 아침식사를 함께 한다. 이때 이웃집에 떡을 돌리면 빈 그릇을 보내지 않는다고 하여 과거에는 그릇에 돈을 넣거나 쌀을 넣어 보냈다. 요즘은 음식점에서 하기 때문에

는 면담을 하면서 비디오촬영을 하여 채록한 후에 그 후 몇 차례 보완조사를 실시하였다. 아래의 조사내용에 대한 서술방식은 제보자들의 말을 충실히 기술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경우에 따라서 직접화법과 간접화법을 섞어서 표현하였음을 밝혀둔다.

(1) 허옥희씨의 혼례

1928년 양재동에서 태어난 허옥희는 18세인 1946년에 창말에 사는 경주 이씨(慶州李氏) 19세 된 총각과 혼례를 했다. 혼례 후 차남인 신랑은 시댁으로부터 이웃에 있는 집을 세간으로 얻어 그 집에서 신혼살림을 꾸렸으나 그 밖의 재산은 얻지 못해 첫출발은 가난했었다. 열심히 살면서 점차 재산을 불려갔으며 부잣집이었던 친정에서도 땅을 살 때 조금 보탬을 주었다. 현재까지 신혼살림을 꾸렸던 그 집터에서 장남과 함께 살고 있다. 자녀는 2남 2녀를 두었다. 허옥희가 결혼할 당시는 해방 직후이므로 정치적으로 어수선하고 국민들의 생활은 빈곤한 상황이었으나 허옥희의 친정과 시댁은 부유한 집이었다. 따라서 허옥희와의 대담을 통해 살펴본 그의 혼례식은 가난했던 사람들의 사례와는 달리 혼수품 등을 보더라도 당시로서는 상당한 규모였음을 알 수 있다¹⁶⁷⁾. 이 사례는 해방 직후 서울 근교지역의 혼례는 물론, 당시 부유한 집의 혼례풍속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라고 하겠다.

가. 혼례 전의 절차

- **중매·양가 어른들 뵙기** : 허옥희는 18세 되던 해 당시 창말에 사는 시댁 큰시어머니(伯母)의 중매로 창말에 사는 남자와 혼담이 오가게 된다. 혼례 전 신랑의 얼굴은 보지 못했다. 당시만 하더라도 혼례 전에 서로 배우자의 얼굴을 보는 경우는 드물었다. 배우자 간에 '맞선'¹⁶⁸⁾은 보지 않은 것이다. 어머니와 고모가 신랑을 만나보았다. 신랑 측에서는 시어머니와 큰시어머니가 여자집으로 찾아와서 보았다.
- **궁합보기** : 시댁의 시할아버지가 궁합을 보았다.
- **사주단자 보내기** : 봄에 신랑댁에서 사주단자가 오고 난 후 혼례 날짜를 정하여 가을에 혼례를 했는데 사주단자는 중매를 한 사람이 가지고 왔다. 사주단자는 신랑의 사주를 써놓은 창호지를 접어놓은 것 위에 수수깁을 올려놓고 청실과 홍실로 매어 있었으며 신부가 입을 치마 저고리감(이것은 혼례 때 입는 것이 아니라 결혼 후

167) 조사자가 『판교마을지』(성남문화원, 2001)에서 소개한 1952년에 행해진 판교의 이순덕·이호석부부나 『판교마을지1』(성남문화원, 2002)에서 소개한 1948년에 행해진 운중동의 김현정·박송용부부의 사례에 비하면 부잣집의 혼례였음을 알 수 있다.

168) 허옥희보다 5세 아래인 동생은 결혼 당시 맞선을 보았다 한다. 그 무렵에도 맞선을 보는 사람이 드물게 있었으나 일반화되지는 않았다.

옷을 지어 나들이용으로 입는다)과 3돈짜리 금가락지가 함께 왔다.

당시에 선을 본 후 양가 어른들의 마음에 들면 상대방의 사주를 중매쟁이에게 물어보아 궁합을 보았다. 따라서 사주단지를 보내기 전에 이미 서로의 사주를 알고 있으나 굳이 사주단지를 보내는 것은 공식적인 관례이며 서로 혼사를 하겠다는 징표(約婚의 의미)이다. 혼례날짜는 양가의 형편에 맞추어 중매쟁이를 통해 상의하나 최종결정은 신랑집에서 하여 중매쟁이를 통해 신부댁에 통보한다.

- **함 보내기(納幣)¹⁶⁹⁾와 친영(親迎)** : 혼례를 하는 날 아침에 신랑과 함진애비(함을 지는 사람)와 신부가 탈 가마를 운반하는 사람 등이 왔다. 함을 지는 사람은 결혼을 해서 잘 사는 사람이 지고 오기도 하나 과거 양반들은 수고비를 주고 함꾼을 사기도 했다. 양반들의 함을 지고 가는 사람은 하인들이었다. 함을 지고 갈 때는 7명 또는 9명이 온다.¹⁷⁰⁾ 이때는 9명이 왔다. 청사초롱을 든 사람 두 명이 앞장을 서고 뒤에 신랑과 신랑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사람, 집안어른, 짐꾼이 따른다. 함진애비는 얼굴에 검은 칠을 하고 가며 일행이 신부의 동네어귀에 다다르면 청년들이 신랑에게 재를 뿌린다. 이런 것은 '부정이 들지 말라'는 의미가 있는데 우산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재가 신랑에게 가지 못하도록 우산을 들고 가리기도 한다. 따라서 신랑은 대례를 하기 전에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

함이 도착하면 대청에 봉치떡(찰떡을 시루로 찐다)을 놓고 그 위에 함을 올리게 한다. 이윽고 신부의 부친이 함에 손을 넣어 보았다. 함속에는 혼서지와 채단(청색과 홍색의 비단 옷감 두 벌¹⁷¹⁾), 비녀, 머리 쪽에 꽂는 각종 장신구, 신부 두루마기가 들어 있었다. 봉치떡에서 함을 내리고 나면 떡을 퍼서 먼저 신랑에게 주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준다. 허옥희가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함꾼들이 신부집에 와서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돈을 요구하는 풍속은 그 후에 생긴 풍조라고 한다.

나. 혼례식과 그 후의 절차

- **기러기 드리는 예(奠雁禮)** : 신랑과 장모 사이에 서로 보이지 않게 장막을 쳐놓고 신랑이 기러기를 들고 건네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받아 장모에게 준다. 장모는 그것을 받으면 그것을 안방에 놓고 기러기가 날아가지 못하도록 위에 시루를 얹어 놓는다. 기러기를 대례상에는 올리지 않는다. 안방에 그대로 두었다가 신랑이 집으로 돌아갈 때 빌린 것이므로 돌려준다.

169) 신랑집에서는 보통 함을 혼례식 전날 보내는 것이 상례인데 이때는 친영 갈 때 같이 보냈다.

170) 허옥희에 의하면 신부가 신행을 갈 때는 신부 측에서 11명이 간다고 한다.

171) 이것은 혼례 후 입을 장래 저고감이다. 혼례 때에는 속치마를 입고 그 위에 남치마에 분홍저고리나 홍치마에 노랑저고리를 입는다.

- **혼례식(醢禮)** : 신랑 일행이 함을 들고 오기 전에 미리 안마당에 대례상을 차려놓는다. 신랑이 대례상 동쪽에 서고 신부가 맞은편에 서서 홀기의 순서대로 대례를 행한다.
- **신랑상** : 대례 후 신부집에서는 신랑에게 돼지다리, 갈비, 떡, 부침개, 과일, 술 등을 푸짐하게 차려준다. 이때 남은 음식을 고리짝에 넣어 신행 때 신랑집으로 가지고 간다.
- **신랑집으로 가기(新行)** : 대례를 마치면 신랑집으로 간다. 신랑은 말을 타고 신부는 가마를 타고 가는데 이때 신부집에서 준비한 혼수품을 모두 들고 간다. 보통 붓짐을 든 짐꾼들이 신랑일행을 따르는데 허옥희의 경우에는 짐이 많아 수레에 싣고 갔다.
- **신부가 신랑집으로 들어 갈 때의 풍속** : 신부가 신랑집으로 갈 때 동네어귀에 들어서면 신랑집에서는 '주당살'을 피한다고 집밖으로 모두 나온다. 신부가 가마에서 내릴 때는 붉은 보자기를 씌워 얼굴이 보이지 않게 한다.¹⁷²⁾ 이렇게 하여 부엌으로 들어가 보자기를 벗기고 조왕(부뚜막)에 절을 세 번 하고 방으로 들어가는데 방 입구에 솔뚜껑을 놓고 낫쇠로 만든 숟가락을 들고 머리 위에서 솔뚜껑에 닿도록 떨어뜨린다. 이렇게 하여 '쨍그랑'하고 소리가 나게 한 후 솔뚜껑을 밟고 방안으로 들어간다.
 이 지방에서는 과거 신부가 시집을 때 친정에서 시댁으로 오는 방향이 삼살방이나 대장군 방향과 일치하면 '소코두레'¹⁷³⁾를 속치마 속에 넣어 치마끈으로 매어 가지고 와서 신방 출입문 위에 달아놓았다. 소는 아무 방향으로 가더라도 방위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허옥희도 시집을 때 이렇게 했다.
- **색시상(신부큰상)** : 방으로 들어가면 신부에게 색시상이 나온다. 이때는 여러 가지 음식을 잘 차려서 신부에게 주는데 돼지다리, 과일, 부침개, 떡, 고기 등 푸짐하다. 이때 음식은 신랑이 3일째 처가(妻家)에 갈 때 가지고 간다. 신부집에서는 '색시상' 왔다고 이 음식들을 이웃과 나누어 먹는다.¹⁷⁴⁾ 반대로 신부집에서는 '신랑상'이라고 하여 잘 차려서 신랑을 대접한다.
- **사당차례** : 식사를 한 후 사당차례를 지냈다. 시부모가 차남이고 당시 시조부모가

172) 허옥희에 의하면, 이것은 부정이 따라 들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서울곳에서 호구별상을 놀 때 붉은 보자기를 뒤집어쓰는 것과 같다 한다.

173) 이사 갈 때도 방향이 그해 삼살방이나 대장군 방향과 일치하면 이렇게 하는 풍습이 있다.

174) 이때 3일 동안 음식을 두면 상하는 경우도 있는데 따라서 혼례식은 겨울철 또는 음력 10월에 많이 했다. 또한 이 무렵은 추수가 끝난 후라 농촌도 한가하기 때문이다.

생존해 계셨기 때문에 사당차례는 이웃에 있는 큰택에 가서 대청에서 지냈다. 신부는 이때 활옷을 입고 신랑은 두루마기를 입었다. 이때는 메 대신 국수를 올린다. 국수와 기타 음식을 차린 후 지방을 써 붙이고 차례를 지낸다. 경주 이씨(慶州李氏)인 시댁은 조상이 많아 조상 수대로 지방을 바꾸어 갈고, 그때 마다 국수도 다시 올리고 여러 번 차례를 지내어 시간이 많이 걸렸다.

- **폐백(幣帛)** : 폐백은 안방 혹은 마루에서 하는데 시부모부터 가까운 친척 순으로 한다.
- **초야(첫날밤)** : 폐백이 끝나고 밤이 늦어 곧바로 잤다. 신방에 한쪽은 병풍을 쳐놓고 한쪽문은 일부러 사람들이 엿보도록 열어놓았다.¹⁷⁵⁾
- **재행(再行)** : 3일후 신랑만 처갓집에 가서 하룻밤을 자고 온다. 이때 동네 청년들이 처갓집에 와서 함께 술상을 차려놓고 논다. 청년들이 신랑을 달아매고 발바닥을 때리며 짓궂은 장난을 치고 술값을 내라고 하면 장모가 대신 술값을 내준다. 또한 처갓집에서는 사위에게 씨암탉을 잡아준다.
- **첫 친정나들이(觀親)** : 시집온 후 신부가 친정에 가는 것은 가을에 추수 후나 정월에 새해 인사로 가는데 허옥희의 경우에는 음력 10월에 혼례를 했기 때문에 새해에 친정을 갔다. 이때는 부부가 함께 가는데 인절미, 절편 등 떡을 닷말 정도 하고 복어찜, 약주, 담배 등을 푸짐하게 준비해서 갔다. 시댁으로 올 때는 친정에서 더 많이 준다. 소고기찜, 엿, 단술(식혜를 이곳에서는 '단술'이라 함), 떡 등과 가족들에게 선물할 버선을 가지고 왔다. 당시에는 혼례를 해도 시댁에 음식 외에 특별히 선물하는 것은 없었으며 이때 드리는 버선이 고작이라고 할 수 있다.¹⁷⁶⁾

다. 혼례복과 음식 및 용품

① 혼례복

- **신랑** : 신랑이 입는 옷은 조선시대 관복과 동일하다. 바지 저고리를 입은 후 그 위에 단령(團領)을 입고 각대(角帶)를 두르고, 사모(紗帽)를 쓰고 목화(木靴)를 착용한다.
- **신부** : 신부는 대례 때 치마 저고리를 입은 후 그 위에 원삼(圓衫)¹⁷⁷⁾을 입고,

175) 허옥희에 의하면, 초야에 신방을 엿보도록 하는 것은 과거 신랑이 색시를 벗겨야 한다는 말을 듣고 신부의 옷이 아니라 살가죽까지 벗겨 놓았다는 일화가 있는데 이 때문에 신방을 엿보도록 한 것이라 한다. 즉, 성(性)에 대해 무지한 어린 신혼부부를 위한 일종의 '예방책'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이다.

176) 당시에는 시댁식구에게 오늘날과 같은 선물을 주지 않았다. 버선 혹은 양말을 주는 것이 고작이었다. 시부모나 처가에 옷값으로 돈을 주거나 선물을 주는 풍조는 예식장에서 하는 결혼식이 정착되면서부터 생긴 것이라고 허옥희는 말한다.

177) 고려시대부터 대례복으로 궁중여인이나 신부의 옷옷으로 사용되었다(조선일보사, 『사진으로 보는 家』

머리에는 족두리¹⁷⁸⁾를 쓰고 비녀를 꽂고 비녀에 땀가리를 걸어 늘어뜨리고, 불에 연지를 찍고, 꽃신을 신는 경우와 원삼 대신 활옷¹⁷⁹⁾을 입고 머리에는 화관을 쓰는 경우, 당의(唐衣)¹⁸⁰⁾를 입고 화관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허옥희는 대례 때 활옷을 입고 머리에는 '큰머리'를 썼었다. 당시 돈이 있는 사람들은 화관 대신에 하남에게 세를 주고 빌린 큰머리를 썼는데 이것은 사람의 긴 머리를 잘라서 만든 것이다. 혼례 때 쓰는 큰머리에는 갖가지 장식이 있어 화려하다. 폐백을 올릴 때는 원삼을 입고 머리에는 족두리를 썼으며 사당차례를 지낼 때는 활옷을 입고 족두리를 썼다. 혼례 때 입는 옷은 이렇게 대례 때 입는 옷, 사당차례 지낼 때 입는 옷, 폐백 드릴 때 입는 옷 등 종류가 여러 가지이다.

과거 혼례복 등 혼례에 필요한 물품을 대여해 주고 혼례식 때 색시를 도와주고, 대례 때 절하는 것을 도와주는 '하남'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영업적으로 혼례식 때 도와주고 수고료를 받는 사람들이다. 과거 가난한 사람들은 이웃에서 도와주었으나 부잣집에서는 하남을 불렀는데 허옥희의 혼례식 때도 하남을 불렀다.

② 혼례음식

- **대례상¹⁸¹⁾** : 대례상에는 밤, 대추, 사과, 배, 참쌀, 팔 등을 올렸다. 이 마을에서 대례상에 소나무나 대나무, 꽃병은 올리지 않았다. 곳에 따라 닭을 보자기에 싸서 올려놓기도 하는데 그런 것도 이 마을에서는 보지 못했다. 촛대는 두 개를 올리는데 청색과 홍색으로 된 종지로 초를 감싸 놓았다.
- **잔반이상** : 대례상 아래, 신랑과 신부 쪽에 놓아두는 작은 상에는 막걸리와 콩나물(안주를 위해), 표주박으로 만든 술잔, 나무를 꺾어 만든 젓가락을 놓는다. 또한 신랑 쪽에 대야와 수건을 준비해 놓는다.
- **폐백상** : 신부집에서 대추, 밤, 약밥, 편포(소고기를 저며 양념), 육포 등을 층층이 쌓아 근봉(謹封)하여 술과 함께 시댁에 가져와서 폐백상에 올린다. 시조부모가 생존하는 경우에는 시부모 것과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허옥희의 경우에도 당시

庭儀禮』1995, 57쪽).

178) 몽고에서 고려 말에 들어온 족두리는 조선시대에 와서 그 모양이 왜소해져 머리 장식품으로 사용되다가 영·정조시대에 사치방지를 위해 얹은머리를 금하고 쪽진머리를 장식하는 수복품으로 권장되면서 대례에서도 사용되었다(趙孝順, 『韓國服飾風俗史研究』, 一志社, 1995, 147쪽).

179) 궁중에 의식이 있을 때 왕비가 입던 대례복

180) 궁중에서 왕족이나 외명부(관직에 있는 사람의 아내)에 있는 여자들이 입던 옷으로 양반집 여인들이 대례복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당의를 입었을 경우 머리에는 화관을 썼다.

181) 초례상이라고 하지만 이 지방에서는 '대례상'이라 부른다.

시조부모가 계셨기 때문에 폐백음식을 이중으로 해왔다. 시조부모와 시부모에게는 같은 폐백음식을 올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친척에게 절할 때는 시부모에게 올린 폐백상에서 그대로 한다.

- **신부큰상** : 위의 색시상 참고
- **신방상** : 신방에 주안상을 넣어 주는 경우도 있으나 허옥희는 이것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 **하객접대음식** : 원래 잔치에는 메밀국수를 했다. 집안에 잔치가 있으면 미리 메밀을 심어 몇 가마니 추수를 한 후 메밀을 갈아 반죽을 하여 국수 빼는 집에 가서 '국수틀'에 넣어 국수를 만들어 잔치에 사용했다. 사골 삶은 물에 메밀국수를 말아 위에 고기 다진 것과 갖은 양념을 넣어 먹으면 매우 맛있다. 그 후에 메밀 농사를 짓지 않고 밀가루로 만든 국수가 나와 편의상 그것으로 잔치 때 사용하게 되었다. 허옥희의 혼례 때는 메밀국수와 그 외 과일, 술, 단술(식혜), 부침개, 나박김치 등이 준비되었다. 당시 하객들이 오면 마당에 명석을 깔고 차일을 치고 음식상을 차려 대접했다. 70년대에 와서는 도시락에 음식을 넣어 하객들에게 싸주기도 했다. 허옥희의 부친 장례 때에는 과일, 고기, 약과, 떡, 불고기, 조기, 김 등을 밥과 함께 싸서 도시락을 만들어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나누어 주었다 한다.

③ 혼례용품

- **혼수품** : 신행 때 가지고 온 혼수 - 신부가 시댁으로 올 때 양장을 넣을 수 있는 신식 양복장과 단스, 화장대, 반지그릇, 실크로 된 고급스런 옷, 솜이불 한 채, 낫으로 된 대야와 요강, 분(박하분)¹⁸²⁾, 신랑 신부가 밥그릇으로 사용할 낫그릇 등을 실고 왔는데 보통 짐꾼들이 지고 오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허옥희의 경우에는 혼수품이 많아 수레에 실고 왔다. 낫그릇은 주발과 대접 두 벌인데 주발 하나에는 붉은 팔, 하나에는 찹쌀을 담고 위에 대추 몇 개를 올려놓았다.¹⁸³⁾ 팔과 대추는 '자손 번성하라'는 뜻이고 찹쌀은 찰떡 같이 살라는 뜻이다. 시댁에 오면 찰떡 같이 살라는 의미에서 이 곡식으로 3일째 되는 날 밥을 해준다.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예물 - 혼례 때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예물인 패물이나

182) 허옥희는 당시 몇 년치 사용할 것을 이때 가지고 왔다. 시댁에서 새 색시가 함부로 물건을 살 수 없었던 당시로서는 시집을 때 화장품 같은 필수품을 넉넉히 장만해 올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다.

183) 대례상에 올렸던 팔과 찹쌀을 그대로 담아 오는 경우도 있는데 허옥희의 경우는 별도로 대례 전에 미리 팔과 찹쌀을 그릇에 담아 짐을 싸놓은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고 한다.

옷감 등은 사주단자나 함을 보낼 때 함께 넣어 보낸다. 물품은 위의 사주단자와 함 부분 참조.

신부가 신랑에게 주는 예물 - 신부가 신랑에게 주는 예물은 신행(新行)을 때 가지고 오는데 물품은 반지, 바지 저고리, 두루마기이다. 이 옷은 예식 때는 사용하지 않으며 결혼 후 외출복으로 입는데 두루마기는 주로 겨울에 나들이복으로 입는다.

- **혼례시 운송도구** : 신랑은 말을 타고, 신부는 가마를 타고 왔다. 당시 가마와 말은 신랑집에서 준비를 했는데 가마는 연꽃과 구슬이 장식된 고급스런 것으로 신랑의 대례복과 함께 개포동에 있는 혼례용품을 빌려주는 곳에서 세를 내고 빌렸다.
- **혼례용품 보관** : 1960년대까지 군용지터(현재 군부대가 있음)에 있던 마을회관에 혼례복과 가마가 있었으나 그 후 예식장에서 결혼을 하게 되자 소실되었다. 허옥희가 결혼을 할 무렵에도 창말에 혼례복과 가마가 있었으나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더 좋은 것을 빌려서 했다.

라. 이웃과의 관계

- **부조** : 과거 집에서 혼례식을 하던 1960년대 무렵만 하더라도 이웃에 혼례를 하면 단술(식혜) 한 초롱(병을 '초롱'이라 함), 막걸리 한 초롱, 국수 한 간, 떡 다섯 말 등 돈이 귀하기 때문에 주로 물품으로 부조를 대신 했다. 그마저 없는 사람들은 그냥 왔다가는 사람도 있었다. 부조는 받은 만큼 해야 한다. 떡 다섯 말을 받으면 그 집 잔치 때 그대로 해야 한다. 당시 떡 다섯 말 하는 것은 부자가 아니면 힘들었다. 잔치 때 일은 이웃집에서 해주었다. 마을에 혼례가 있으면 주로 친척이나 이웃에서 왔으며 이웃마을에서는 아주 친한 사이가 아니면 오지 않았다. 그러나 장례가 있을 때는 이웃마을에서도 막걸리 한 초롱을 부조로 들고 문상을 왔다.
- **혼기와 통혼권** : 당시에는 20세를 넘기지 않고 18~19세가 되면 혼례를 했다. 일제 말기 일본군이 젊은 처녀들을 성노예로 잡아갈 때는 16살이면 혼인을 시킨 적도 있다. 통혼권은 인근 마을이나 시군에서 이루어졌는데 인근에서 장가를 가지 못한 사람들은 전라도에 있는 가난한 집 처녀들과 혼인하는 경우도 있었다.¹⁸⁴⁾ 이렇게 온 처녀들은 혼수품 없이 빈손으로 왔다.

184) 이런 사례는 조사자가 강원도 지역을 갔을 때도 조사된 바 있는데 당시 전라도 여성들이 각지로 갔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동남아 여성들이 한국의 농촌으로 시집오는 경우와 처지가 유사하다.

(2) 허옥희씨 아들의 혼례



↑ 성남 중앙예식장에서 치러진 이희명씨 결혼식

이희명(1951년생)은 1977년 11월 3일 성남중앙예식장¹⁸⁵⁾에서 혼례를 하였으며 당시 신랑은 26세, 신부는 25세였다. 이 사례를 통해 1970년대 후반 이 마을의 혼례 풍속의 단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혼례 전의 절차

- **맞선·교제** : 신부는 대구사람이었는데 인근에 사는 신부의 올케가 중매를 하여 만났다.
- **궁합** : 신랑의 부친이 궁합을 보았다.
- **양가 상견례** : 양가 부모님이 만나서 혼례식 날짜를 정하였다.
- **약혼식** : 1977년 7월 10일에 서울 강남에 있는 '풍림회관'이라는 식당에서 약혼식을 하였다. 약혼식 순서는 신랑 친구인 사회자가 개식사와 신랑 신부의 약력을

을 소개하고 친지의 대표가 참석한 친지들을 소개하였다. 이어서 예물 교환을 하고 다른 절차 없이 곧바로 식사를 하였다. 예물을 교환할 때 신랑은 신부에게 다이아 반지, 목걸이, 팔찌, 귀걸이를 주었다.¹⁸⁶⁾ 신부는 신랑에게 반지와 시계를 주었다. 이때 사주단자도 교환했다.

- **야외사진촬영** : 이때는 야외촬영을 하지 않았다. 현재 45세인 허옥희의 큰딸 때는 야외촬영을 했는데 장남의 결혼 때만하더라도 야외촬영을 하는 경우를 허옥희는 보지 못했다 한다.
- **함 보내기** : 혼례식 전날 함을 보냈는데 신부의 집이 대구이므로 그곳까지 갈 수 없어 서울에 사는 신부의 오빠집으로 신랑과 친구들이 함을 들고 갔다.¹⁸⁷⁾ 함에는

185) 처음 성남이 건설될 때만 하더라도 성남에 예식장은 없었다. 성남에 최초로 예식장이 생긴 것은 70년대 후반으로 성남종합시장(이희명이 소유하고 있는 결혼식 방명록에는 당시 신촌2동 210번지로 되어 있음)에 생긴 중앙예식장이다. 오늘날에는 모란웨딩홀, 소망웨딩홀, 한길웨딩홀, 스카이 웨딩홀 등 많은 예식장이 있다.

186) 허옥희에 의하면, 과거 사주단자를 보내는 의미가 시대가 바뀌어 약혼식으로 대체되었다고 한다. 이 마을에서는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한 후에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약혼식을 하는 풍조가 있었는데 근래에는 다시 약혼식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한다. 허옥희의 큰딸(45세)의 경우에도 약혼식을 하지 않았다 한다. 약혼식은 결혼을 결심한 두 사람이 양가의 어른을 모시고 상견례를 하며 결혼할 것을 약속하는 것인데 과거에는 사주단자를 서로 보내는 것으로 약혼의 의미가 담겨 있기는 하였으나 전통혼례 풍속에서 약혼식에 해당하는 의식은 없다.

187) 허옥희의 장남 이희명(54세)은 당시 친구들이 결혼할 때 함을 지리 간 적이 많은데 이때 함을 지고

신부에게 줄 한복 1벌과 양장 1벌이 있었으며 혼서지와 폐물은 약혼식 때 주었으므로 넣지 않았다.

나. 혼례식과 그 후의 절차

- **혼례식과 폐백** : 혼례식은 1977년 11월 3일 성남 중앙예식장에서 올렸는데 주례는 부친의 친구였던 전 국회의원 유기준씨가 했다. 혼례식과 폐백 절차는 허옥희씨 막내딸의 경우와 동일하다. 예식장에서 하는 결혼식의 식순은 근래나 차이가 없으나 이때는 주례사 하기 전에 예물교환이 있었다. 약혼식 때 예물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하는 것은 간단히 비싸지 않은 짝가락지(커플링)를 서로 나누어 낀다. 근래에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 절차를 생략하는 사람도 있다.
- **피로연** : 당시 하객이 680여 명 왔기 때문에 600석 이상 되는 큰 식당을 빌려서 피로연을 했다. 신랑 신부 친구들이 모이는 장소는 따로 빌렸는데 그곳에서 친구들이 신랑의 발바닥을 때리는 등 짓궂은 장난을 쳤다. 이날 친구들이 장소를 옮겨가면서 신랑 신부를 놓아주지 않아 밤새 술을 마시고 놀아서 기차 시간도 놓치고 돈도 떨어져(친구들과의 피로연 비용은 신랑이 지불하였기 때문) 다음날 돈을 빌려서 신혼여행지로 갔다.
- **신혼여행** :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경주까지 가서 경주에서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 온양온천에 가서 하루를 보내고 왔다. 당시만 하더라도 신혼여행을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 **사당차례** :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다음날 아침에 대청(큰집에 가지 않고 허옥희 집에서 했음)에서 기제사를 지내는 조상님(당시는 조부모)께 결혼하였음을 고하는 차례를 지냈다. 일반제사와는 달리 이때는 음식을 차려놓고 간단히 절만 한다. 차례를 지낸 후 산소에 가서 성묘를 했다. 이 지방에서는 요즘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당차례를 지낼 때는 메 대신에 국수를 올린다. 환갑 때도 마찬가지로 집안에 잔치가 있어 지내는 사당차례는 국수를 올린다.
- **처갓집 가기** :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3일 후 신혼부부는 처갓집에 가서 인사를 드렸다. 이때 양가에서 주고받은 선물은 막내딸의 경우와 유사하나 신부댁의 사정도 있고 해서 간단히 했다.

다. 혼례복과 음식 및 용품

- **혼례복** : 예식 때는 신랑은 양복, 신부는 웨딩드레스를 입었다. 신랑의 양복은 신

부집에서 미리 돈을 주어 맞추었는데 웨딩드레스는 세를 주고 빌렸다. 폐백 때 신부는 치마 저고리를 입었다.

- **폐백상** : 폐백상은 신부집에서 직접 만들어 왔다. 폐백이 끝난 후 음식은 신랑집으로 가지고 갔다.
- **하객접대음식** : 피로연에 나온 음식은 국수와 기타 음식들이 나왔다.
- **혼수품** : 당시 신부는 냉장고, TV, 장롱, 화장대, 이불, 그릇, 수저 등을 가지고 왔다. 신부는 약혼식 때 시계와 반지 등을 신랑에게 주었으며 양복 2벌을 주었다(한복은 주지 않았음). 신랑은 신부에게 약혼식 때 패물셋트를 주었으며 함을 보낼 때 한복과 양장 1벌을 주었다.
- **양가 가족을 위한 선물** : 신부집에서 시부모를 위해 옷을 사라고 10만원을 보내주었으며 신랑집에서도 처갓집 어른들을 위해 옷값으로 5만원을 보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신랑집에서는 신부집에 비해 적은 금액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 이웃과의 관계

- **부조** : 당시 신랑집 방명록에 기록된 부조금 내역을 보면 총 125명의 명단이 적혀 있는데 124명은 금액이 쓰여 있고 1명은 청첩장이라고 쓰여 있다. 124명을 통계로 내보면, 1,000원이 55명, 1,500원이 16명, 2,000원이 48명, 3,000원이 11명, 5,000원이 3명, 10,000원이 8명, 13,000원이 1명으로 총 금액이 310,000원이다. 그러나 방



↑ <이희명씨 결혼 때 부조금을 적어놓은 방명록>

番 號	姓 名	金 額
18	김희	1,000
19	최	1,000
20	노	1,000
21	박	1,000
22	유	1,000
23	한	1,000
24	박	1,000
25	한	2,000
26	한	1,000
27	김	1,000
28	신	1,000
29	조	2,000
30	김	1,000
31	김	2,000
32	손	2,000
33	허	3,000
34	김	1,000
35	한	1,000

↑ <방명록 내부의 일부분, 당시 부조금 내역이 적혀있다>

명목에 총 금액이 331,5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외 추가금액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으로 보아 1977년 무렵 이 마을에서는 1~2천원 정도가 부조금액으로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친구들은 돈 대신 액자 등을 선물하는 경우도 있었다.

- **청첩장** : 허옥희가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청첩장이 없었다. 주로 말로 잔칫날을 전하였다. 이 마을에서는 60년대 무렵부터 청첩장이 생겼다. 허옥희 아들이 결혼할 때는 결혼식 전에 청첩장을 돌리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장례식 때 부고를 돌리는 풍속은 옛날부터 있었다. 초상이 나면 호상의 주판 아래 글을 아는 사람이 수백장이 되는 부고를 직접 붓으로 써서 돌렸다. 보통 같은 마을은 부고를 돌리지 않아도 다 알기 때문에 이웃마을이나 먼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고를 돌린다. 근래에는 초상 때에도 부고를 인쇄하기 때문에 간편해졌다.

(3) 허옥희씨 막네딸의 혼례

현재 39세인 허옥희의 막네딸은 1999년에 서울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 내의 예식장에서 혼례를 했으며 현재 분당에 거주하고 있다. 결혼 당시 신부의 나이는 33세, 신랑의 나이는 34세였다. 이 사례를 통하여 근래에 이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혼례풍속의 단면을 살펴보도록 한다.

가. 혼례 전의 절차

- **맞선·교제** : 신랑은 서울 천호동 태생으로 친구의 사촌 오빠인데 친구의 소개로 만났다. 만난 후 어느 정도 교제를 했다.
- **궁합** : 신랑의 부친이 궁합을 보았다.
- **양가 상견례** : 양가의 부모님이 만나서 혼례 날짜를 정하였다. 약혼식은 하지 않았다. 근래에는 약혼식을 하는 경우가 드물다.
- **야외사진촬영** : 함을 받기 전에 적당한 날을 잡아 잠실 석촌호수에서 야외촬영을 했다.
- **함 보내기** : 결혼식 전날 저녁에 신랑과 친구 9명이 함을 가지고 왔다. 요즘은 신랑 친구들이 시간이 나지 않으면 결혼식 1주일 전 휴일에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다. 함을 들고 올 때 앞에 두 사람이 청사초롱을 들고 뒤에 신랑과 함진아비가 따라왔다. 함진아비는 과거에는 얼굴에 검정칠을 했는데 이때는 오징어로 가면을 만들어 쓰고 왔다. 신랑이 먼저 집으로 들어오는데 친구들은 함을 지고 들어오지 않고 돈을 내놓으라며 실랑이를 벌였다. 이날 함꾼들이 4~50만원 정도 신부집에서

받았다. 이날 신부 친구들도 신부집에 왔는데 신부집에서 신랑 친구들과 함께 모여 음식 먹었으며 신랑 친구들은 함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신부친구들에게 꽃값으로 주었다.

함이 들어 올 때는 봉치떡(찰떡)을 시루째 대청에 놓고 그 위에 보자기를 깔고 함을 올려놓은 후 친정아버지가 확인해 보았다. 함속에는 사주단자¹⁸⁸⁾, 혼서지, 폐백 할 때 입을 한복, 예복(양장으로 된 정장 두벌), 패물(다이아반지와 금 한 세트 즉, 귀걸이, 목걸이, 팔찌, 반지)이 들어 있었다. 당시 신랑이 입을 옷은 친정부모가 돈을 주고 신부가 입을 옷은 시댁에서 돈을 주었다. 양가에서 돈을 주고 둘이서 알아서 옷집에 가서 구입하라 하여 옷을 준비한 후 신부가 입을 옷은 이때 함속에 넣어 신부에게 전달되었다.

나. 혼례식과 그 후의 절차

- **혼례식과 폐백** : 혼례식은 롯데월드 결혼식장에서 했다. 결혼식 절차는 사회를 맡은 신랑친구가 개식사를 하고 신랑입장, 신부입장, 신랑 신부 맞절, 주례를 맡은 신랑의 대학 은사가 신랑 신부 서약을 하고¹⁸⁹⁾ 성혼선언문 낭독, 주례사를 하고 신랑 신부가 양가 부모님께 인사하고 하객들에게 인사하고¹⁹⁰⁾, 신랑 신부 퇴장하고 사회자가 결혼식이 끝났음을 알리는 폐식사를 했다. 이어서 기념촬영을 하는데 신랑 신부, 주례가 먼저 촬영을 하고 신랑 신부와 양가부모, 신랑 신부와 양가친척, 신랑 신부와 친구들 순으로 했다.

신랑 신부는 이어서 예식장에 있는 폐백실에서 시부모님과 시댁 친척들에게 폐백을 드렸다.¹⁹¹⁾ 폐백이 끝나면 신랑 신부는 피로연을 하는 곳으로 가서 하객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다.

- **사당차례** : 과거에는 혼례식 후 신랑집에서 폐백을 하기 전에 조상님들께 사당차례를 했는데 이때는 예식장에서 폐백을 하기 전에 간단히 조상님들께 술을 올리고 사당차례를 했다. 근래 예식장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
- **피로연** : 피로연은 예식장에서 지정된 식당에서 했는데 음식은 갈비탕과 기타 음식들이 준비되었다. 위의 언니 결혼식 때는 국수를 했었다. 일반 하객들과 달리 신랑 신부의 친구들이 모이는 별도의 피로연 장소(근처의 적당한 식당)가 마련되었는데

188) 과거에는 사주단자를 함 보내기 전에 보냈는데 이때는 사주단자가 함께 보내지고 있다.

189) 신랑 신부의 서약 이후 예물교환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예물은 함을 받을 때 미리 받았기 때문에 이때는 생략했다.

190) 신랑 신부의 퇴장 전에 신랑 측에서 시아버지가 하객들에게 감사의 인사말을 하였다.

191) 요즘에는 친정부모에게도 폐백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곳에서 친구들은 신랑 신부에게 짓궂은 장난을 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곧 이어 시간에 맞추어 신혼여행지로 가기 위해 김포공항으로 갔는데 공항까지는 신랑친구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탔으며 차에는 풍선을 매달았다.

- **신혼여행** : 당시만 하더라도 신혼여행은 주로 해외로 갔는데 이때는 국내적으로 외환위기 즉, IMF시대였으므로 제주도로 가서 3박 4일을 보내고 왔다.
- **처갓집 가기** :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시부모께 인사를 하고 쉬었다가 이튿날 신혼 부부는 처갓집(허옥희씨 댁)에 갔다. 이때는 과거 근친 때와 같이 음식을 장만하여 갔다. 당시 인절미 1말, 절편 1말, 약식 1말, 소고기 10건, 사과 1박스, 오렌지 1박스, 참외 1짝을 가지고 왔다. 이때 들어온 음식은 대동(마을)에 전부 나누어주었다. 창말에는 요즘도 다들 이렇게 한다. 신혼부부가 시댁으로 돌아갈 때는 인절미 1말, 절편 1말, 찰떡 1말, 약식, 갈비 1짝(당시 30만원), 과일 몇 박스를 보냈다.

다. 혼례복과 음식 및 용품

- **혼례복** : 예식 때 신랑은 양복, 신부는 웨딩드레스를 입었다. 이때 양복은 맞추었으며 웨딩드레스는 대여했다. 폐백 때 신부는 활옷에 족두리를 썼다. 이때 신랑 신부가 입은 폐백옷은 예식장에서 대여했다.
- **폐백상** : 폐백음식은 닭 1마리, 밤 1대, 대추 1대, 육회 3근, 육포, 구절판(술안주로 이혼 가지 음식을 판에 담아 놓은 것) 등이 들어가는데 이때는 친정집에서 미리 장만해 가지 않고 비용만 부담하여 예식장에서 주문을 했다. 당시 폐백상을 주문하면 예식장에서 50만원을 받았다. 폐백이 끝나면 음식은 시댁으로 가지고 간다.
- **하객접대음식** : 식당에서 준비한 갈비탕과 기타 음식이 마련되었다.
- **혼수품** : 신부는 냉장고, TV, 세탁기, 전자렌지, 전기밥통, 그릇, 수저, 장롱, 화장대, 침대, 이불 등을 가지고 갔다. 신부가 살림살이를 준비해 가는 반면에 신랑은 함께 살 집을 준비했다. 신랑에게는 양복 두 벌, 잠바, 코트, 두루마기, 바지 저고리, 모시적삼 1필과 시계, 반지를 주었다. 신부집에서 혼례비 들어간 전체 비용은 2000여 만원이며 그 정도면 일반가정에서는 당시로서 보통 정도라고 한다.
- **양가 가족을 위한 선물** : 신부집에서는 시댁으로 500만원을 보냈으며, 신랑집에서는 처갓집으로 300만원을 보냈다. 선물 대신 각자 필요한 것을 사라고 돈으로 대신하였다.

라. 이웃과의 관계

- **부조** : 당시 부조금이 적힌 방명록이 현재 허옥희씨 댁에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가까운 친척들은 몇 십 만원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친구나 이웃 등의 경우에는 2만원 혹은 3만원, 5만원 정도의 금액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중 3만원을 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였다.

- 청첩장 : 청첩장을 돌려 결혼식 장소와 시간을 알렸다.

(4) 혼례의 변화와 연속

허옥희가 결혼하던 해방 직후와 그 장남이 결혼하던 1970년대 후반, 막내딸이 결혼하던 1990년대 후반은 생활환경이 바뀌면서 혼례풍습도 변하였다. 가장 큰 변화는 과거 가정에서 하던 전통혼례식이 예식장에서 하는 신식혼례식으로 바뀐 점이다. 또한 그에 따라 부수적으로 새로운 관행들이 생겨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그 관행도 또 다른 신생(新生) 관행에 의해 밀려났다. 혼례풍습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생활문화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변화지 않고 끊임없이 내려오는 풍습도 있고 새로 생겨나는 관행 역시 터무니없이 돌출되는 것이 아니라 외형상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관행들이 담고 있는 의미를 이어가고 있는 점도 발견된다. 변화가 곧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문화적 연속성 속에서의 변화이며, 인간이 기존문화를 새로운 환경에 대응시키면서 엮어가는 실천의 산물이다. 또한 그 산물은 일정기간 그 시대의 관행으로 자리 잡는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위에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아래에서는 그 변화상을 개략적으로 도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혼례의 변화〉

		허옥희(1946년)	장남(1977년)	막내딸(1999년)	비고
혼례 전	배우자 선택	중매를 통해 결혼했으나 혼례 전에 배우자를 보지는 못했음(맞선은 아님)	중매를 통한 맞선으로 배우자를 만남	중매를 통한 맞선으로 배우자를 만났으나, 교제를 한 후 결혼	맞선과 교제가 강화
	사주단지, 함보내기	사주단자를 보내고 몇 개월 후 혼례 직전에 함을 보냄.	약혼식 때 사주단자를 주고, 혼례식 전날 함을 보냄	약혼식을 하지 않았으며 함을 보낼 때 사주단자를 함께 보냄	간소화
혼례식과 그후	혼례식	전안례, 교배례, 합근례를 신부집 안마당에서 함.	혼례를 예식장에서 함	혼례를 예식장에서 함	예식이 서양식으로 변화
	그후의 절차	혼례식 후 신랑집으로 가서 사당차례를 지내고 폐백을 하고 초야를 보내고 3일 후 신랑은 재행으로 처갓집을 다녀오고, 신년에 근친을 감	예식장에서 예식 후 폐백을 하고 신혼여행 다녀온 후 사당차례를 지내고 3일 후 재행과 근친을 겸하여 부부가 처갓집에 감	예식장에서 예식 후 폐백을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시부모께 인사하고 다음날 재행과 근친을 겸하여 부부가 처갓집에 감	사당차례, 폐백, 초야, 재행, 근친이 예식장, 신혼여행에 의해 변모

	혼례복	관복과 활옷	양복과 웨딩드레스	양복과 웨딩드레스	예복의 변화
혼례용품	혼례음식	대례상, 폐백상 등 음식상이 여러 가지며 하객접대음식은 메밀국수(집에서 만듦)	폐백상(직접 만듦) 외에는 예식에 음식상이 없으며 하객접대음식은 밀국수(공장에서 만듦)	폐백상(주문) 외에는 예식에 음식상이 없으며 하객접대음식은 갈비탕	의례음식의 간소화, 하객접대음식의 변화
	혼례용품	금가락지, 비녀 등의 패물과 옷감, 기타 신부가 싣고 올리는 혼수	다이아반지, 목걸이, 팔찌, 귀걸이 등의 패물과 시계, 옷, 기타 신부가 가지고 올리는 혼수	앞과 동일	점차 혼수의 종류가 늘어남
기타	부조	술 한 병, 국수 한 간 등 물건을 가지고 올림	1500원 정도 부조함	3만원 정도 부조함	물건에서 돈으로 전환
	혼기와 통혼권	10대 말, 근교에서 통혼	20대 중반, 대구 등 멀리에서도 통혼	30대 초반, 앞과 동일	혼기가 늦어지고, 통혼권이 전국화
	청첩장	청첩장 없음. 구두로 전달	청첩장으로 혼례 알림	청첩장으로 혼례 알림	
	※ 세월에 따른 변화 속에서도 사주단자와 함보내기, 폐백 드리기, 혼수품을 주고받는 풍속 등은 지속되고 있다.				

3. 회갑

회갑이란 본인의 자녀들이 그 부모의 장수(長壽)를 축하하기 위해 잔치를 베푸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수연'(壽筵) 또는 '회갑연'이라 하여 일가친척과 친한 친구들을 초대하여 술과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예로 되어 있다. 이때 회갑상을 앞에 둔 부모님께 자녀들이 술을 올리고 절을 하는데 이것을 헌수(獻壽)라 한다. 만일 회갑을 맞은 사람의 부모가 아직 생존해 있을 경우에는 그 부모 앞에도 따로 술상을 차려 놓고 회갑을 맞은 사람 내외가 먼저 부모에게 술잔을 올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헌수를 받는다. 간혹 회갑상 위에 올리는 음식들을 높이 쌓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음식을 쌓아 올리는 높이가 바로 자손들의 효심(孝心)을 나타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집에서 잔치를 했는데 회갑잔치가 열리는 날이면 풍악이 울리고 잔치판이 벌어졌다. 오늘날은 음식점에서 많이 한다. 창곡동에 거주하는 허옥희씨와 송달승씨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창곡동에서는 환갑잔치가 있는 아침에는 대청에서 조상님께 메밀국수를 만들어 제사를 지낸다. 과거에는 집에서 환갑잔치를 했기 때문에 삼신할머니께도 상을 차려서 부모님께서 오래 살게 해 달라고 빌기도 했지만, 요즘은 음식점을 빌려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허옥희의 남편이 회갑을 할 때만 하더라도 서울 정릉에 있는 '풍년각'라는 음식점이 회갑잔치 하는 장소로 유명하여 남편은 그곳에서 회갑을 했다. 그러나 1990년도까지만 해도 주로 집에서 잔치를 치른 집이 많았다.



↑ 허옥희씨 친정아버지의 회갑잔치(6.25전쟁 때이나 양재동은 전쟁의 영향이 크지 않았다 한다)



↑ 허옥희씨 남편의 회갑잔치가 열렸던 서울 풍년각 음식점. 당시 이곳은 회갑잔치 장소로 유명했다 한다(1989)

과거 가정에서 회갑을 할 때는 음식으로는 과일, 과자, 편, 쌀밥, 국수, 무 맑은 장국과 여러 음식을 장만하여 하객들과 먹었다. 회갑 때는 큰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잔을 올린 다음, 가까운 사촌들이 잔을 올리고 절을 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그리고 나면 가족들이 음식을 나눠먹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춤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허옥희씨는 모란에 있는 뷔페집에서 회갑잔치를 했다.

최근에는 노년층의 수명이 늘어나 육순잔치는 간단히 하거나 생략하고 칠순잔치를 회갑처럼 하는 경우가 많다. 간이골에 사는 송달승씨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경향을 알 수 있다. 송달승씨는 회갑잔치를 하는 것이 번거롭고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

치르지 않고 동네 친구들과 함께 자동차를 빌리고 여행경비를 조금 부담해서 4박 5일간 남해와 부산, 강릉 일대를 둘러보며 여행으로 대신했다 한다. 그는 스스로 회갑례를 치를 정도로 나이를 먹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근래에는 회갑례보다 칠순잔치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다 한다.



↑ 풍년각에서 회갑잔치에 참여한 하객들의 모습(1989)



↑ 모란에 있는 부폐지에서 행해진 허옥희씨 회갑잔치 때의 모습



↑ 〈허옥희씨 남편의 회갑 때의 방명록〉

방 명 록

번호	성명	금액
자1	김	10,500
자2	최	30,000
자3	김	10,000
자4	김	10,000
자5	홍	10,000
자6	최대영	10,000
자7	이	20,000
자8	박	임의금 30,000
자9	이	20,000
자10	이	20,000
자11	김	10,000
자12	이	20,000
자13	이	20,000
자14	홍	10,000
자15	김	10,000
자16	이	10,000
합계		330,000

후원처: 문화재단, 정기기원, 김대영회
 후원처: 후원, 대영회, 김대영회
 후원처: 고대, 후원회, 김대영회, 김대영회

↑ 〈방명록에 적힌 축의금 내역〉

4. 사례

본 마을지의 조사지역 중에서 창곡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 도시화되지 않은 자연적인 요소를 많이 간직한 마을로 행정상 5통으로 분할되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마을은 1통과 3통으로 분리되어 있는 창말이다. 창말은 남한산성을 감싸고 있는 청량산

서쪽 자락에 자리한 자연마을로 주변에는 군부대 가족들의 보금자리인 군인아파트와 군부대 사격훈련장이 맞닿아 있다. 군부대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마을주민들은 청량산의 울창한 숲과 맑은 공기 속에서 자연과 함께 살면서도 남다른 고통을 겪어왔다고 한다.¹⁹²⁾ 창말은 이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남한산성과 인접해 있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오랜 역사를 가진 자연마을이다. 이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지금은 제3노인정 회장을 맡고 있는 배진섭 회장과 서울 마장동에서 30년 전에 이사 온 이후 음식점을 운영하며 충무를 오랫동안 맡고 있는 박현규 충무를 만나 마을에서 지내왔던 장례에 대해 알아보았다.

(1) 창곡동 창말의 사례

마을에서 치러지는 장례의 일정은 대체적으로 유교식 전통장례법에 따른다고 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일일이 살펴보는 것은 않았다. 다만 지금은 많이 간소화되었지만,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유교식 전통상례절차로 그 내용을 짐작해 볼 수 있었다. 먼저 사람이 운명하면 혼이 나간 것으로 생각하여, 이 혼을 다시 불러 들여 살아나기를 바라는 초혼(招魂)을 한다. 깨어나지 않으면 사자밥을 차리고 수시를 한다. 향물로 시신을 씻기고 수의를 입히는 염습(殮襲)으로 시신처리의 과정을 끝낸다. 그리고 성복(成服)을 거쳐 발인(發靦)과 운구를 끝내고 안장을 하게 된다. 분묘를 완성하고 지내는 성분제(成墳祭), 혼을 모시고 집에 돌아와 지내는 우제(虞祭), 곡을 그칠 때 지내는 졸곡제(卒哭祭), 1·2주기에 지내는 소상(小喪)과 대상(大喪)의 순서로 상례는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죽은자는 산자와 분리되며, 매장되면서 신의 세계로 전이되는 기간인 2년을 거치고, 다음에 완전히 신의 세계로 통합되어 제례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¹⁹³⁾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염두에 두고 마을에서 있었던 장례일정 중에서 몇 가지 사항을 간추려 본다.

가. 장례일정

- 호상(護喪) 선정 : 보통 상가집과 친분이 두터운 친구나 상례를 잘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결정했다 한다. 또한 상가집 대문 앞에 사자상을 차릴 때에는 공기밥 위에 동전 몇 개를 꽂아둔다.

192) 예를 들면, 마을 주변의 사격장에서 들려오는 총소리와 군인들의 진지방어훈련 때문에 농번기에 심어 놓은 논을 손상시킨다든지, 밤늦도록 울리는 사격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든지, 사격소리에 산모가 놀라 불안한 생활을 한다든지 등의 불편을 겪기도 하였다. 그래서 주민들이 대표를 구성하여 군부대에 불편을 하소연하기도 하였는데, 그래서인지 지금은 예전보다 나아지기는 하였지만, 불편한 생활은 계속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

193) 장철수, 『한국의 관혼상제』, 집문당, 1997, 74쪽.

- **습과 염** : 습과 염을 행할 때는 깨끗한 물로 시신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정갈하게 씻기고 나서, 시신의 입에 쌀 한 숟가락 정도의 반함을 행한 후, 마을 여자들이 상가집에서 만들어 놓은 수의를 입히는데, 겹적삼에 속적삼을 끼어 넣어 한 번에 입힌다. 그리고 시신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서 두 사람이 마주보며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차례로 21군데를 묶고 입힌 후 입관한다.
- **성복과 성복제** : 입관한 후에는 친소에 따라 상복을 입고, 일반 제사 때처럼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낸다.
- **발인 전날** : 장지가 정해지면 마을청년 10여 명이 장례식 하루 전날 장지로 가서 땅을 파고 하관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발인** : 발인할 때는 관이 방에서 나올 때 방문 앞에 놓아둔 바가지를 밟고 나오는데, 이렇게 하여 관을 내온 후 상여에 올려놓고 발인제를 지낸다. 장지로 가다가 가까운 친구나 친척들의 집을 지날 때는 그 집에서 원하는 경우 준비한 음식을 차려 놓고 노제를 지낸다. 그리고 장지로 가는데 근래에는 선소리꾼의 상여소리에 맞춰 마을입구까지 운구한 후, 영구차에 옮겨 지방의 선산이나 공원묘지로 가서 장사를 지낸다.
- **하관** : 하관할 때에는 칠성판 위에 관을 내려놓은 다음 회토를 뿌려 관을 덮고, 흙다지기를 세 번에 걸쳐 달구질을 한 다음, 봉분을 만들고 잔디를 씌운다.
- **하산 후** : 초우제를 지내고 3일째 되는 날에는 삼우제를 지낸다. 근래에는 장례를 마치고 하산한 후에는 조문한 문상객과 장례를 도와준 마을 분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음식을 대접하고, 가족들은 초우제, 삼우제를 지낸 후 탈상한다. 간혹 장례식 후 100일이 되어 지내는 졸곡제를 마치고 탈상하는 집도 있으나 집집마다 사정에 따라 다르다.

나. 의례용품

- **수의** : 보통 마을 부녀자들이 상가집에 가서 직접 만들었다. 수의는 재단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 부녀자들은 하루에 걸쳐 바느질하여 만들었다고 한다. 창말에서는 허옥희씨가 바느질을 잘하여 매번 수의를 만들 때는 단골로 다녔다고 한다. 이런 일에는 바느질을 잘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 **칠성판** : 상가집에서 나무판에 일곱 개의 별을 그려 하관할 때 사용했다.
- **상여** : 해방 후에 마을에서 만들어 둔 것으로 24명이 드는 대틀이었다고 한다. 마을창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장례가 있으면 일부 손질하여 사용했으나 지금은 소실되어 없고, 상여를 보관해 두었던 창고가 마을 한쪽에 남아있다고 한다.

- **상복** : 주로 두루마기를 입었으며, 유교식 전통복제에 따랐다.

다. 이웃과의 관계

창말에서는 과거 유교식 전통장례법에 따라 3년상을 치른 경우(대략 1982년 초반까지)도 있었지만, 대개는 3일장이나 5일장을 치뤘다고 한다. 돌아가신 분이 계시면 마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품앗이를 하며 상가 일을 도왔다고 한다. 여자는 수의를 만드는 일이나, 조문객을 접대하는 음식을 만드는 일을, 남자는 돌아가신 분의 부고를 알리는 일이나, 마을에 있는 상여를 손질하여 준비하였고 장지에 가서 묘터를 잡아 땅을 파고 잔디를 씌워 봉분을 만들 때까지의 모든 일을 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마을 사람들은 제사를 지낸다거나 개인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문상을 하였고 품앗이를 통해 상가집 일을 도와주어 상주의 아픔을 위로하였다고 한다.

(2) 창말의 함진득씨 댁의 경우¹⁹⁴⁾

개별적인 사례로 함진득(67세, 남) 댁을 방문하여 과거에 지내왔던 장례모습을 알아보았다. 함진득은 어릴 때 할아버지의 장례를 지켜보았고, 장성해서는 아버지를, 그리고 10여 년 전에는 어머니의 장례를 본인이 직접 겪었는데 시간적으로는 약 20년의 간격을 두고 장례를 지켜보았다. 현재는 환갑을 훌쩍 넘어 칠순을 바라보는 노년의 나이이지만, 아직도 농사일을 돌볼 정도로 젊음이 넘친다. 지난날의 아픈 기억을 여쭙게 되어 송구스럽기도 하였지만, 그의 지나간 기억을 따라가면서 새롭게 발견한 것은 그동안 치렀던 장례의 모습들이 약간씩 차이를 보이며 변모해 왔다는 점이다. 현재 자녀들 중 일부는 고향을 떠나 서울 근교에 살고 있어 명절이나 제사가 있는 날이면 손자들과 함께 부모님을 찾아뵙고 있지만, 함진득씨 댁은 여전히 증조부 대부터 현재까지 5대가 마을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토박이 중에 토박이이다.

가. 장례의 진행과정

① 임종 직후의 절차

- **정제수시(整齊收屍)** : 임종하면 고인의 손발을 묶고 솜으로 코, 귀 등 인체에 있는 구멍을 막는다. 조부님은 음력 10월에 돌아가셨는데 안방에 모셨다. 보통은 시신이 부패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불을 떼지 않으나, 시기적으로 쌀쌀한 계절이어서 방에 불을 조금씩 떼기도 했다. 그래서 향을 많이 피웠다. 그 당시에는 지금 사용하는 인조향이 아니라 오래된 향나무의 뿌리를 말려서 만든 것으로 향 두께도 굵고 냄새도 짙어서 아주 좋았다고 한다.

194) 이것은 2005년 추석에 창말 제보자의 자택에서 김덕묵과 함께 조사한 내용임

- 사자상 : 정세수시를 하고 나면 대문 왼쪽에 망자가 신던 신발 한 켤레와 속옷, 적삼을 차려놓는다.
- 고복(卓復) : 망자의 성명을 불러 고복을 한다. 예를 들면, “양근 함께 누구누구 속적삼 가져가시오, 복 복 복”라고 외친다.
- 임종 직후의 상주복장 : 임종 직후 상주들은 두루마기를 입고 한쪽 팔만 소매에 넣고 한쪽은 등 뒤로 묶어 놓는다. 그리고 머리를 풀고 ‘통건’을 쓴다. 여자 상주들도 머리를 푼다. 이때 지팡이는 짚지 않는다. 지팡이는 정식 상복을 입는 성복제 때부터 짚는다.
- 호상(護喪, 장례준비위원장)선정 : 조부님이 돌아가셨던 1950년대는 문맹자가 많아서 부고서식도 잘 알고 글도 쓸 줄 아는, 그러면서도 여러 면에서 장례 일을 잘 아는 분을 따로 모셔다가 정했다 한다. 그 당시에 이웃에는 대략 10여 호가 있었는데, 호상은 주로 이웃주민이나 타성에서 정해 치렀다. 이웃주민과 친지들은 호상의 지시에 따라 일을 도와준다.
- 부고돌리기 : 조부님은 밤 10시경에 돌아가셔서 다음날 부고장을 만들어 부음을 알렸는데, 같은 마을사람들은 장례가 있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주로 떨어져 있는 이웃마을에 돌렸다.

② 습(襲)과 염(殮)

습과 염은 고인이 사망한 후 24시간이 지난 후에 한다.

- 습(襲 : 시신씻이기) : 향나무를 물에 넣고 다린 물에 수건을 적셔서 정갈하게 씻긴다. 그러나 근래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경우에는 알코올로 씻기셨다고 한다.
- 반함(飯含) : 시신을 씻고 나면 물에 넣어 두었던 쌀을 버드나무 숟가락을 이용하여 고인의 입에 넣어 준다. 입에 넣을 때는 “천석이요, 만석이요, 십만석이요”라고 말한다.
- 소렴(小殮 : 수의 입히기) : 반함을 한 후 수의를 입힌다. 수의는 잘 썬 삼베로 하는데, 이웃사람들(여자들)이 와서 만들어 주었다. 수의를 입힌 후 맷배 7장을 바닥에 깔고 그 위에 장례를 다시 깐 다음 시신의 체구에 맞춰서 잘라 묶는다. 그 후 서로 끈으로 연결해 놓은 다음, 세로로 7매를 묶는다. 그리고 창호지로 고깔을 만들어서 매듭 사이에 넣어서 매듭이 보이지 않게 덮는다.
- 대렴(大斂 : 입관) : 시신을 관에 넣어 뚜껑을 닫은 후 윗목에 놓고 앞은 병풍으로 가린다. 성복제 전에는 간단하게 북어포를 올려놓고, 성복제를 지낸 후에는 식사를 올리는 삭망전을 하였다.

③ 성복과 성복제

- **성복** : 입관 후 상주와 친척들은 고인과 촌수(寸數)에 맞추어 상복을 입는다. 남자 상주는 굴건제복을 입고, 여자 상주들은 상복을 입고 머리에 새끼를 두른다. 그리고 남자가 사망했을 때는 대나무 지팡이(喪杖), 여자가 사망했을 때는 버드나무 지팡이를 짚는다.
- **성복제** : 상복을 입은 상주들은 성복제를 지낸다. 성복제는 일반 기제사 때와 같이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며 절차도 동일하다. 성복제를 지낸 후부터 상주가 서있는 곳 바닥에 짚으로 만든 자리를 깔고 앞에는 짚베개를 설치해 놓는다.
- **상식 올리기** : 성복제를 지내고 나면 문상객을 받으며 조석으로 망자 앞에 식사를 올린다. 음식은 평소에 먹는 음식과 동일하다.

④ 출상(발인)

- **호상놀이** : 근래에는 볼 수 없으나 해방 전에는 '호상놀이'가 있었다. 제보자는 호상놀이를 생전에 한 번 보았다고 하는데, 과거 이웃마을에서 오래 살다가 돌아가신 분의 집에서 하는 것을 보았다 한다. 당시 빈상여를 가지고 마당과 집 주변을 돌면서 놀았다.
- **관이 방에서 나올 때의 풍속** : 출상하는 날이 되면 상식을 올리고 나서 시간이 되면 관을 방에서 내놓는다. 이 때 관을 장항틀에 메어 몇 명이서 들고 머리부분을 방의 네 귀퉁이로 돌리면서 절을 시킨 후 방 문턱 앞에 바가지를 얹어 놓고 앞에 선 사람이 바가지를 밟아 깨뜨리고 나온다. 그리고 상여에 올리고 발인제를 지낸다.
- **상여 떠날 때의 풍속** : 상두꾼들이 각자 정해진 자리에 서서 상여를 들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무릎을 굽혀 상여가 집을 보고 세 번 절하도록 한다. 이 때 상주들은 상여 맞은편에 서서 상여에 절을 한다. 상여를 메고 절을 할 때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상두꾼들은 상여를 메기 전에 키가 적은 사람은 앞에, 키가 큰 사람은 뒤에 서서 상여를 들고 절을 한다.
- **상여 출발시 대열순서** : 상여가 장지로 떠날 때는 명정, 공포, 가주, 상여, 상주 일행, 만장 순으로 대열을 갖추어 가며, 선소리꾼은 상여 앞에서 북을 치며 상여 소리를 한다. 선소리꾼은 주로 '오~ 호~' 소리를 내었다.
- **노제** : 상여를 메고 가는 도중에 가까운 친지들의 집에 이르면 그 집에서 원하는 경우 노제를 지낸다.

⑤ 장지에서의 절차

- **묘터잡기와 땅파기** : 묘터는 사망하기 전에 미리 잡아놓는 경우도 있고, 임종 후 상주가 지관에게 의뢰하여 잡는 경우도 있다. 조부님의 경우에는 동네사람들이 당일 조금 일찍 올라가서 땅을 파놓았다. 왜냐하면 전에 올라가서 미리 만들어 놓으면, 산짐승들이 몰래 와서 묘터를 불결하게 해놓을까 염려되어서이다. 땅을 파기 전에 염습하는 것을 보지 않은 깨끗한 사람이 먼저 산신제를 지낸다. 구덩이를 팔 때는 ‘겉광’을 넓게 판 후, 그 안에 다시 ‘내광’을 파서 관이 들어갈 수 있게 한다.
- **하관 전** : 상여가 장지에 도달하면 묘터 옆에 상여를 놓고, 주변에 ‘제청막(빈소)’을 설치한 후 조객을 받는다.
- **하관** : 정해진 시간이 되면 관을 구덩이에 넣는다. 이때 관을 통째로 넣는 경우와 관속에 있는 시신만 꺼내어 넣는 경우가 있는데 조부님의 경우에는 기억나지 않는다. 하관할 때는 나무판의 결을 보고 상하를 표시한 칠성판을 바닥에 놓고 그 위에 시신을 올려놓는다. 시신을 내광에 모시고 나면 흙을 다지고 지관이 동서남북을 표시한 판을 그 위에 묻는다. 하관할 때는 ‘피생’이라고 하여 하관 시간과 생기복덕이 맞지 않는 사람은 자리를 피하는데, 이것은 요즘도 반드시 거린다. 하관한 후 영정을 관 위에 깔고, ‘홍대’라고 하여 나무토막을 홀수(5개 또는 7개 정도)로 관 가장자리에 꽂는다.(또는 관위에 올려놓는다. 지금은 네 귀퉁이에 병을 둔다는 사람도 있다 한다.) 아버님 때는 옷나무로 만든 홍대를 썼는데, 이장할 때 그대로 있어 아버님의 시신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 **회단이** : 홍대를 깬 후, 인부들이 회와 흙에 물을 부어 버무려 놓으면 상주들이 먼저 한 삽씩 넣은 후 인부들이 회와 흙을 넣어 회단이를 한다. 회단이는 보통 ‘내광’을 다질 때와 ‘겉광’을 다질 때, 그리고 분묘를 만들 때 3회 정도 반복한다. 회단이를 할 때는 인부들이 막대기를 들고 ‘에어리 달고’하면서 선소리꾼의 소리에 맞추어 한다. 아버님의 경우에는 회단이를 잘한 덕택에 탈골이 잘 되었다고 한다.
- **평토제** : 묘봉을 만들고 위에 잔디를 입히면 축문을 읽고 평토제를 지냈다.

⑥ 하산 때와 그 후의 절차

- **상주일행을 집에서 맞이할 때의 풍속** : 상주는 산에서 내려올 때 장지로 가던 길로 내려오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서 온다. 상주일행들이 집으로 오면 여자 상주들은 대문 밖으로 나가 상주일행을 맞이하며 ‘아이고, 아이고’하면서 곡을 한

다. 하지만, 조부님 때는 여자(며느리, 딸)들도 함께 갔다고 한다.

- **영좌(빈소)설치** : 출상한 다음에 대청에 영좌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바닥에는 짚으로 엮은 섶을 깔고 제사를 지냈다.
- **초우제와 자리견이** : 장지에서 상주일행이 돌아오면 곧이어 상청에서 반혼제를 지낸다. 반혼제를 지낸 후에는 만신(무당)이 와서 '자리견이'를 한다. 자리견이 비용은 초상 때 들어온 부조금으로 충당하는데 과거에는 이 때 자리견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자리견이는 망자의 극락왕생을 빌고 장례식에 온 모든 사람들이 상문살 없이 편안하라고 한다. 자리견이를 마치면 늦은 저녁이 되는데, 그 다음날부터는 아침, 저녁으로 곡을 하면서 상식을 올렸다.
- **상식과 삭망(朔望)** : 상청을 탈상하기 전까지 조석(朝夕)으로 상청에 평소와 같이 식사를 올리고 삭망(매달 초하루와 보름)에는 기제사와 같이 제물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는데, 곡을 했다.
- **삼우제(三虞祭)** : 장례식 후 3일이 되면 오전에 집에서 제를 지내고 산소에 가서 다시 제를 지낸다.
- **졸곡제(卒哭祭)** : 어머님 상을 치를 때까지 이 집에서는 졸곡제를 지냈다.
- **소상** : 망자가 사망한 후 1년이 되면 '소상'이라 하여 제사를 크게 지낸다.
- **대상** : 망자가 사망한 후 2년이 되면 '대상'이라 하여 제사를 크게 지낸다. 대상 후에는 매년 기일에 기제사를 드린다. 조부님 때는 대상을 상청에서 지내면서 탈상할 때까지 상식을 올렸는데, 상청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했다.
- **탈상** : 과거에는 대상을 지낸 후 상복을 벗고 상청을 철거(탈상)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근래에는 삼우제를 지낸 후 곧바로 탈상하는 경우가 많다.

나. 의례용품

- **수의** : 수의는 잘 썬 삼베로 만들며, 부유한 집에서는 생전에 미리 만들어 두지만 대개는 임종직후 이웃사람들(여자들)이 와서 만들어 주었는데, 경제적인 이유로 과거에는 미리 만들어 놓는 집이 없었다.
- **칠성판** : 임종이 가까워 오면 '칠성판'이라 하여 망자의 신체를 올려놓을 수 있을 정도의 길이가 되는 송판을 준비해 놓는다.
- **상여** : 24명이 드는 큰 상여였는데, 현재는 없어지고 상여를 보관하던 창고만 남아 있다.
- **상복** : 임종 직후 상주들은 두루마기를 입고 한쪽 팔만 소매에 넣고 한 쪽은 등 뒤로 묶어 놓는다. 그리고 머리를 풀고 '통건'을 쓴다. 여자 상주들도 머리를 푼다.

입관 후 성복제를 지낼 때 상주와 친척들은 고인과의 촌수에 따라 정해진 상복을 입는다. 남자 상주는 굴건제복을 입고, 여상주들은 상복을 입고 머리에 새끼를 두른다. 그리고 남자가 사망했을 때는 대나무 지팡이(喪杖), 여자가 사망했을 때는 버드나무 지팡이를 짚는다.

다. 이웃과의 관계(사회적 측면)

- **부조** : 조부님의 경우에는 이웃집에서 술, 떡, 두부, 팔죽 등을 해 가지고 왔다. 이웃끼리 서로 가지고 가면 초상집에서는 호상이 부의록에 전부 기록해 두며, 이 때 가지고 간 음식은 장례준비를 위한 물품을 만들거나 밥상을 하면서 먹는다. 부모님 장례 때의 경우에는 현물대신 점차 화폐사용이 많아지면서 부조도 현금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성복제를 지낼 때까지는 이웃에서 품앗이로 만들어 온 팔죽(대략 10여 동이)을 나누어 먹었다.
- **부고장 만들기** : 제보자는 군대행정요원으로 복무했을 때 등사하는 일을 배웠는데, 이 일로 해서 마을에 장례가 있을 때면, 부고장을 직접 만들어 이웃 마을에 부음을 알리기도 했다. 그래서 신문에 부고장이 나면 관심 있게 봐두었다고 한다. 이외에도 많은 일들을 맡아서 일을 도왔다고 한다. 전화가 개통된 후에는 부고장을 쓰는 일이 많이 줄었지만, 제보자의 어머니는 아들이 상가집에 자주 가서 일을 도와주는 것을 싫어하셨다고 한다.
- **상가집에 가지 않는 사람** : 그 해 상문이 든 사람, 자식 혼례식을 앞둔 사람, 부인이 출산을 앞둔 사람, 가까운 날에 자기집에 제사가 있는 사람은 상가집에 가지 않는다.
- **상가집에 다녀올 때의 풍속** : 상문살이 들지 말라고 계장의 큰다리를 잘라 주머니에 넣고 가서 올 때 버리고 온다.
- **상두꾼** : 정해진 상두꾼은 없으며 창말의 경우 마을에 거주하는 남자들이 상여를 맨다.
- **상두꾼 대접** : 조부님의 경우에는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는 정도였지만, 아버님 때는 담배를 사다가 대접했다. 그러다가 어머님 때에는 일정한 액수의 현금으로 대접하게 되었는데, 상두꾼들은 이 때 받는 돈을 간혹 상이나 그릇, 채를 만들거나 공동물품을 구입하는데 드는 마을기금으로 내놓기도 하지만, 전부가 아닌 일부만 내놓기도 한다.
- **풍수(지관)** : 묘터를 잡을 때 풍수를 불러 좋은 자리를 잡는다. 근래 이 때 드는 비용은 대략 30만원 정도이다.

라. 장례의 변화

- **장례일정** : 조부님은 1956년에 84세로 돌아가셨는데 5일장을 지낸 후, 3년상을 치렀다. 아버님은 1974년도에 74세로 돌아가셨는데, 3일장을 지낸 후 1년상을 치렀다. 그리고 어머님은 93세에 돌아가셨는데, 3일장을 지낸 후, 100일 후에 탈상하였다. 가까운 친척들 중에는 절에 모신 후, 49제를 지내고 탈상하기도 하였다.
- **상여 이용** : 조부님과 아버님의 경우에는 마을에 있는 대상여를 이용하여 산너머에 있는 묘소까지 운구했지만, 어머님의 경우에는 마을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상여가 파손되어 쓸 수도 없었고, 또한 당시에 마을 뒷산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산소를 만들 수도 없었다. 그래서 마을에 있었던 상여도 쓸모없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하여튼 병원의 영구차가 앞마당까지 들어와서 관을 모시고 나갔다.
- **상여꾼에 주는 노자돈** : 조부님의 경우에는 특별히 준비했던 것이 없었는데, 아버님의 경우에는 집에서 담배를 사다가 준비해서 돌렸다. 그러나 어머님의 경우에는 상여꾼이 요구하는 관계로 현금을 준비해서 돌렸다.
- **자리걸이** : 조부님과 부모님의 장례 때 모두 자리걸이를 했다.
- **수의 준비** : 조부님과 아버님의 경우에는 마을 분들이 오셔서 팔죽을 먹으며, 수의를 만들어 주었지만, 어머님의 경우에는 손수 수의를 만들어 보관하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어머님께서 오래 살다 가신 것 같다.
- **부의금** : 조부님의 경우에는 팔죽, 막걸리, 음식 등의 현물이나 품앗이로 부조를 했는데, 아버님의 경우에는 보통 1~2백원, 사위의 경우에는 5백원 정도를 부의금으로 받았던 것 같고, 어머님의 경우에는 2만원에서 3만원 정도의 부의금을 받은 것 같다. 그리고 수의를 만들 때 아주머니들이 잡숫던 팔죽은 이웃에게 해준 일이 없어서 받은 적이 없었던 것 같다.
- **묘소관리** : 매장만 하고 관리를 하지 못할 바에 공원묘지에 가족묘역을 만들어 자손들에게 관리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근래에 가족들이 회비를 모아 화성군 마두면에 가족납골묘역을 만들어 놓았다. 이 마을에서는 이 집만 현재 납골당을 설치하였으며 다른 집들은 지금도 매장을 하고 있다.

〈상례의 변화〉

내 용	조부님(84세卒, 1957)	아버님(74세卒, 1974)	어머님(93세卒, 1996)	비고
장례일정	5일장 후 3년 탈상	3일장 후 1년 탈상	3일장 후 100일 탈상	
부음전달방법	부고장	부고장·전화	전화	
염습	향나무를 우린 향물	향나무를 우린 향물	알코올	
이웃의 부조	팔죽, 막걸리 등의 현물이나 품앗이	문상객은 현금 1~2백원, 가까운 친척들은 5백원 정도	문상객은 현금 2~3만원	
자리건이	했음	했음	했음	
상여이용	마을의 대상여	마을의 대상여/ 마을 앞길을 돌아서 뒷산으로 올라갔다고 함 ¹⁹⁵⁾	마을의 영구차/ 마을 뒷산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산소를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생각됨.	
상두꾼품삿	없었다	담배	현금	
묘소형태	산소	산소→이장→가족묘역	가족묘역	

(3) 태평동 예일병원의 경우¹⁹⁶⁾

태평동은 성남시로 승격된 이후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도시계획에 따라 주거공간이 밀집된 마을로 변모된 이래, 서울과 성남 및 주변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유동인구가 많아졌고 일상의 바쁜 도시 생활로 인해 장례식에 있어서도 간소화된 현대식 장례를 치르고 있다. 장례일정은 보통 3일장을 치르는 경우가 많은데, 태평동에서는 주로 인근병원의 장례식장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성남에 위치한 경우에는 태평4동에 있는 예일병원이나 분당의 재생병원과 차병원에 있는 장례식장을 이용하고 있다. 여기서는 태평4동에 있는 예일병원 내의 장례식장을 통해 장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¹⁹⁷⁾ 알아보았다.

(1) 사망 당일

예일병원 내에 있는 장례식장은 병원과는 다른 사업체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폐업중인 예일병원의 상황과는 관계없이 장례업무가 진행되고 있다. 예일병원 내의

195) 1통노인회 회장인 박상렬의 장남(박동로, 43세, 남)은 어렸을 때 마을뒷산으로 상여가 갈 때 마을 앞길을 돌아서 뒷산으로 올라갔다고 옛 기억을 말해 주었다.

196) 예일병원 장례식장 이용안내 팸플릿과 성남시사편찬위원회, 『성남시사 1』, 2장, 평생의례 중 「현대의 상장례 절차」, 2004, 555~560쪽

197)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장례절차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종철 부장과 염사를 담당하고 있는 김현호를 만나 자세한 설명을 듣게 되었다.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주민들 대부분은 타병원이나 자택 또는 기타 지역에서 돌아가신 후 장례식장에 연락하여 모셔오게 되는 경우가 많다.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전화접수를 받게 되면 장례식장에서는 고인을 운구할 수 있는 차량과 직원 두 명을 보내어 병원으로 모셔오게 되는데, 이때에는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병사로 돌아가신 분의 경우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를 발급받아 원무과에 제출해야 하며, 외인사, 기타 및 불상으로 돌아가신 경우에는 검시필증 1부를 첨부하여 원무과에 제출해야 한다. 접수가 되면 장례식장 직원과 유가족이 같이 안치실의 호실을 확인하고 분향실을 결정하여 조문객을 맞을 준비를 하게 된다. 상주는 입관, 발인, 화장, 묘지선정 등의 장례일정과 방법에 대해 담당자와 논의하며, 영정사진과 분향실의 장식, 분향실 차림 및 상주들이 입을 상복과 수의와 입관에 쓸 관 등의 장의용품을 장례식장에 마련된 물품을 보고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가까운 친지들과 직장동료에게 부음을 알리게 된다.

오늘날의 상례에서는 가정 및 병원을 막론하고 호상(護喪)의 역할은 부의금을 접수하며 상례에 소요되는 지출을 담당하며, 이를 정산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다. 특히 병원 장례식장의 경우 굳이 호상의 안내를 받지 않아도 영좌를 찾는 데 어렵지 않도록 공간이 배치되어 있으며, 별도로 문상객의 안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가 많다.

문상객이 먹을 음식을 나르는 일은 상주의 친척 여성들이 주로 담당한다. 음식은 육개장, 북어국, 무우국을 주 메뉴로 하여 모듬전, 수육, 홍어무침, 북어찜의 안주류와 오징어채, 땅콩 등의 마른안주, 그리고 떡과 과일, 김치 등의 찬을 대접한다. 영안실 측에서 미리 정해 둔 식단 2~3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기도 한다. 음식은 대부분의 경우 식당 요리부에서 직접 만들어 공급하고 있으며, 장지에서 필요한 제물, 식사, 도시락 등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조문객을 대접하는 일(식당보조, 조문객 안내 및 접수)에 일손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면 사무실에서 모든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2) 이틀째

사망한 다음날 이틀째에는 염습을 하게 되는데, 염습을 마친 다음에는 바로 입관하게 된다. 입관은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진행되지만, 보통은 조문객이 없는 오전 시간대에 진행된다. 그러나 입관 당일 상주 가족들이 빈소에 도착하는 시간이 늦어지거나, 다른 상가들과의 염습일정을 고려하여 유가족이나 상주와 일정을 조정하는 과정에 따라 오후 늦게 진행되기도 한다. 그리고 입관 전에는 반드시 사망진단서(병사) 또는 사체 검안서와 검시필증(사고사)을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입관에 필요한

장의용품(관, 수의, 부속물 등)을 미리 선정하여 준비해 두어야 염습에 차질이 없게 된다. 입관을 마친 후에는 남자는 상복을 갈아입고 완장을 착용하여 상주됨을 표시하고, 여자는 흰색의 치마와 저고리를 입어 상례를 치르게 된다. 성복제는 유족들의 종교에 따라 기독교식이나 불교식으로 치르기도 한다. 또한 이 날에는 다음날 발인 때에 쓰게 될 물품과 장의차량의 배차시간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하며, 장례식장 이용에 따른 각종 비용도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염습의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염습을 담당하는 사람을 '염사'라고 하는데, 2인 1조로 진행된다. 염사는 염습시간이 되면 염치실에서 준비를 마치고 유족 및 친지들을 참관하도록 하는데 이때, 염사는 가족들에게 혹시라도 있을 핸드폰 소음을 사전에 제거하게 하거나, 고성방가를 삼가도록 하는 등의 주의사항을 일러주어 엄숙한 분위기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한다. 염치실 안에는 대형 통유리가 있어, 유족 및 가까운 친척은 염치실 안쪽으로 들어가 직접 참관할 수 있으며, 참관자가 많을 경우 촌수나 친분관계가 상대적으로 먼 사람들은 유리 너머에서 지켜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유리 안쪽은 6,7명 정도의 인원이 참관 가능할 정도의 공간이다. 따라서 자손이 많을 경우에는 유족 중 일부도 유리를 통해 참관할 수도 있다.

염사는 섭씨 5℃내외로 보관되던 유해가 염상으로 모셔지고, 유해를 덮고 있던 흰 천을 걷어 내면서 알코올을 적신 솜으로 얼굴부터 발끝까지 몇 차례 반복해서 시신의 상태에 따라 정갈하게 닦는다. 순서는 얼굴, 팔, 상체, 하체로 하며, 왼쪽을 먼저 닦은 후 오른쪽을 닦는다. 특히 얼굴부분은 머리를 감긴 후에 남자의 경우는 면도를 하기도 하고, 여자의 경우는 얼굴화장을 곱게 하여 몸가짐을 깨끗하게 한다. 염습이 완료되면 발끝부터 위로 수의를 입히는데, 미리 겹옷 안에 속옷을 넣어 두어 손쉽게 입힐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손에는 악수를, 발에는 버선을 신긴다. 수의를 입히면 유족들이 망자와 마지막으로 대면하면서 곡을 하는 시간을 갖는데, 이때는 유가족들의 종교에 따라 깨끗한 상태에서 보게 한다. 그리고 상주가 '반함'을 하는데, 염사는 상주의 손을 잡고 엽전(구리로 만든 돈)을 고인의 가슴속에 넣게 하는데, 이때 염사는 엽전 하나씩을 넣을 때마다 "천 석이요, 이천 석이요, 삼천 석이요"라고 외친다. 반함을 끝내면 염사는 "이제 얼굴을 가리겠습니다."라고 유가족들에게 말한 후, 깨끗한 탈지면으로 입 모양을 오려내서 얼굴을 감싼 후 면모를 씌운다. 이를 세 번 반복한 후, 바로 '소렴'을 한다.

소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지로 묶고 몸 전체를 삼베 한 필(20자)로 묶는다. 이 때 시신은 최대한 바르게 펴야 한다. 소렴이 끝나면 바로 '대렴'을 치른다. 대렴포로 시신을 21군데 묶게 되는데, 관 모양과 흡사하도록 네모에 가깝게 만들기 때문에 목 주변이

나 다리 사이에 톱밥이나 종이 등으로 보공을 한다. 대렴표로 묶고 나서 관 안에 한지를 깔고 양쪽에서 유해를 들어 관에 옮긴 후¹⁹⁸⁾ 관의 빈 공간에 심을 뺀 종이를 넣어 보공한다. 보공이 완료되면 관 뚜껑을 덮고 영구를 묶은 후 준비한 명정을 덮은 다음 보관실로 옮긴다.

염습과 입관을 마치면, 유족들을 빈소로 가서 상복을 입게 된다.¹⁹⁹⁾ 남자는 검정색 양복에 완장을 오른쪽에 차기도 하며, 여자는 흰색 저고리와 치마를 입지만, 종교(기독교와 천주교)에 따라서는 검정색을 입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통식 흰색 상복을 입기도 한다. 상복을 갖춰 입고 나면 조문객을 받는다.

(3) 3일째

성복제를 올리고 조문객을 받은 다음날에는 발인을 하고 장지로 출발하게 된다. 발인에 앞서 시신을 인수할 때에는 유가족 중 한사람이 직원과 동행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준비된 장의차량에 운구하는데, 장지로 출발하기 전에 영구 앞에 간단한 제물을 차려 놓고 '발인제'를 갖는다. 이때 올리는 음식은 식당에서 준비해 준다. 장지에 도착한 후에는 산신제, 평토제, 성분제, 반혼의 의식을 행하지만, 유족이나 고인의 종교에 따라 달리 지내기도 한다. 장지는 주로 매장인 경우는 고인의 선산이나 공원 묘지로 출발하게 되며, 화장인 경우에는 남현동의 화장터를 거친 후 성남 영생사업소에 있는 '납골묘'에 모시게 된다.

5. 제례

제례는 원래 신과 인간의 세계를 매개시켜 주던 종교행위로서, 반드시 사제자에 의해서 주재되어 왔다. 그러나 조상숭배 사상이 보편화됨에 따라 죽은 조상이 신으로 추앙되면서 제례는 널리 일반에게까지 시행되기 시작한 것 같다. 그러한 과정에서 사제자의 역할은 종손이 제사 때에만 임시로 맡게 된 것으로 바뀌었다. 즉 종손은 비직업적 사제자인 셈이다. 그러므로 제례는 삶과 죽음의 세계를 매개시켜 주는 상징적인 종교행위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조상의 제사는 그 내용에 따라 다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198) 이 때 염사는 "입관이요"라고 외친다.

199) 근래에는 고인이 임종하면 유족들이 먼저 상복을 입고 문상객을 받는다 하면, 또는 먼저 상복을 입고 입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예법에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담당자는 말하였다. 전통상례에 따르면, 성복제를 치르기 전까지는 고인을 산사람으로 보는 입장이어서 이러한 관점에 비추어 보면 일리가 있다고 여겨진다.

하여 가장 이른 시간인 0시에 4대 조상을 범위로 제청에서 모시는 '기제사', 명절이나 일정한 절기에 4대 조상을 범위로 낮에 사당에서 올리는 '차례', 그리고 4대조 이상의 모든 조상을 대상으로 묘소에서 1년에 한 번씩 낮에 올리는 '시제'가 그것이다. 이 기제사는 후손인 우리들을 창조하신 신의 탄생일, 즉 돌아가신 날을 축하하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차례는 곡물의 성장과 풍요를 기원하는 사계절의 농업적 종교의식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또한 시제도 추수감사제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²⁰⁰⁾ 하지만, 오늘날 행해지는 제례의 모습은 과거의 모습 그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지역마다 집집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화되고 산업화된 그리고 정보사회로 치달리고 있는 변화 속에서 제례의 양상은 시간적·공간적인 차이를 넘어서고 있다. 그것은 제례 형식에서 뿐만 아니라 제례가 행해지는 공간에서도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행해지는 제례 양상들이 모두 예법에 어긋난다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일련의 변화 속에서도 변화지 않는 전통(원리)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마을지의 조사지역인 창곡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요소가 공존하는 공간이다. 현대적인 요소는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던 농촌마을이 도시화된 주변지역의 영향으로 도시풍의 전원마을로 변모해 가고 있는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통적인 요소는 변화된 마을전경 속에서도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전통가옥과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고향마을을 가꾸며 살아가고 있는 토박이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 젊고 건장했던 청년시절을 창말에서 보냈던 어른들의 희미해진 기억과 입담 속에서나마 전통적인 제례의 모습을 찾고자 한다.

먼저 창말의 1통 노인회 회장이신 박상렬(78세, 남) 통장의 안내로 조귀현(86세, 남)씨 댁을 방문하여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지를 알아보게 되었다. 현재 조귀현은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도 유지하고 어려서부터 익혔던 붓글씨도 더 익힐 겸 서울로 다닐 정도로 원기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지금 살고 계신 집은 3년 전에 새로 지은 것이라고 하는데, 추석명절을 맞아 연락도 없이 갑자기 방문을 드렸는데도 번거롭게 여기지 않고 맞이하여 주었다. 마침 마루에는 가족식구들이 제사를 마치고 난 후 오순도순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조귀현의 본관은 창녕 조씨로 현재 4대째 거주해 오고 있으며, 큰아버님에게 아들이 없어서 장남인 본인이 양자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조귀현씨 댁의 가족은 조상제사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일찍 사별한 동생의 제사까지

200) 장철수, 『韓國의 冠婚喪祭』, 집문당, 1997, 75~76쪽.

도맡아 지내고 있어 다른 집보다 많은 제사를 지내고 있다.

(1) 조귀현씨 댁의 경우

가. 차례²⁰¹⁾

- 봉사대상 : 고조부님, 증조부님, 조부님, 부모님 대까지 4대를 모시고 있다.
- 시기 : 설, 추석에 차례를 지낸다.
- 장소(祭場) : 보통 마루에서 차례를 지낸다. 2층에 있는 마루가 밝고 넓어서 가족들이 모여 제사를 지내기에 알맞은 장소이기 때문이다.
- 참가자 : 8촌 이내의 가족들이 모여, 가까이 사는 경우 기제와 차례 때 함께 제를 지낸다. 차례 때는 여러 집에서 제를 지내므로 큰집인 조귀현씨 댁에서는 이른 시간에 차례를 지낸다.
- 제물진설 : 설에는 떡국, 과일, 전, 적(魚炙, 肉炙, 鷄炙), 탕(북어탕, 두부와 무를 넣고 끓인 탕, 소고기탕), 나물, 북어포, 산자, 약과, 다식, 청주를 올린다. 추석에는 떡국 대신 햇쌀로 빻은 송편과 토란과 쇠고기, 다시마를 넣고 끓인 국을 올리는 것 외에는 설과 차이가 없다.
- 절차 : 설과 추석 때의 차례절차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인 유교식 예법에 따라 지낸다. 일반적인 유교식 예법에 따른 차례의 순서는 대체로 (神位奉安), 진설(陳設), 분향강신(焚香降神), 헌작(獻爵 : 초헌, 아헌, 종헌), 재배(再拜), 개반삼시정저(開飯插匙正箸), 합문(闔門, 병풍을 가림), 부복(俯伏), 첨작(添酌 : 종헌관이 잔을 올릴 때 반잔만 채우는데 나중에 이곳에 가득 술을 채움), 재배, 헌다(獻茶 : 송능을 올림), 철상(撤床) 순으로 진행된다.²⁰²⁾ 또한 차례 때는 축문은 읽지 않는다. 그리고 집집마다 가풍이 있고 마을마다 특색이 있듯이, 일반적인 유교식 예법을 중시하나, 꼭 이에 따르는 것은 아니다.

201) 오늘날의 차례는 사당 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가례』에 의하면 조상의 신주를 모신 사당에서는 정월 초하루, 동지,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참배하는 제사가 있다. 이들 중에서 매월 보름에는 술잔을 차리지 않고 찻잔만을 올리게 되어 있다. 제사 중에서 가장 간략한 이 보름의 사당 참배에서 '차(茶)를 올리는 예(禮)'라 하여 차례(茶禮)가 유래된 것으로 짐작된다. 또 사당의 제사 가운데서 민속 명절에 올리는 제사에는 그 명절에 먹는 특별한 계절식을 올리는 것이 관례였다. 결국 사당에 올리는 차례는 설, 동지, 매월 초하루와 보름, 그리고 각종 명절에 지내던 것을 합하면 1년에 무려 30여 회에 이른다. 근래에는 사당이 사라지게 되어 이 차례가 바로 명절의 제사로 남게 된 것이다. 명절의 차례도 옛날과는 달리 설과 추석 두 번만 남게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지내고 있는 차례는 사당 예법의 유습이 정착된 것이라고 하겠다(이영준, 『차례와 제사』, 대원사, 2005(10쇄), 215~216쪽).

202) 또는 (1)재계, (2)제상과 집기의 설치, (3)제수 준비, (4)제복 입고 정렬하기, (5)제상 차리기, (6)신위봉안 (7)신 내리기, (8)합동 참배, (9)제찬 올리기, (10)잔 올리기, (11)식사 권유, (12)수저 걷기, (13) 합동 배례, (14) 신주 들어 모시기, (15) 제상 정리, (16) 음식 나누기 순으로 진행된다(위의 책, 217~220쪽).

나. 기제²⁰³⁾

- **봉사대상** : 선대로는 4대조까지, 그리고 부모님과 동생 및 삼촌을 모신다고 한다. 다른 집안보다 많은 제사를 지내는 것은 출계(出系)로 인한 내력 때문인데, 조귀현은 본인이 있을 동안에는 조상님 제사를 지내겠지만, 후손들에게 꼭 강요하지는 않겠다고 하여 후손들에게 많은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는 배려의 말이 있었다.
- **시기** : 조상이 사망한 날을 기일로 하여 제를 지낸다. 원래 기제는 사망한 날에서 가장 빠른 시간인 자시(밤11시~새벽1시 사이)에 지내는 것이 원칙이나 근래에는 편의상 초저녁에 지낸다. 그러나 조귀현 댁에서는 시속(時俗)을 따르기보다는 예법에 따라 지내는 것이 좋다고 하여 밤 12시에 맞춰 제사를 지낸다.
- **장소** : 차례 때와 마찬가지로 마루에서 지낸다.
- **참가자** : 인근에 사는 8촌내 후손들이 참석한다.
- **제물진설** : 기제 때는 메(밥)와 갱(무우와 두부를 넣고 끓인 맑은 국을 올린다. 제사에는 토장국과 같이 흐린 국을 올리지 않음), 편(위에 고물을 얹음), 과일, 전, 적(魚炙, 肉炙, 鷄炙), 탕(북어탕, 두부와 무를 넣고 끓인 탕, 소고기탕), 나물, 북어포, 산자, 약과, 다식, 청주를 올린다. 제수는 여자(며느리와 딸)들이 준비하지만, 형편에 따라 정성껏 준비하게 하며, 특히 과일은 큰 것보다는 작더라도 야무지고 잘 익은 것을 골라 올린다.
- **절차** : 제를 지내는 순서는 차례 때와 동일하나 제사 전날 목욕제계를 하여 몸과 마음을 정성스럽게 한 후, 한복에 두루마기를 입고 제사를 대한다. 차례 때는 축문을 읽지 않지만, 기제 때는 초헌한 후에 축문을 읽는다.

(2) 함진득씨 댁의 경우

조귀현씨 댁을 방문하기 전에, 큰 아드님(조규상 :45, 남)을 우연히 만나 함진득씨 댁(67, 남)을 알게 되었다. 큰아드님은 차례를 마치고 창말 뒷산으로 나들이를 가던 참이었다. 한낮의 햇볕이 내리쬐는 길가에서 창말의 풍수를 여쭙보니 삼형제골, 다람쥐골, 절골, 잣골과 같다는 말이 있었다고 일러 주었고, 어떤 풍수가의 말을 빌어, 마을 뒷산

203) 기일제사는 보통 '기제사' 또는 '기제'로 약칭되고 있다. 기일이란 돌아가신 날을 말한다. 따라서 기제사는 돌아가신 날의 제사란 뜻으로, 조상이 돌아가신 당일에 지내는 제사이다. 제사는 이날 첫새벽 곧 닭이 울기 전에 행하는데, 보통 밤 0시가 지나 새날이 시작되면 행한다. 제사를 한밤중에 행하는 것은 귀신이 음도를 따르므로 고요하고 그윽한 시간에 거동하는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며 또, 제사를 그날의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것에 우선해서 행한다는 의미가 있었다. 그 전날은 입제일(入祭日)이라 하여 제사에 들어가는 날로 제구와 제기를 정비하고 제찬을 준비하는 날이다. 제사를 지낸 당일은 파제일(罷祭日)이라고도 부르는데, 흔히 친지와 이웃을 초대하여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는데(위의 책, 112쪽, 188쪽).

이 청량산을 가리고 있어, 부귀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여 주변마을 보다 개발이 늦게 되는 것 같다고 하였다. 그러나 창말 입구에 있는 부동산에 의하면 창말의 땅값은 이미 서울 부자동네의 땅값과 비슷할 정도로 시세가 많이 올라 있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언제 개발이 되느냐하는 시간문제인 것 같았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창말의 변화는 앞산의 영장산 자락이 이미 터널공사로 한쪽이 잘려 없어진 것보다는 오히려 뒷산의 풍수가 어떠하더라도 창말의 정취를 더해주는 지금이 나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조사자는 해 보았다.

함진득씨 댁을 찾아갔을 때는 이미 저녁이 될 즈음이었다. 앞마당에서 할머니와 함께 차례에 올린 토란줄기를 다듬고 계셨는데, 창말에서 태어나고 자란 분이라는 말을 듣고 찾아왔다고 하니, 흔쾌히 집안으로 안내해 주었다.

가. 차례

- **봉사대상** : 증조부님, 조부님, 부모님 3대를 모시고 있다.
- **시기** : 설, 추석에 차례를 지낸다. 추석에는 아침 7시 전후에 제사를 지내고 가족 묘지에 다녀오는데, 보통 승합차를 이용해 4촌내의 남자들만 갔다 왔다고 한다. 또한 경춘공원묘지에 가족납골묘역(32기)을 만들어 놓아 가족모임을 통해 찾아보고 있다고 하였다.
- **장소(祭場)** : 안채와 마루에서 차례를 지낸다.
- **참가자** : 8촌 이내의 가족들이 모여, 가까이 사는 경우 기제와 차례 때 함께 제를 지낸다. 차례 때는 여러 집에서 제를 지내므로 큰집부터 먼저 제를 지내고 기차들의 집으로 간다.
- **제물진설** : 설에는 떡국, 과일, 전, 적(魚炙, 肉炙, 鷄炙), 탕(북어탕, 두부와 무를 넣고 끓인 탕, 소고기탕), 나물, 북어포, 산자, 약과, 다식, 청주를 올린다. 추석에는 떡국 대신 햇쌀로 빻은 송편과 토란과 쇠고기, 다시마를 넣고 끓인 국을 올리는 것 외에는 설과 차이가 없다.
- **절차** : 설과 추석 때의 차례절차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인 유교식 예법에 따라 지낸다 한다. 차례의 순서는 대체로 신위봉안(神位奉安), 진설(陳設), 분향강신(焚香降神), 헌작(獻爵 : 초헌, 아헌, 종헌), 재배(再拜), 개반삼시정저(開飯挿匙正箸), 합문(闔門, 병풍을 가림), 부복(俯伏), 첨작(添酌), 재배, 헌다(獻茶 : 송늬를 올림), 철상(撤床)순으로 진행된다.

나. 기제

- **봉사대상** : 조부모님과 부모님 2대만을 모시고 있고, 증조부님은 큰댁에서 지내고 있다. 그리고 5대 이상 중시조는 고성(高城)의 선산으로 가서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
- **시기** : 조상이 사망한 날을 기일로 하여 제를 지낸다. 원래 기제는 자시(밤11시~새벽1시사이))에 지내는 것이 원칙이나 근래에는 편의상 초저녁에 지낸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주변에 사는 자녀들의 안전한 귀가와 직장생활에 따른 피로를 고려하여 지내는 것으로 이렇게 지낸지는 얼마 안 되었다 한다. 축문은 과거에는 예법과 한문을 아는 분이 있어 그 사람이 주로 축문을 썼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어 축문을 읽지 않는다 한다.
- **장소** : 안채와 마루에서 지낸다.
- **참가자** : 인근에 사는 가족들이 참석한다.
- **제물진설** : 기제 때는 메, 갠(무우와 두부를 넣고 끓인 맑은 국을 올린다. 제사에는 토장국과 같이 흐린 국을 올리지 않음), 편(위에 고물을 얹음), 과일, 전, 적(魚炙, 肉炙, 鷄炙), 탕(북어탕, 두부와 무를 넣고 끓인 탕, 소고기탕), 나물, 북어포, 산자, 약과, 다식, 청주를 올린다. 제수는 여자(며느리와 딸)들이 준비하지만, 형편에 따라 정성껏 준비한다.
- **절차** : 제를 지내는 순서는 차례 때와 동일하나 제사 전날 목욕제계를 하여 몸과 마음을 정성스럽게 한 후 지낸다.

다. 기타

북정동 안골마을에 있는 진주 강씨 댁은 집안 뒤편에 조상의 신주를 모시고 있는 사당이 있어서 제례과정을 알아보려 했으나 집안 사정상 자세히 들을 수 없었다. 할머니의 간단한 말로는 차례의 경우 먼저 집안에서 이른 아침에 제사를 지내고 주변에 사는 가족들의 집으로 간다고 한다.

3) 시제²⁰⁴⁾

북정동 안골마을에 있는 정혜공양원군 이희의 묘에는 음력 10월 2일이 되면 송파구

204)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묘제를 '시제'라고 칭하며 음력 10월에 기제사를 지내지 않는 그 윗대의 조상, 즉, 5대조 이상의 조상에 대한 제사를 1년에 한 번 지내는 것이 관행이 되었다. 그러나 시제와 묘제는 원래 전혀 다른 제사였다. 예법상의 시제는 1년에 네 번, 춘하추동 4계절의 가운데 달에 사당에 모신 4대조를 향사(享祀)하는 제사이며, 우리 속습의 10월 시제란 것은 5대조 이상의 먼 조상을 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10월의 묘제(시제)는 『가례』에서 매년 1회씩 시조나 선조에 대해 집안에서 지내는 정규 제사와 흡사하다. 이 시제(묘제)는 예서에는 없는 제사이거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으로 엄격히 지내는 것으로 보아 관습적인 제사로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이영춘, 위의 책, 220쪽).

청담동에 있는 양원공파 이씨대중회에서 시제를 지낸다. 30년 전에 북정동4거리에서 살다가 이희의 묘소 주변으로 이사 온 홍원길(66, 남)씨가 현재 묘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시제에 관한 자료(사진, 비디오)는 대중회에서 관리한다고 하여, 자세한 내용은 들을 수 없었지만, 관련 자료를 통해 시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봉사대상** : 5대조 이상의 조상들을 모신다.
- **시기** : 음력 10월 초순부터 중순까지 지낸다. 최근에는 전후의 일요일로 택하는 경우가 많다. 직장생활로 인해 참석하기 어려운 문중 자손들을 다수 참석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 **장소** : 5대조이상 조상님들의 산소를 찾아다니면서 지낸다. 비용은 종중(宗中)의 돈으로 하는데 현재 종중명의로 된 빌딩과 토지 등이 있다.
- **참가자** : 해당하는 자손들이 참여하여 함께 지낸다.
- **제물진설** : 제수는 기제사의 경우에 준하여 준비한다. 다만 기제사에서는 대부분의 제찬을 합설하고 밥, 국, 술잔, 수저만 고위(考位)와 비위(妣位)를 각각 달리하여 차리는데 비해, 묘제에서는 떡과 면(국수)도 따로 쓰는 경우가 많으며 탕은 3탕이 아닌 5탕을 쓰고, 어육은 '간납'이라 하여 기제사보다 더 많은 종류를 쓰기도 한다. 상차림은 기제사와 거의 같으나 기제사는 5열로 차리는데 반해 묘제는 제수의 종류가 많아 6열로 차리기도 한다.
- **절차** : 묘제는 조상의 무덤에서 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신주나 지방을 쓰지 않으며, 따라서 참신을 강신보다 먼저 행한다. 그리고 유식(脩食), 첨잔, 합문, 계문이 없고 삼시정저(掃匙定箸 : 수저를 음식 위에 꽂거나 놓는 일)를 초헌 때에 한다. 이는 야외의 제사이기 때문이다. 나머지 절차는 기제사와 대동소이하다. 묘제는 야외에서 진행하고 참석자가 많아 질서 유지와 예식을 지휘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목청이 좋은 사람을 집례(사회자)로 지명하여 제사의 식순을 적은 홀기를 큰소리로 창도하면서 제사를 진행한다.

그 대강의 순서를 보면 우선 묘소에 대한 제사로 식전 의식은 (1)날잡기(擇日) (2)재계 (3)제수의 마련(具饌)과 제상 차리기(陳設) (4)청소(灑掃)와 자리 깔기(布席) (5)음식 차리기(陳饌)의 다섯 가지 과정이 있으며, 제사의 집전 절차는 (6)합동 참배(參神) (7)신 내리기(降神) (8)첫잔 드리기(初獻)와 축문 읽기(讀祝) (9)버금 잔 드리기(亞獻) (10)끝 잔 드리기(終獻) (11)합동 배례(辭神) (12)제상 정리(徹) (13)음복(飲福)의 순서로 진행된다.

다음 지신(地神)에 대한 제사인 후토제(后土祭 : 산신제라고도 함)는 (1)자리 정돈

(布席)과 음식 차리기(陳饌) (2)귀신 내리기(降神) (3)합동 참배(參神) (4)첫잔 드리기(初獻)와 축문 읽기(讀祝) (5)버금 잔 드리기(亞獻) (6)끝 잔 드리기(終獻) (7)합동 배례(辭神) (8)제상 정리(徹)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러한 묘제의 진행에서 가장 큰 특징은 지신인 후토씨(后土氏)에 대한 제사가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IV. 민간신앙

1. 마을신앙

성남지역은 반세기 전만 하더라도 마을을 중심으로 도당굿이 행해졌으며, 지역민들의 생활중심에 유구한 세월동안 내려온 우리 민족의 민간신앙이 자리하고 있었고, 오늘날에도 시가지가 아닌 곳에서는 산제가 지내지고 있다.²⁰⁵⁾ 조사자가 1999년에 조사한 성남지역의 동제 현황은 대략 과거 23개 마을이 동제를 지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10개 마을이 현재도 동제를 지내고 있으며 13개 마을이 단절되었다.²⁰⁶⁾ 오늘날 성남 시청이 있고 주택가가 형성된 태평동 지역에도 과거에는 도당터가 있어 주민들은 10월 상달이 되면 굿을 하고 주민들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했다. 탄리(現 태평3동)의 경우는 과거 해방 전까지 도당굿²⁰⁷⁾이 행해졌으며 수진리(現 태평1동)는 60년대까지 도당굿이 행해졌었다.²⁰⁸⁾

(1) 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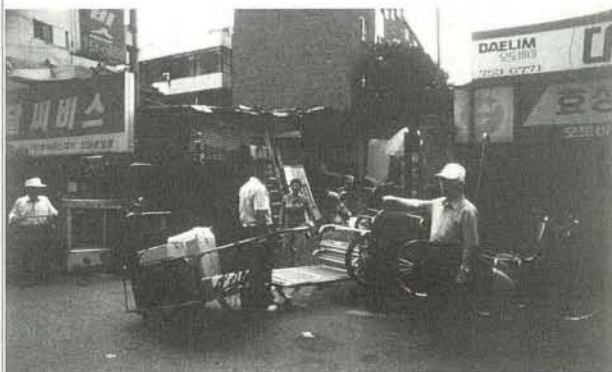
과거 탄리 건너말 입구 쪽에 있던 도당터의 정확한 위치는 현재 태평3동 탄리사거리에서 탄리로를 따라 30여 미터 가면 좌측에 범일약국이 있고 그곳으로 좌회전하여 ‘태삼장터길’을 10여 미터 가면 현재 고물상(인근에는 몇 개의 고물상이 있는데 이곳이 가장 먼저 생긴 고물상임)이 있는데 그곳이 ‘도당터’였다. 그곳에서 30여 미터 더 가면

205) 성남문화원, 『성남의 마을신앙과 가정신앙』, 2001

206) 김덕목, 「성남의 민간신앙」, 『성남의 역사와 문화유산』, 성남문화원, 2001, 191쪽

207) 제보자 : 박인호(남, 1925년생, 성남개발 전 탄리의 이장을 지냈으며 현재도 이곳에 거주). 이 내용은 조사자가 2001년에 조사하여 『성남의 마을신앙과 가정신앙』(성남문화원, 2001, 48쪽)에 소개한 바 있으나 2005년 7월 현재 다른 주민들에게 조사한바 애초에 밝힌 내용과 차이가 있어 여기에서는 다소 수정·보완하였다.

208) 복정동과 창곡동은 마을에 동제를 지냈다는 소리를 노인들도 듣지 못했다고 한다. 마을이 생성될 때부터 동제를 지내지 않았는지 촌로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오래전에 동제가 단절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 박인호씨가 저곳이 과거 탄리 도당터였다고
가리키고 있다

당곳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도당곳을 하지 않았다. 현재 제보자들도 어렸을 때 보았기 때문에 도당곳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2) 수진리²⁰⁹⁾

수진리의 경우에는 60년대까지 '앞말'에 도당나무가 있었으며 매년 10월에 수진리 전체 가구가 공동으로 도당곳을 했었다. 현재 성남대로 옆에 있는 '장모님설령탕집' 주차장터가 과거 도당나무가 있던 곳으로 나무의 수종은 느티나무였다. 60년대 말 황새가 나무에 똥을 싸면서 나무가 점차 말라 죽었는데 그때부터 도당곳을 하지 않았다. 그 후 1972년에 이 부근이 개발될 때 그 터가 없어졌다. 이 마을이 개발되기 전에는 마을에 '삼신나무'가 있었는데 그곳은 옛날 여자가 목을 매어 죽은 나무다. 그 나무에 빌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말이 있어 사람들이 빌어 '삼신나무'라고 하였다. 과거 도당곳을 할 때는 만신일행이 삼신나무를 비롯하여 마을에서 위하는 몇몇 나무를 돌면서 '비손'한 다음 도당나무로 와서 곳을 했다.

성남이 개발되기 전에는 현재 태평역 3번출구 부근을 '장승백이'라고 하였는데 당시 큰 고목이 있었다. 이 나무에 원새끼를 두르고 형쥬 등을 매어 놓았었다. 그 옛날 장승이 있었다는 말도 있으나 현재 본토박이 노인들이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장승은 없고 나무만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곳을 장승백이라고 불렀다 한다.

과거 수진리는 정월 초에서 보름까지 '고사반'²¹⁰⁾을 하였는데 고깔과 상모를 쓰고 장

209) 제보자 : 박규녀(여, 71세) 외 토박이 노인들.

210) 이것을 '답교놀이'라고 말하는 주민도 있는데 답교놀이와 고사반이 혼합되었는지 아니면 고사반이 답교놀이와 유사하여 그렇게 부르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인근 송파에서 답교놀이가 성행했던 것으로 볼 때 이곳에서도 답교놀이가 과거에는 행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구, 호적, 피리, 풍물을 치면서 중, 색시 등의 옷을 입고 무동을 타고 했는데, 집집마다 돌 때는 마을에서 제법 산다고 하는 부잣집을 중심으로 방문했는데, 그 집에 가면 식사와 술을 대접했다. 수진리의 두레패의 풍물은 대단하여 자기 마을뿐만 아니라 탄리, 창곡동까지 다니면서 정초에 고사반을 했으나 성남이 개발된 후로는 하지 않았으며 풍물을 치던 사람들은 대다수 작고하였다.



↑ 과거 수진리 도당터가 있던 자리

2. 가신신앙(家神信仰)

경기도 지역의 안택고사는 정월, 칠월, 시월 등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는 고사, 집을 짓고 상량식을 할 때 지내는 '상량고사', 매년 상량식 한 날을 '집생일'이라고 하여 지내는 '생일고사', 봄철에 파종할 벼씨를 물에 담아 놓고 난 후 지내는 '씨앗고사', 집안에 혼례, 환갑잔치 등이 있을 때 지내는 고사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성남지역에서도 이러한 고사들이 현재도 많이 행해지고 있다. 성남지역에서는 정월에 지내는 고사를 '정월고사', 칠월에 지내는 고사를 '칠월고사', 10월에 지내는 고사를 '가을고사', '상달고사', 또는 '가을떡한다'라고 한다. 정월이나 시월고사는 월중에 택일(擇日)하여 지내며 칠월고사는 칠월 칠석에 지낸다. 위에서 나열한 고사들 중 씨앗고사는 현재 지내는 집을 찾아 볼 수 없다(단절).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행해지는 고사는 10월 상달에 지내는 '가을고사'이다. 가을고사는 조사한 대부분의 가정에서 지내고 있다. 정월고사와 칠월고사는 지금도 지내는 집이 더러 있기는 하나 몇 집에 불과하다. 상량고사나 혼례, 환갑잔치 때 고사를 지내는 풍습은 지금도 민간신앙을 믿는 가정에서는 대부분 하고 있다.

안택고사는 년 1회, 2회, 또는 3회 이상 지내는 가정도 있는데 년 1회 시월에만 지내는 가정이 가장 많다. 년 2회(정월과 시월)나 년 3회(정월, 칠월, 시월)지내는 가정은 더러 있는 편이다. 예전에는 년 3회 이상 지내던 고사가 점차 축소화되어 현재는 시월에만 지내는 경우가 가장 많아졌다.²¹¹⁾ 금번 조사지역에서도 주로 10월 상달에 지내는 가을고사만 오늘날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 아래에서 그 내용들을 살펴해보도록 한다.

211) 김덕목, 「성남의 민간신앙」, 『성남의 역사와 문화유산』, 성남문화원, 2001, 202쪽

(1) 창곡동

창곡동은 근래에는 가신의 신체를 만들어 놓은 집은 없으나 기독교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토박이 주민들은 고사를 지내고 있다. 과거에는 고사를 지내고 나면 반드시 이웃 집에 떡을 나누어 주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드물어 이웃집에서 고사를 지냈는지 서로 알지는 못한다고 한다. 이 마을에서는 제사를 지내고 나면 떡 한 접시를 터에 가져다 놓는다.

가. 송희선씨 댁

서울 답십리에서 18세 때 창말 김해 김씨(金海金氏) 댁으로 시집 온 송희선은 민간신앙에 대해 돈독한 믿음을 가진 시어머니 밑에서 살았다. 시어머니는 1년에 6~7차례 안택고사(安宅告祀)를 지냈다. 정월에는 정월이라 하고 봄에는 '꽃맞이'로 고사를 지내고, 칠석에는 '칠석'이라고, 10월에는 '단풍맞이', '신곡맞이'로 하고, 간간히 몸이 아프면 또 고사를 지내고, 성주 올린 날(집에 상량대를 올린 날)에는 '집생일'이라고 고사를 지냈다. 시어머니가 계실 때는 집안에 성주, 터주 등의 가신(家神)의 신체(神體)도 있었는데 송희선은 이것을 시어머니 작고 후 없앴다. 또한 송희선은 시어머니가 작고한 후로 '가을고사'만 현재까지 지내고 있다.²¹²⁾

나. 허옥희씨 댁²¹³⁾

서울 양재동에서 18세 때 창말 경주 이씨(慶州李氏) 댁으로 시집 온 허옥희는 현재 '가을고사'와 '집생일'에만 고사를 지내고 있다. 과거 큰집²¹⁴⁾에서는 집안에 가신의 신체가 두루 있었다. 즉, 대청의 상량대에는 상량한 일시(日時)²¹⁵⁾가 쓰여 있는데 그곳을 성주의 신체로 생각하고 모셨다. 상량대에 종이로 폐백을 올려놓는 집들도 있으나 이런 것 없이 상량대를 성주의 신체로 모시고 받드는 경우도 이 마을에서는 흔하다. 삼신 주머니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안방 구석 위에 쌀을 넣은 주머니를 달아매어 놓고 위에 창호지로 고깔을 접어 씌워놓았다. 집 뒤 장독대 옆에는 터주가리와 업양가리를 두었는데 터주가리는 항아리에 콩을 넣고 위에 짚주저리를 씌워놓은 형태이다. 업양가리는 매우 컸다. 지난 짚주저리를 교체하지 않고 매년 위에 새것을 씌우므로 점점 커졌으며 속에 무엇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212) 제보자 : 송희선(여, 73세)

213) 제보자 : 허옥희(여, 76세)

214) 허옥희씨 큰댁은 창말에서 거주하다가 타지로 이사 갔음.

215) 경기도에서는 상량대에 쓰여 있는 일시(日時) 즉, 상량한 날을 '성주생일'이라고 하여 당일 고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는데 지금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과거 허옥희씨 큰댁은 이렇게 가신의 신체를 모셔놓고 안택고사를 지낼 때는 팔시루(팔가루와 쌀가루를 한 컵씩 교대로 올려 찐다), 손시루(흰무리 즉, 백설기로 하며 고사를 지낼 때는 이것을 삼신주머니 앞에 놓는데 10살 內의 아이들을 위해 한다), 칠성시루(흰무리로 하는데 고사를 지낼 때는 집 뒤곁에 북두칠성 쪽을 보고 한다), 산신시루(흰무리로 찌는데 고사를 지낼 때는 안마당에서 남한산성 쪽 방향을 보고 놓는다), 막걸리를 제물로 사용했다. 이 마을에서는 과거에도 성주단지 같은 것은 없었다.

과거에 큰댁은 이렇게 여러 가지 떡시루를 찌서 했는데 허옥희씨 댁은 작은집이므로 간단하게 팔시루떡만 찌서 고사를 지냈으며 현재도 팔시루떡만 한다. 근래에 허옥희씨 댁에서 고사를 지내는 순서는 대청 상량대 밑에 팔시루와 막걸리를 한 잔 부어 놓고 가족들의 안녕을 비는 비손을 한 후에 떡을 여러 접시에 나누어 방, 부엌, 창고, 화장실, 장독대, 차, 대문 등 집안 곳곳에 둔다. 과거 시어머니가 계실 때는 안택고사를 지낼 때 대문 양쪽에 황토를 두었는데 시어머니 돌아가신 후부터는 황토를 깔지 않고 간단히 했다. 이 마을에서는 가정에서 굿을 할 때도 전에는 대문에 황토를 깔았다. 대청에서 부어놓은 막걸리는 집안의 대주(家長)에게 마시게 한다.

(2) 복정동

복정동 본토박이 주민들은 현재도 대부분 안택고사를 지내고 있다. 조사자가 '안골'에 있는 노인정에 가던 날 할머니 7명을 만났는데 그중 7명 모두 현재 안택고사를 지낸다고 대답하였다. 본토박이 주민들 중에는 교회를 다니는 몇 집 외에는 다들 고사를 지내고 있다.

가. 김영기씨 댁²¹⁶⁾

김영기씨는 12살 되던 해 서울에서 복정동 안골마을로 이주하여 후에 이곳에서 같은 마을 사람과 결혼하였다. 과거 시어머니가 계실 때는 격년으로 10월이 되면 송파에 거주하는 만신을 청하여 '신곡맞이'로 안택굿을 하였다. 시어머니는 민간신앙에 대한 마음이 돈독하였다. 시어머니가 계실 때는 집안에 터주가리도 있었으며 상량대(성주)에도 신체(神體)를 만들어 놓았으나 25년 전 시어머니가 작고한 후로는 없었다. 김영기씨는 터주가리 등 가신의 신체를 만들어 놓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나 고사를 지내는 것만큼은 지금도 정성이 각별하다. 매월 초하루가 되면 돼지고기와 막걸리를 준비하여 고사를 지내고 10월에는 가을고사를 지낸다. 가을고사를 지낼 때는 팔시루떡과 돼지고기, 막걸리를 준비하여 대청에서 비손을 하고 각 방과 대문, 집안 곳곳에도 떡을 작은

216) 제보자 : 김영기(여, 71세)

시루로 여러 개 찌서 하나씩 놓는다. 과거에 시어머니가 계실 때는 칠석에도 밀전병을 해서 막걸리와 함께 터주가리에 올렸는데 시어머니 사후로는 칠석에는 절에 간다.

(3) 태평동

현재 이곳에 거주하는 토박이 주민들은 대부분 안택고사를 지내고 있다. 그러나 건물을 신축하면서 대개 터주가리 등은 만들어놓지 않았으며 고사만 지내고 있으나 터가리와 성주를 모셔놓은 박○○씨 댁과 같은 경우는 근래에는 드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조사자가 태평1동 노인정에 가던 날 노인정에 할머니 여덟 분이 화토를 치고 있었다. 그 중 시집와서 이곳에서 여태까지 살고 있는 토박이 할머니가 7명이었으며 외지에서 이주한 할머니가 1명이었다. 이 중 이주한 할머니 1명을 제외한 토박이 7명은 모두 현재도 안택고사를 지낸다고 대답하였다. 성남이 개발 된 후 외지에서 들어온 이주민들은 안택고사를 지내는 경우가 흔치 않지만 이 지방에서 살아 온 토박이 주민들은 도심 한복판에 살면서도 현재 안택고사를 지내는 것이 일반적인 풍습임을 알 수 있다.

가. 박○○씨²¹⁷⁾ 댁

탄리 건너말에서 조상대대로 살아온 박씨는 현재도 옛날 집터(건물은 신축)에서 살고 있으며 지금도 칠석과 10월에 가을고사는 매년 빠지지 않고 지내고 있다. 성주는 대청상량대인데 이곳에 종이를 붙여 놓았다. 이 종이는 2~3년에 한 번씩 낡으면 교체해 준다. 집 뒤곁에는 쌀을 담아 놓은 항아리에 함석을 씌워 터주로 모시고 있으며 매년 가을에 고사를 지낼 무렵에 쌀을 갈아준다. 이 마을에서는 터주에 보통 쌀이나 콩을 담아 놓는다. 전에는 농사를 지어서 짚이 있었기 때문에 짚주저리를 만들어 터주단지 위에 씌웠으나 근래는 이곳이 도시가 되어 짚을 구할 수 없어 함석을 씌워놓았다.

고사를 지낼 때 제물은 팔시루와 막걸리를 사용한다. 고사를 지낼 때 순서는 떡시루와 막걸리를 성주(상량대) 앞에 차려놓고 절을 하고 비손을 한 다음 떡을 여러 접시에 나누어 방, 부엌, 광, 차고 등 집안 곳곳에 둔다. 과거에는 고사를 지낼 때 대문 양쪽에 황토를 가져다 놓았는데 근래에는 황토를 구할 수 없어 이렇게 하지 않는다. 과거에도 고사를 지낼 때 금줄은 치지 않았다.

나. 박규녀씨 댁²¹⁸⁾

강원도 철원군에서 6.25전쟁 직후 수진리 '새탄말'로 피난을 왔다가 23살 때 이곳에서 남편 함씨를 만나 결혼하여 현재까지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박규녀씨는 현재도 매년

217) 제보자 : 박○○(남, 78세, 태평3동 거주)

218) 제보자 : 박규녀(여, 71세, 태평1동 거주)

안택고사를 지내고 있다. 보통 10월에 고사를 지내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 10월에 지내지 않으면 정월 초사흘에 지낸다. 고사를 지내는 절차와 제물은 위의 박○○씨 덕과 동일하다.

V. 놀이와 여가생활

1. 놀이

민속놀이라 하면 연날리기, 윷놀이, 널뛰기, 그네뛰기 등을 떠올릴 수 있으며 이러한 놀이는 전통사회에서 세시풍속의 하나로 명절이나 계절에 따라 그 종류가 달라지기도 한다. 과거 이 지역 농경사회에서 세시에 따라 놀아졌던 놀이에 대해서는 '세시풍속' 부분에서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외의 놀이들을 중심으로 하여 서술해보도록 한다.

일제치하 1920년대를 기점으로 총독부 주도의 이른바 '농촌오락 진흥정책' 속에서 당시의 보통학교를 중심으로 새로운 일본의 놀이들은 급속히 전파되기 시작했는데, 조사지역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²¹⁹⁾ 당시 현재의 체육시간과 같은 학과시간에 교사들이 보통학교 학생들에게 놀이를 가르쳤는데 대부분은 일본에서 행해지는 놀이로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생소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놀이들은 1980년대까지 전승되었다. 현재에도 그 중 일부 놀이는 관심 있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특별활동이나 체육시간에 행하여지고 있다.

이 글은 마을지의 성격에 맞게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각종 놀이들을 기술하고자 하며, 조사지역은 창곡동과 태평동, 북정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아울러 조사를 위한 대담자는 해당지역 토박이주민으로 한정하였으며, 이주민의 제보는 참조하지 않았다.²²⁰⁾ 이 글에서 다룬 놀이들은 조사 당시 확인된 것만을 취하였으며 제보자들이 기억해 내지 못하는 세부적인 사항은 문헌을 참조²²¹⁾한 후 제보자 및 대상자들에게 재차 확인하였

219) 필자가 현지 조사시 참조한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 朴銓烈 譯, 『朝鮮의 郷土娛樂』, 집문당, 1992, 57~64쪽에 실린 경기도 광주지역의 여러 놀이들을 질문해 보았으나, 대부분의 제보자들이 방식은 물론 놀이명조차 생소한 것이 많았다.

220) 토박이주민의 제보와 문헌을 참조하여 해당지역의 놀이에 대한 특색을 찾고자 하였다.

221) 스튜어트 커피, 윤광봉 譯, 『한국의 놀이』, 열화당, 2003

홍양자, 『-빼앗긴정서 빼앗긴 문화- 우리 놀이와 노래를 찾아서』, 다림, 1997

심우성, 『우리나라 민속놀이』, 동문선, 1996

——, 『한국의 민속놀이』, 삼일각, 1976

다. 아래의 내용은 세 마을 통합해 기술하였으며 마을마다 다른 점은 별도로 지명을 언급하였다.

(1) 도시화 전의 남자아이놀이

제보자들 대부분이 연로하여 유년시절의 놀이에 관해 자세히 기억하지는 못했으나 문헌을 참조하여 그들에게 다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을 통해 비교적 자세히 알아낼 수 있었다. 오늘날 어린이들 사이에서 행하여지는 놀이들도 있으나, 제보자들의 이야기들 위주로 작성해 본다.

가. 찜뽕

‘찜뽕’라고도 불리는 놀이로 주로 학교에서 초등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즐겨하던 놀이로 현재에는 ‘주먹야구’라고 불린다. 지금의 야구와 거의 같은 방식의 놀이로 득점 방식도 똑같다. 야구가 투수가 던지는 것에 반해 찜뽕은 타자가 되는 자신이 직접 고무로 된 테니스공 크기의 고무공을 잡고 주먹으로 힘껏 쳐서 경기를 한다. 인원수에 따라 1, 2, 3루의 수를 조절가능 했다. 사시사철 가능한 놀이였으며, 넓은 마을공터나 학교운동장 또는 추수가 끝난 논바닥 등이 놀이장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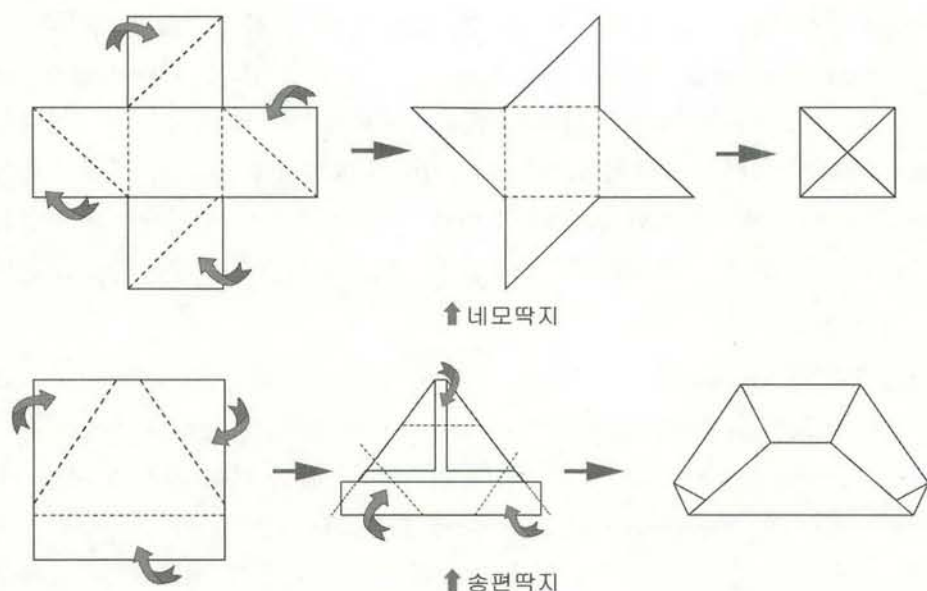
나. 딱지치기

어린이들이 즐겨하던 놀이로, 종이를 접어 만든다. 바닥에 놓인 상대방 딱지를 자신의 것으로 옆 부분을 쳐 뒤집어 지면 따먹는 놀이다. 제보자 이은중(李銀鍾)²²²의 말에 의하면, 종이가 귀하던 일정(日政)시절, 시멘트 자루를 찢어 만들었는데, 아이들에게 딱지는 다른 놀이를 하는데 일종의 화폐 기능도 있었다 한다. 즉, 다른 놀이인 ‘땅따먹기’나 ‘자치기’ 등을 하는데 있어 일정 개수의 딱지를 걸고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의 딱지를 취(取)했다 한다. 태평동 일대에서 즐겨 접던 딱지의 종류는 네모딱지, 양면딱지, 송편딱지가 있다.

‘네모딱지’는 일반인들이 현재에도 알고 있는 모양의 딱지로 한 개의 종이를 길게 늘어뜨린 후 접어나가는 방법과 두 개의 종이를 교차시켜 접는 법 두 가지가 있다. ‘양면딱지’는 네모딱지 두 개를 양면에 포개어 접는다. ‘송편딱지’는 송편모양의 딱지로 네모딱지와 함께 즐겨 사용되던 딱지이다. 이것은 네모딱지보다 잘 뒤집어지는 단점이 있다.

김광언, 『한국의 민속놀이』, 인하대 출판부, 1982
최상수, 『한국 전래 어린이 놀이』, 웅진출판, 1989
편해문, 『옛 아이들의 노래와 놀이 읽기』, 박이정, 2002
_____, 『어린이 민속과 놀이문화』, 민속원, 2005

222) 이은중(남, 75세, 태평1동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 딱지 접는 방법

다. 제기차기

현재의 제기차기와 같다. 제기를 만드는 재료로는 구멍 뚫린 엽전과 한지나 창호지 또는 시멘트봉지나 마분지 및 습자지 등의 얇고 잘 찢어지는 종이를 사용했다. 놀이 방식으로 '많이 차기'와 '동네제기' 두 방식이 있는데, '많이 차기'는 제기를 적게 찬 사람이 상대방의 발쪽을 향하여 제기를 던지는데, 헛발질을 유도하거나 그 사람이 찬 제기를 땅에 떨어지기 전에 잡아야만 다시 시합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방식을 '들이기'라고 한다. 많이 차기 중에는 제기를 차는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한발을 땅에 닿지 않게 차는 방식을 이 지역에서는 '헐랭이 차기'라고 했다. 또한 양발을 사용하여 각각 발 안쪽과 바깥쪽을 번갈아 가며 차는 '엇갈려 차기' 등이 있다.

'동네제기' 역시 타 지역과 방식이 같은데, 여러 명이 둥글게 서서 한사람씩 제기를 차기가 원하는 방향에 있는 사람 쪽으로 패스하듯이 높게 차올리며 '동네!'라고 외치면 상대방은 다시 같은 방법으로 차며 '제기!'라고 한다. 이런 방식으로 '동네!', '제기!', '차려!', '가자!'라는 말과 함께 제기를 차서 헛발질을 하거나 제대로 차지 못하면 '들이기'를 한다.

라. 비석차기

전국적으로 널리 행해진 놀이 중 하나로, '비석치기' 또는 '비석까기'라고도 하는데, 주민 조귀현²²³⁾에 의하면 창말 지역에서는 '비석차기'라고 했다고 한다. 이 지역에서의

‘비석차기’ 방식 또한 여느 지역과 비슷한데, 일정 인원 중 짝을 맞추어 두 편으로 갈라 ‘가위 바위보’로 先공격을 정한다. 시작하는 곳과 비석을 세워 두는 곳에 일직선으로 금을 그은 후 최초 발등부터 머리 위까지 차례로 신체의 부위에 비석을 올리거나 끼워서 세워놓은 상대방 비석을 맞추어 쓰러뜨리는 방식의 놀이이다. 비석을 몸에 지니고 쓰러뜨리러 가는 도중 떨어뜨리면 ‘죽었다’고 한다. 비석의 재료로는 직사각형 모양의 돌로 땅 바닥에 세울 수 있으며, 자신이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무게의 것을 고른다.

마. 자치기

편가름 놀이도 가능하고 1 : 1 놀이도 가능하며 ‘장치기’라고도 부른다. 긴 자와 작은 자 두 개만 있으면 마당이건 골목이건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놀이로 재료는 가시나무, 싸리나무, 소나무 등 나뭇가지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먼저 편을 나누고 ‘가위 바위 보’로 순서를 정한 후 적당한 크기로 땅 바닥에 원을 그린 후 원 가운데 부분에 구멍을 파는데, 세로로 한자 정도의 직선 형태로 얇게 판다. 그 위에 작은 자를 올려놓은 후 긴 자로 아래에서 위로 떠서 멀리 보내는데, 상대방이 잡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요령이다. 작은 자가 떨어진 그 위치에서 수비측은 원안의 구멍으로 작은 자를 던지고 공격측은 긴 자로 날아오는 작은 자를 후려쳐서 멀리 날려 보내는 방식으로 떨어진 위치를 긴 자로 측정하여 그 자 수만큼 득점 하며, 수를 모두 득점하면 이기는 방식이다.

바. 썰매타기

겨울철 즐겨했던 놀이로 두 종류의 썰매가 있었다. 널빤지 아래 긴 각목을 대고 그 밑에 철사를 달아 얼음판을 꼬챙이로 지치며 달리는 ‘양발 썰매’와 널빤지 정 가운데 부분에 발을 하나만 달아 중심을 잡으며 타는 ‘외발 썰매’가 있다. 주로 물이 나는 ‘고랭이논’²²⁴⁾이나 창말 앞개울과 탄천이 썰매타기 좋은 장소였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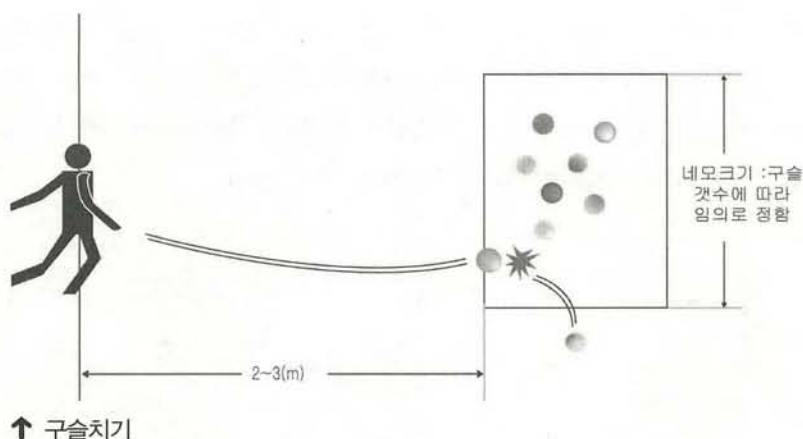
사. 구슬치기

조사지역의 제보자 모두가 구슬치기를 했다고 했는데, 제보자들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구슬치기를 했다. 제보자들이 유년시절 즐겨 했던 구슬치기 방식은 일정거리를 두고 구슬을 굴릴 시작점과 대상 구슬들을 놓을 곳에 네모나 동그라미를 구슬 숫자에 맞추어 적당히 그린다. 개인별로 똑같은 수의 구슬을 목적지인 네모나 동그라미 안에 넣어둔 후 ‘가위 바위 보’로 순서를 정하거나 목적지의 끝선에서 시작선에 구슬을 던져 선과 가까운 구슬을 던진 사람부터 우선권을 갖도록 정하기도 하였다 한다.²²⁵⁾

223) 1920년생으로 창곡동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224) 논바닥에서 물이 올라오는 논을 ‘고랭이논’이라 부른다(제보자 : 김OO, 73세, 태평동 거주)

225) 앞 제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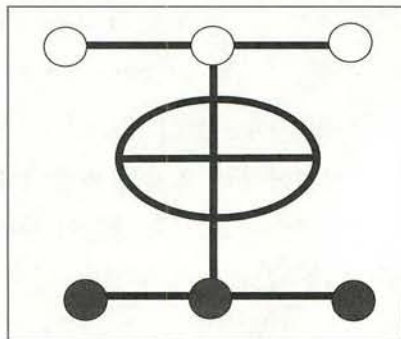


아. 팽이치기

창곡동에서는 겨울철 아이들이 썰매타기와 함께 즐겨했던 놀이라고 한다. 팽이는 주로 소나무 가지를 잘라서 아랫부분을 둥근 원뿔 형태로 깎아서 만들고 그 꼭지점에 쇠구슬을 박아 잘 돌 수 있도록 만드는데, 해방 전 일정(日政)시대에는 쇠구슬을 구하기 힘들어 주로 못 머리가 둥근 무두못을 박아서 만들었다고 한다. 팽이채는 주로 싸리나무로 만들었으며, 주변의 산에 닥나무가 많지 않아서, 팽이채의 줄은 광목을 잘라 사용했다.

자. 고누

‘고니’라고 부른다.²²⁶⁾ 어린아이에서 청년들까지 행한 놀이었다. 놀이 방식은 ‘호박고누’로 알려진 방식을 많이 했다 한다. 그러나 제보자에 의하면 ‘호박고누’라는 말은 기억이 나지 않고 ‘십자고누’라고 불렀다 한다. 놀이 방식은 현재의 방식과 같이 상대편 말의 갈 길이 없으면 이기는 방식이다. 고누의 말은 나뭇가지나 바둑돌, 길가의 작은 돌맹이 등의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을 사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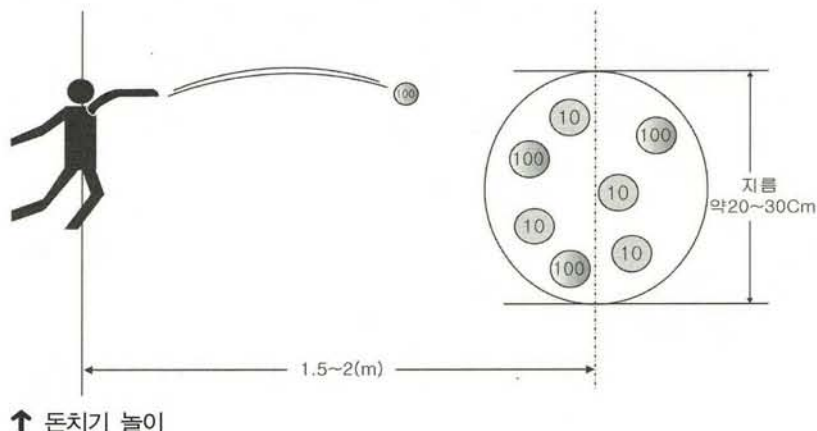
차. 돈치기

일정(日政)시절부터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²²⁷⁾, ‘신뽕’라고 불렀으며 정확한 시작연대는 알 수가 없다. 편을 가르지 않고 모두 개인전 방식으로 하는데, 일종의 도박이라

226) 제보자 : 조귀현(남, 1920년생, 창곡동 거주)

227) 앞 제보자

고 할 수 있다. 시작점에 일직선으로 금을 그은 후 일정한 간격을 띄워 원을 그리고 그 안에 미리 정한 액수의 동전을 놓는다. '가위 바위 보'로 순서를 정한 다음 원 안의 동전을 시작 선에 서서 던져 맞추면서 상대방의 동전을 따먹는 놀이이다. 금에 걸리면 그 동전은 원 안에 넣고 다음 순번의 사람에게 넘어간다.



카. 버들피리 불기

양력 4월 중순부터 5월초까지 버드나무에 물이 잔뜩 오르면 아이들은 근처 개울가에 자라고 있는 버드나무의 가지를 꺾어 버들피리를 만들어 분다. 창곡동 주민들은 뒷산과 마을 옆을 지나는 개울가에 있던 버드나무를 이용하였다고 하고, 태평동 주민들은 탄천 주변의 버드나무 가지를 잘라 만들었다 한다. 만드는 법은 버드나무가지를 10~15Cm 정도 자른 후 양쪽 끝의 버드나무 껍질을 도려내 버린 다음, 가운데 부분에 남겨진 껍질 부분을 살짝 비틀어 떼어낸 다음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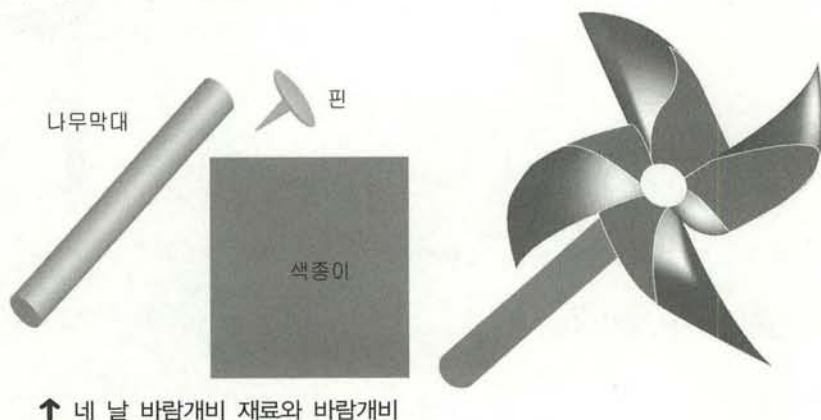
타. 바람개비놀이

조사지역에서 즐겨한 바람개비놀이는 '팔랑개비'라고도 불렀다 한다. 주로 어린이들이 부모나 형 또는 누나들이 만들어 준 것을 가지고 뛰어다니며 놀았다. 바람개비놀이에는 네 날 바람개비와 두 날 바람개비가 있다.

네 날 바람개비는 색종이나 신문지 등 각종 종이가 가능한데, 아래와 같이 정사각형의 네모난 종지와 막대, 핀을 가지고 만든다. 먼저 색종이의 네 각을 접어 접힌 자리의 끝에서부터 중심점까지 약 3/5 정도를 칼이나 가위로 자른다. 8개의 조각이 생기면 한 개씩 건너 네 개의 끝을 종지의 중심점에 모아 핀으로 나무 손잡이에 관통시켜 고정한다. 이때 종지의 네 각을 둥글게 접어야 바람을 많이 받아 잘 돈다.

두 날 바람개비는 '쌍날 바람개비'라고도 한다. 수수깥이나 나무젓가락 또는 얇은 나

무막대기에 깎은 나무의 양옆에 서로 대칭 되게 조금 뿔뿔한 종이를 $5 \times 6\text{cm}$ 정도 크기로 두 개를 붙인다. 이때 한쪽은 오른쪽에, 다른 쪽은 왼쪽에 붙인 다음, 나무막대기의 중심축에 연결하면 된다. 종이가 평면이면 바람을 잘 타지 않기 때문에 작은 나뭇가지로 감았다가 놓으면 잘 돌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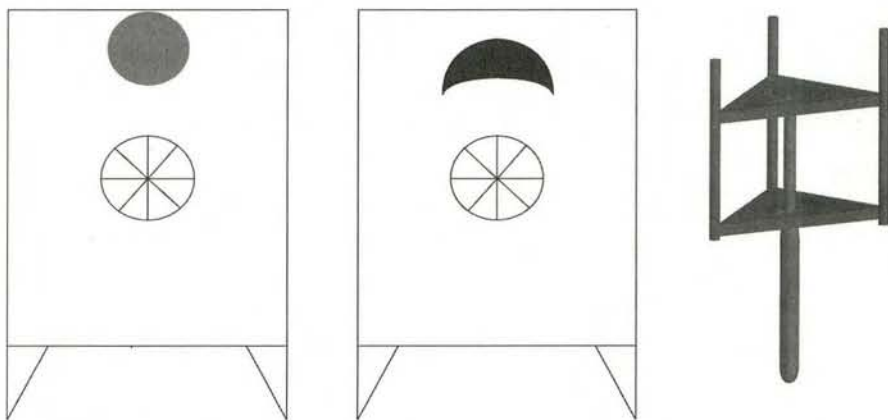


↑ 네 날 바람개비 재료와 바람개비

파. 연날리기

추수가 끝난 후부터 정월 대보름까지 논밭이나 높은 언덕 위에서 어린 아이들이 날렸다. 창곡동은 해방 전까지 현재의 '가오리연' 보다는 '방패연'만을 날리다시피 했다 한다.²²⁸⁾ 나머지 지역은 방패연과 가오리연을 모두 날렸다. 연싸움은 연을 날리면서 서로 연줄을 맞닿게 하여 연줄을 끊는 방식이다. 연줄은 대개 명주실을 이용했으며, 상대방의 연줄을 잘 끊기 위해서 열레에 실을 감을 때 연줄에 사기그릇 조각을 뿔아서 아교나 밥풀을 으깨어 섞어서 연줄에 먹이는 방법을 썼다. 사기조각이 없을 경우 유리가루나 깨진 남포등 갓을 뿔아서 사용했다 한다. 제보자들의 유년시절 창곡동과 태평동일대에서 주로 사용된 연의 문양은 아래 그림과 같이 방패연이 주종을 이루었는데, 주로 태양과 반달문양을 그렸으며, 방이연과 같이 아래쪽 양 끝부분에 작은 꼬리를 달았다. 열레는 사각열레나 육모열레를 사용했는데, 삼각열레를 사용하는 아이들도 많았다 한다. 열레는 밤나무로 만들었으며 손잡이 부분은 싸리나무나 가시나무를 끼워 만들었다 한다. 연의 크기는 자신의 취향에 맞게 잘 날수 있는 크기로 만들었다.

228) 제보자 : 조귀현, 이은종



↑ 조사지역에서 사용된 연의 문양과 삼각알레

(2) 도시화 전의 여자아이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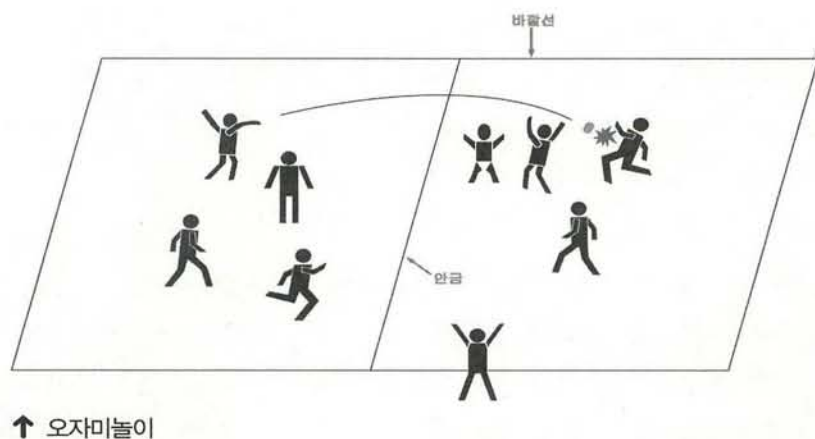
가. 봉사놀이

여자나 어린아이들이 놀던 놀이로 장소는 실내·외 모두 가능하다. '가위 바위 보'로 술래를 정하는데, 술래는 '오니'라고 부른다. 술래가 된 사람은 수건이나 형겔 등으로 아무 것도 볼 수 없도록 눈을 가린 후 나머지 인원들이 술래를 약 올리는데 박수를 치거나 각종 희롱하는 말을 하기도 하며 술래의 신체부위를 꼬집거나 치는 등의 행위로 놀린다. 술래는 소리 나는 쪽을 가늠하여 상대방 중 아무나 손으로 잡으면 그 사람과 술래를 바꾸며 노는 방식이다. 술래의 눈을 가려 장님을 만든다 하여 '봉사놀이'라 부른다 한다.

나. 오자미놀이

'오자미' 혹은 '오재미'라고도 불리며 초등학교생들이 주로 교사의 지도아래 행해지던 놀이이다. '오자미'를 가지고 양편으로 나누어 상대편을 맞추면 이기는 놀이이다. 오자미는 대략 10×10cm ~ 15×15cm의 네모난 형태의 형겔을 펴고 그 안에 모래나 팔, 콩²²⁹⁾ 등을 넣고 실로 단단히 꿰매서 네모나게 만든다. 한 팀의 구성은 총인원을 반으로 나누어 짝을 맞추고, 오자미를 가지고 있는 팀 중 한명이 상대편을 맞추면 그 대상자는 손으로 받아야 한다. 받지 못한 자는 죽는다고 말하는데, 죽은 자는 선 밖으로 나간다. 1990년대 초까지 초등학교 운동회 때 성행하였으며 현재도 행하여지고 있다.

229) 오자미가 몸에 맞더라도 다치지 않도록 모래나 콩, 팔 등을 넣었다고 한다.



다. 공기놀이

개인전뿐만 아니라 여럿이서 한 팀을 이루는 편가름 놀이로 즐길 수 있다. 현재 알려진 공기놀이의 방식과 같은데, 재료로는 손으로 집기에 알맞은 돌맹이 5개만 있으면 어디에서든지 할 수 있다. 주로 여자아이들이 즐겨 했으며, 방법은 처음 5개의 돌을 바닥에 집기 쉽게 뿌린 후 한 알씩 집는 '한알잡기' 두알씩 집는 '두알잡기' 세알씩고 나머지 한 알 집는 '세알잡기' 하나의 공기알을 위로 올린 후 나머지 네 개의 공기알을 바닥에 놓고 먼저 위로 던진 공기알을 떨어지기 전에 잡으면서 쥌싸게 바닥의 나머지 네 개의 공기알을 잡아 올리는 '막' 또는 '네알잡기'의 순서를 모두 통과한 후 손등에 올려진 공기알을 빠뜨리지 않고 잡아채서 그 공기알 수만큼 득점을 한다. 미리 약속한 점수를 득점한 팀이나 사람이 이긴다.

(3) 도시화 전의 어른놀이

한국의 농경에서 삶과 놀이, 일과 놀이는 미분화상태로 있었다. 삶이 놀이이며, 일이 놀이였던 것이다. 힘겨운 일을 놀이로서 하였다. 즉, 노동요를 부르고, 풍물을 치면서 그렇게 들판에서 일을 하였고, 장례식도 상여놀이, 회단이 등을 통해 놀이로 승화시켰으며, 집을 지을 때도 지정단이기를 하면서 놀이로 승화시켰다. 이렇게 일상적인 삶을 놀이로 승화시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놀이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며 삶 자체가 놀이이며 언제나 신명을 가지고 살아간다.

과거 농경사회에서 겨울철 농한기나 명절 또는 절기에 따라 짬이 나는 휴식기간에는 유희를 목적으로 한 놀이도 있었다. 이러한 놀이들은 세시풍속 부분에서 소개되었다. 과거 가정의 생업을 책임지고 있는 성인들의 경우 유희 자체를 위한 놀이는 많지 않았다. 그저 노동이나 의례와 결부된 놀이가 크게 자리하고 있었다.

과거에는 농한기라 하더라도 추수가 끝난 겨울에는 연탄이 보급되기 전까지만 해도 마을 근처 산에서 땔감을 준비하거나 새끼줄을 꼬거나 지붕을 이을 이엉을 엮거나 가마니를 짜거나 하는 등 각종일로 여가가 많지 않았다. 아래에서는 조사지역에서 과거에 행한 몇 개의 놀이를 간단히 소개해 본다.

가. 기싸움

정초에 행한 놀이로 각 마을의 상징인 농기에도 형님기와 아우기가 있는데, 마을의 두레패가 풍물을 치며 길을 가다가 인근마을의 두레패와 마주치면 위아래를 따져 '기세배'를 한다. 그러나 형님기를 보고 아우기가 세배를 하지 않는 경우 각기의 맨 꼭대기 부분에 달린 썰장목을 먼저 뽑아 채는 마을의 기가 '형님기'가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 '기싸움'이라고 불렀다 한다.²³⁰⁾

나. 물장고놀이

여자와 남자의 놀이가 별도로 구분된 것이 많지 않았으며, 아이들 놀이의 경우 대부분 혼성으로 놀이를 즐겼다. 창곡동 주민 손희선²³¹⁾에 따르면, 시어머니의 시집살이가 심하던 당시(해방직후~1950년대)까지만 해도 농한기인 정월은 시집살이하는 부녀자들에게는 꿀맛 같은 휴식기였다고 한다. 설을 보낸 후 대보름까지의 10여 일간은 낮에 집안 일을 해 놓은 후 동네 부녀자들끼리 방에 모여 바가지에 물을 담아 숟가락이나 젓가락으로 바가지를 쳐가며 장단을 맞추어 민요를 부르며 놀았다 한다. 당시 대표적으로 불렀던 민요는 방아타령, 매화타령, 창부타령, 강강수월래 등이 있다. 특히 강강수월래는 한사람이 먼저 노래를 하면²³²⁾ 나머지 사람들이 그 말을 따라 합창을 한다. 조사자는 2005년 7월 창말 노인정에 갔을 때 손희선이 부르는 유창한 민요를 들을 수 있었다. 그 가사 일부를 아래에서 소개해 본다.

종구나 매화로다 에아데야~ 에헤야 에헤히이 여허라 사랑도 매화로다
앞방 거른방 다르다지만 옥화새김에 왕자님이란다 종구나 매화로구나
어야 디야 에헤야 이히여허라 사랑도 매화로다~!(매화타령)

에헤에 방아로구나 난다 난실 이난실랴요. 방아 방아 노세 노자 놀아 젊어서 놀아
늙어 병이들면 못노나니 에헤 에 헤이야 어허 우겨라 방아로구나
난다 난실 이난실랴요

230) 앞 제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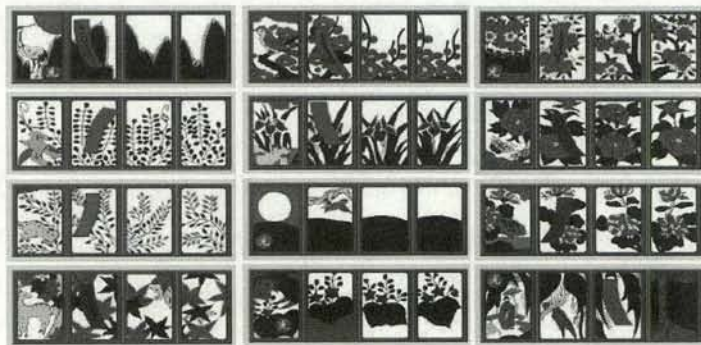
231) 제보자 : 송희선(여, 1933년생, 서울 답십리태생, 18세 때 창말로 시집와 현재까지 거주)

232) '선소리'를 먹인다고 한다.

방아 방아 노세~! 달아달아 이태백이나 노던 달아.
 에헤 에헤이야, 어허 우겨라 방아로구나 난다 난실 이난실라요
 방아 방아 노세 해가지고 저문 달에 옥화서하고서 어대를 가나
 에헤 에헤이야 어허 우겨라 방아로구나 난다 난실 이난실라요
 방아 방아 노세~(방아타령)

다. 화투

이것은 현재도 즐겨하는 것으로 근래 행해지는 것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성인에서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즐겨 하는 것이 화투이나 오늘날 성인들은 명절이나 장례식장에서 밤을 썰 때, 친구들과 야유회를 갔을 때 등 특별한 경우에 주로 하지만 노인들은 여가 시간이 많아 노인정에서 평소에도 즐겨한다. 근래 노인들은 주로 십 원짜리 동전을 놓고 1점에 십 원씩 주기로 하고 노는 경우가 많다. 놀이 방식으로는 ‘짓고땡’, ‘섯따’, ‘고스톱’, ‘민화토’ 등이 있는데, 90%이상이 고스톱을 즐겨한다. ‘고스톱’은 대개 3명에서 5명이 친다. 화투는 각 4장씩 1월부터 12월까지를 의미²³³⁾하는 총 48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3명이 칠 때는 먼저 48장의 화투에 상표가 그려진 2~3장의 화투²³⁴⁾를 더하여 잘 섞은 후 개인당 7장씩을 나눠 주고 나머지 패를 가지런히 정리하여 가운데 놓는다. 필요인원은 3명이므로 만약 참여 인원이 5명이면 처음 화투를 모두에게 돌린 후 두 사람은 쉬어야 한다. 패를 돌린 선을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 돌아서 나머지 2명은 ‘광팔기’를 한다. 이 때 쉬는 사람 중 광이 든 사람은 ‘광값’을 받고 판이 끝날 때까지 쉰다. 정해진 규칙에 의하여 3점을 먼저 취득하면 ‘고’를 할 것인지 ‘스톱’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하고 ‘스톱’을 함으로써 그 판은 끝이 나고 그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경기 방식이다.



↑ 화투

233) 권현주, 「화철(花札)의 “전통 문화 기호”와 화투(花鬪)의 “놀이 문화 기호” 고찰」, 한국일본어문학회, 2004

234) 복정동의 노인정에서는 이 패들을 ‘쫓카’라고 부른다.

2. 현대의 여가생활

현대인들은 여가를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과거 농경사회의 경우에는 여가생활을 주로 농업공동체 안에서 이웃과 더불어 보내는 경우도 많았으나 현대 도시사회에서는 개인화되어 있으며 여가시간을 보내는 유형이 제각각이다. 직장에서 돌아오면 TV를 시청하고 휴일이면 간혹 영화를 보거나 비디오가게에서 비디오를 빌려보거나 등산, 여행을 하기도 한다. 사람에 따라 독서 등 각종 취미활동을 하기도 한다. 과거 농업공동체 사회에서의 놀이는 집단 또는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와 세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일과 의례와 결부된 형태 등 다양했으며 놀이의 종류도 많았다. 특히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아동들의 놀이는 매우 종류가 많았다.

그러나 현대인들의 생활은 도시화 등으로 인하여 전통사회의 놀이들이 단절되고 새로운 자본주의 상업문화가 그 자리를 채우게 되었다. 노는 것도 주민 스스로 창출하여 즐기는 것이 아니라 상업문화가 만들어놓은 놀이에 수동적으로 참여해서 돈을 지급한다. 이제는 아이나 어른도 놀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최근의 놀이 및 여가활동은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한 디지털 시대의 도래로 인하여 모든 세대가 공통적으로 컴퓨터를 마주하며 정보도 얻고 게임도 하는 등 또 다른 신평경이 만들어졌다. 아이들과 청소년의 경우 학업과 다양한 종류의 과외 교육으로 인하여 여가시간이 감소하고 여가시간을 즐기는 형태가 TV를 보거나 인터넷 게임을 하는 등 단조로워졌다. 과거에는 많은 놀이가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놀이라는 이름을 붙일 만한 이렇다 할 놀이가 드물며 주로 혼자서 여가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개성화되지 않은 자본주의 상업문화의 획일화된 놀이에 안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가생활을 금번 조사지역 사람들은 현재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세대별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아동 및 청소년

아이들의 일상적 일은 공부하는 것이다. 요즘 아이들은 학교에서 수업시간을 받는 것 외에도 방과 후 과외나 학원교육 등을 받는 경우가 많아 간간히 짜투리 시간을 통해 놀지 않으면 노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아이들은 여가시간에 TV를 시청하거나 독서, 또래들과 놀기도 한다. 청소년의 경우 과거에는 동네에 있는 오락실을 찾아가 놀기도 했으나 수년 전부터 확산된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게임을 많이 한다. 학교에 다녀온 후 컴퓨터에 앉아 게임에 열중하여 부모로부터 야단을 맞는 경우도 흔하다. 인터넷이 확산되기 전에는 아이들이 오락실에서 장

시간 시간을 보내어 부모에게 야단맞던 시절과 또 다른 변화가 있었다. 요즘에는 오락실은 사양길로 접어들고 그 자리를 PC방이 대신하고 있다. 자욱한 담배연기 속에서 청소년들이 오락에 열중하고 있는 것을 태평동의 PC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과거 논밭을 뛰어다니며 자유롭게 놀던 아이들의 놀이터가 도시화되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었다. 특히 차량의 증가로 인하여 골목길에서 수시로 차가 다녔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은 좁은 어린이놀이터로 한정되었다. 오늘날 아파트나 주택가의 놀이터나 초등학교의 운동장, 각종 유아시설 내부의 놀이기구 등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다. 어린이놀이터는 4살에서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학생들이 주로 이용한다.

근래 인터넷의 보급으로 동전을 넣고 하는 전자오락실이 사라진 후, 문방구 앞에 조그만 오락기계만 남았는데 그곳에서 동전을 넣고 대결게임을 하는 아이들이 많다. 요즘은 한판에 100원을 넣고 자신이 고른 인물(캐릭터)이 지면 경기가 끝나는 방식이다. 이것은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많이 한다. 1990년대 후반 인터넷의 보급으로 청소년에게 컴퓨터 게임을 즐기는 것이 일상적인 놀이가 되었다.

수십 년 전부터 아이들이 혼자서 놀 수 있는 놀이 중에 '비누거품 날리기'가 있다. 이 놀이를 소개하면서 아동들의 놀이에 대한 부분을 맺도록 한다. 삼푸나 식기용 세제 또는 세탁비누 따위를 물에 풀어서 빨대나 철사 등을 이용하여 거품을 문혀 입으로 불어 방울을 만들어 날리는 놀이이다. 더 큰 방울을 만들어 날리는 사람이 이기는 대결 방식도 있으나, 보통 혼자서 비누방울을 날리며 노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파트 베란다 처럼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날리거나 공원 등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겨울철 외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2) 성인

현대 도시사회에서는 직업이 다양하고 일하는 시간대가 업종에 따라 차이가 나기도 한다. 주간에 일하는 사람도 있고 야간에 하는 사람도 있다. 사람들의 생활이 개인화 되어 여가시간을 보내는 유형도 제각각이다. 현대인의 여가생활에서 가장 밀접한 것은 TV일 것이다. 직장인들은 퇴근한 후 집에 돌아와 TV를 보는 경우가 흔하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하거나 가정에서 비디오를 빌려보는 경우도 많다. 태평동의 경우 한 비디오가게 주인에 의하면, 최근 몇 년간 불경기가 계속되다보니 실업자나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사람들이 만화와 비디오를 빌려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태평동 골목에는 곳곳에 비디오를 대여해 주는 가게가 있다. 2005년 현재 1일 대여비로 신프로는

1500원, 구프로(제작된 지 오래된 것)는 500원을 받고 있다. PC방을 가서 온라인 게임을 사람도 많다.

휴일에는 영화를 보거나 등산, 여행, 독서 등 사람에 따라 각종 취미활동을 하기도 한다. 미혼남녀들은 주말이나 휴일에 애인과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가기도 하며, 결혼한 사람들은 가족들과 휴양지 및 관광지로 여행을 가기도 한다. 현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여행을 다니는 경우가 흔하다. 따라서 주말이면 계곡이나 유원지 등지에 사람들이 몰리며 도로는 나들이 차량으로 붐비기도 한다. 특히 여름 휴가철에는 시원한 계곡이나 바닷가를 찾는 경우가 많아 삼복더위의 신평경을 연출하고 있다.

수정으로 주변에는 노래방, 단란주점, 룸싸롱, 나이트클럽, 주점, 식당 등 유흥가가 있어 일과를 끝낸 후 사람들은 그곳에서 술을 마시며 놀기도 한다. 수년 전부터 찜질방이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그곳에 가서 목욕을 하고 장시간 쉬었다 오기도 한다.

(3) 노인

노인들은 여가시간이 많은 편이다. 농촌의 경우에는 노인들도 일을 하기 때문에 농한기가 아니면 노인정을 찾지 않으나 도회지는 사시사철 노인들이 노인정에 온다. 오늘날 등마다 노인정이 있어 도회지에 사는 노인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다.

창말의 경우에는 70세를 넘긴 노인들이 노인정에 오는데 그곳에서 점心和 저녁식사를 해결하고 있다. 혼자 살거나 집에서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을 먹으면 불편한 점도 있어 노인들은 아침 외에는 노인정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창말의 노인들은 주로 점심 무렵에 와서 저녁식사를 하고 나면 각자 집으로 돌아간다. 주말이나 휴일에는 노인정을 찾아오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때는 가족들이 모여 집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 때문이다. 특히 노인만 사는 집의 경우 이때 직장생활을 하는 자녀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마을 노인정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돈벌이를 하거나, 손자 봐주기 등의 가정의 소일거리를 하는 경우도 있다. 노인정에서는 삼삼오오 모여 화투를 치는 경우도 있고 잡담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동사무소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사회복지프로그램은 노인들에게 다양한 여가생활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복정동 주민자치센터의 2005년 '노인복지프로그램표'를 보면 아래와 같다²³⁵⁾.

235) 복정동사무소에는 주민들의 문화생활의 향상과 여가생활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매학기마다 개설하고 있다.

월요일	요가D(초급) 09:00~10:00 컴퓨터기초 09:30~10:30	요가A(중급) 11:00~12:00	요가B(중급) 13:00~14:00	노래교실 14:00~15:30		요가(저녁반) 18:20~19:30
화요일	에어로빅 09:00~10:00	요가C (초급) 11:00~12:00	스포츠댄스 (초급) 13:00~14:00	스포츠댄스 (중급) 14:00~15:00	사물놀이 15:30~16:30	
수요일	컴퓨터기초 09:00~10:00	리본공예 10:00~12:00 요가A(중급) 11:00~12:00	요가B(중급) 13:00~14:00			요가(저녁반) 18:20~19:30
목요일	에어로빅 09:30~10:30 컴퓨터 (인터넷) 09:30~10:30	요가C (초급) 11:00~12:00 종이공예 10:00~12:00 게이트볼 10:00~12:00	스포츠댄스 (초급) 13:00~14:00	스포츠댄스 (중급) 14:00~15:30		
금요일	요가D(초급) 09:00~10:00 컴퓨터기초 09:30~10:30	요가A(중급) 11:00~12:00 비즈공예 10:00~12:00	요가B(중급) 13:00~14:00		사물놀이	

↑ <북정동 주민자치센터의 2005년 노인복지 프로그램>

3. 마을잔치와 आयु회²³⁶⁾

(1) 척사대회

과거부터 전통으로 내려온 것으로 설날에 마을의 공터에서 윷놀이를 한다. 마을 운영회에서 각 단체들의 대표자들이 모여 기금조성을 한 후 '청년회'에서 주관하며, 금년 2005년부터는 마을 전체의 모든 사람과 조직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고향친목회를 비롯한 노인회, 부녀회 등이 참여한다. 척사대회를 할 때 노인잔치를 겸하여 음식을 잘 차려서 노인들에게 대접한다.

(2) 노래자랑

마을 청년회가 주관하여 매년 추석에 마을잔치로 열린다. 노래자랑은 이를 동안 열리는데 추석 전날 예선전을 하고 추석날 본선을 한다. 비용은 청년회의 기금으로 한다. 노래자랑을 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 2005년에는 예산부족으로 하지 않았다.

236) 여기에서는 창곡동 창말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다.

(3) 노인잔치

마을 청년회에서 연 2회를 실시하는데, 주로 명절(설날 척사대회를 할 때 노인들에게 음식을 대접)과 복날에 열린다.



↑ 참말 마을공터에서 행해진 노인잔치(1960년대 중반)



↑ 1989년에 참말 노인정에서 행해진 노인잔치 때의 모습

(4) 야유회

노인회 자금과 각 통별로 모금된 자금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야유회’가 있다. 노인회의 야유회는 1년에 2회 정도 가는데 2005년에는 5월 10일과 10월 10일에 다녀왔다. 보통 야유회는 당일로 갔다 오는데 정부에서 노인정 관리비로 나오는 난방비 등을 절약하여 생긴 돈과 마을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가들이 가끔 기부하는 기부금 등이 노인

회 자금으로 구성되어 야유회 때 사용된다. 월 2000원씩 노인회 회비가 있으나 그 돈은 노인정에서 점심과 저녁으로 먹는 식사비용으로 충당된다.

부녀회에서는 1년에 한 번 야유회를 가는데 5월경에 당일치기로 다녀온다. 가끔 마을에서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여행사가 주관하는 것으로 희망자에 한하여 각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다녀온다.



↑ 주민 야유회를 갔을 때의 모습(1984년 서귀포 천지연폭포)



↑ 주민 야유회를 갔을 때의 모습(1975)



↑ 주민 야유회를 갔을 때의 모습(1970년대)



↑ 주민들의 해외여행 때의 모습(1990년대 중반 프랑스)